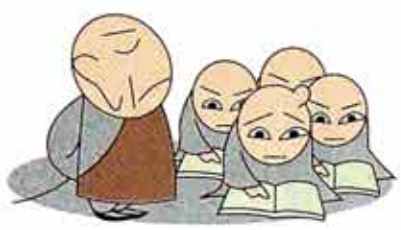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쓸/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지상강좌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3월 1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13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승가교육

승가교육이 바로서야 불교가 바로선다.

지난해 전국을 뒤흔들었던 조계종 사태의 가장 원초적인 원인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승려교육의 부재를 지적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참 수행자의 길을 걷기 위해 출가 수행을 결심한 이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바로 교육이다. 그러나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규모가 큰 종단에서 조차 승가교육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조계종이 지난 94년 개혁 이후 교육원을 독립기관으로 격상시켜 기초·기본·전문·특수·재교육으로 이어지는 승가교육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행자교육 기간 연장, 기본교육기관의 중복이수 문제를 비롯 교수인력 수급문제, 교육시설 부족 등 산적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교육 체계등 점검
불교 경쟁력 회복

또한 교육기관 간의 자기고립적이고 배타적인 이기성 타파도 선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통교육기관은 수행자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대학은 복지·문화 등 불교와 사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스님들의 지적은 평생교육으로서의 승가교육의 방향을 대변해 준다. 강원, 중앙승가대학, 동국대학, 선원, 율원 등 저마다 특성을 지닌 교육기관들이 교류 협력하지 않고서는 승가교육의 체계화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태고종과 천태종등 여타 종단도 행자교육을 중심으로 매년 정식 승려를 양성하고 있지만 내용과 체계면에서 열악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다변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종교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전법과 수행을 목표로 하는 승가의 경쟁력은 승가교육으로 이뤄진다. 경쟁력을 갖춘 미래불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내용과 체계를 점검하고, 종단간 교육주체간 교류의 상호 교환과 위탁 교육 등 승가교육 정립을 위한 대안 마련에 다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pia.com
부다피아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정부 종무실 축소검토 종교계 "절대 안된다"

정부 기획예산위원회가 종교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유일한 조직인 문화관광부 소속 종무실을 축소 개편하려 해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지난달 정부조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교육문화분야의 경영진단을 모니터 컴퍼니와 에경경영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영진단 결과 두 회사는 문화부 종무실을 없애고 대신 문화정책국 산하에 종무과를 두는 방안을 마련, 4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부의 종교관련 실무 책임자는 종무실장(1급공무원)에서 과장(4급공무원)으로 격하된다. 결국 정부의 종교행정 서비스 분야 전반이 축소되는 것. 종교인구가 늘어나고 종교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종무실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구조조정만 염두에 두고 현실을 살피지 못하는 처사"라는 게 종교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4일 종무회의에서 "종무실을 그대로 존치토록 해야 한다"는 종단입장을 정리하고 정부당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또 종단협 등 교계 단체는 물론 타종교 단체들과 연대해 종무실을 존치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도 종무실 존치를 희망하는 건의서를 작성, 국회와 청와대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문화부 종무실은 그간 종교계와 정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며 종교정책의 바른 길을 제시해 왔다"며 "종무실의 폐지는 종교 행정의 축소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종교와 정부간의 조정기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자림스님도 "종교간의 화합 분위기가 고조되고 종교관련 업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관련 행정 부서를 축소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말했다. 현재 종무실 관계자들도 기구축소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문화관광부 구조조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이달중 열 계획이다. <관련기사 6면>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혜초스님 음악으로 환생

"누가 계림으로 날아가 내 소식 전할거나" 1300년전 오천축국을 순례하며 낯달 같은 고독으로 조국을 그리던 혜초스님이 장중한 교성곡의 선율로 환생했다. 2월의 문화인물 혜초스님을 기리는 국악교성곡 '혜초(장지현 작사 김희경 작곡)'가 2월 27일 오후7시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됐다. 본사와 대한불교 진각종이 공동 주최한 이 음악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한 25개 종단 대표와 산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정 관계 인사, 불교계 단체장 등 2천여 시부대중이 함께 했다. <관련기사 7면>

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조계종 139회 종회 22일부터 26일까지

조계종 제139회 임시중앙종회가 22일부터 26일까지 총무원청사 1층 불교회관에서 열린다.

중앙종회는 4일 종회의장단과 각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종회일정과 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종회에서는 불기2542년 결산검사의 건 등 12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임연태 기자

국민정부 출범 1년 조계종 입장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김대중대통령 취임1주년에 즈음한 조계종의 입장을 발표했다. 고산스님은 "새로운 도약과 융비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전 국민이 상생정신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보도난 백서 조계종 5월 발간

1987년부터 현재까지 불교성보 도난 건수는 모두 2백건이 넘는다. 보물 2점과 지방유형문화재 3건을 포함한 도난성보에 대한 종합 자료집이 발간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은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성보도난 백서〉를 간행할 계획이다. 도난성보 목록을 공개해 종단 안팎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또 장물(贓物)이 되어버린 성보들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고, 문화재 감정의뢰 업체등이 도난성보를 발견할 경우 회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성보도난 백서〉는 그간 도난 당했다가 회수된 성보에 대한 환황과 회수 경로 등도 함께 실을 계획이어서 성보찾기의 안내자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2백쪽 분량으로 제작될 이 백서에는 제작 시대, 문화재 지정여부, 도난일자, 원소재지, 크기, 재질 등 도난 성보에 대한 종합 정보가 수록된다. 특히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도난품에 대한 특징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3월초부터 백서 발간작업에 돌입, 전국 본말사와 검찰청, 문화재관리국 등 관련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조계종은 이 작업을 진행하며 그간 도난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성보 실태와 회수 사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이번 작업은 도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방지대책을 세우는 계기도 될 것"이라 설명했다. <성보도난 백서>는 1천5백부 가량 발간돼 주요 사찰과 문화재 관련 기관, 검찰과 경찰 문화재 전담 부서, 골동품 관련단체 등에 배포된다. 임연태 기자

한국불교 전법의 상징
광덕 대선사 원적

불광법회 법주 금하당 광덕(金河堂 光德)대선사의 영결식이 3일 부산 범어사에서 1만여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수됐다. 2월 27일 부산 범어사 염화실에서 세수 73세, 법랍 50세로 원적에 든 스님은 수행과 전법이 둘이 아님을 바라밀 운동을 통해 실현한 이 시대 불교 대중화의 선각자였다.



1927년 경기도 화성에서 출생해 55년 동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스님은 56년 대각회를 창립해 초대회장을 맡았으며, 74년 순수 불교교양지 월간 〈불광〉을 발행, 75년 불광법회 창립, 거사불교활성화, 찬불가 창작 등 불교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관련기사 22면>

이은자 ·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티벳 · 몽골 밀교예술전 11면

알림

TV 인터넷 불교정보사업 시작합니다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는 '컴맹'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집에서 보는 TV에 인터넷TV 수신기만 설치하면 간편하게 인터넷 검색에서 PC통신 전자우편까지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리모콘으로 작동하는 '인터넷 안방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불교정보화에 앞장서온 본사는 홈TV인터넷과 함께 '인터넷 TV'에 불교정보를 독점 제공합니다. 또, 인터넷 TV를 통해 종단 종무행정 네트워크와 포교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개시합니다. 인터넷 TV에 가입하시면, 종단이나 사찰의 각종 공문, 법문자료 등을 인터넷TV로 송·수신할 수있으며 불교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종단과 사찰, 불자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가입 문의: 현대불교신문 전략정보실
(02)732-1520 · 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우리불교(韓國佛教) 어디로 표류(漂流)하는가?!

불교(佛教)의 참뜻은 무엇이며 승가(僧伽)본연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한국 불교의 앞길은 밝습니까?
- 누가 이 화두(話頭)를 던지게 했습니까? 광란(狂亂)의 야단법석(野壇法席). 그 후유증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조계종 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도 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은 한국불교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계종단 내부 사태를 넘어서 한국불교를 망치는 **해불행위**였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한국불교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앞으로 종단은 수행가풍의 확립과 사찰재정의 투명화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또다시 그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승속이 하나되어 뼈를 깎는 아픔으로 환골탈태해야 겠습니다. 이에 **대한불교 전국 산악인연합회**는 온 국민과 불자의 가슴을 상하게 했던 조계종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종단의 안정과 불교발전을 위해 전국 회원단체 구성원 **30,000**여 정회원 불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천명합니다. 현재 종단의 책임있는 기구와 인사들이 이같은 원칙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종권탈착 세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외면할 경우 한국불교는 한국사회의 주변부에 머물 뿐이라는 위기의식의 표현임을 밝혀둡니다.

1.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재정관리 - 조계종 사태를 계기로 양측에서 환원할 수십억여원으로 추정되는 돈은 누가 시주한 돈이었습니까? 앞으로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신도회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찰운영위원회에서 일체의 재정을 관리하여 스님들의 결재하에 집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종회 구성 - 조계종은 사대부중으로 구성한다는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우선 종회부터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① 상원을 승가로, 하원을 재가로 하는 상·하원제로 할 것을 제의한다. ②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운영한다면 승가와 재가 동수로 할 것을 제의한다.

3. 승풍 진작과 승가 정화 - 청정승가상 구현을 위해 스님들은 수행자 본연의 수행에 진력하고, 지난 조계종 사태 당사자 스님들의 철저한 참회와 대오 각성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것이며 이를 계기로 수행정진과 대중포교에 전념하고 계시는 절대 대다수의 스님들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극진한 존경으로 사표를 삼을 것이나 극소수의 권력승·탐욕승·축첩승·도박승 등 해불행위자는 발본색원하여 퇴출 및 예경과 법시대우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문중파벌 조장 타파 - 문중불교 폐습을 타파하고 일불제자(一佛弟子)로 단결해야 합니다.

5. 신도회 조직 - 각 사찰 회장단 및 임원은 스님들에 의한 임명이 아니라 재가불자들에 의한 자율적 선출직으로 해서 철저한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6. 재가 불자의 역할 강화 - 승가의존 일변도에서 탈피, 종단의 한 운영주체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 저희 대한불교 전국산악인 연합회는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산이 좋아 산에 가고 절(寺)이 있어 산에 가는 약 1,000만 준회원 자원 중 우선 향후 2~3년 내에 50여만명의 정회원을 확보하여 산행을 통한 포교에 힘쓰며 자연환경보호와 불교문화 창달 보전 및 효(孝)사상 전파 생활화에 앞장서면서 순수 정통 불교구현에 일심동체로 전력할 것입니다.

대한불교 전국 산악인 연합회

총 재 : 손 현 수

부 총 재 : 정인악 권기종 한계수 이상우 양계숙 임선교
사무총장 : 김대원

중앙회 감사 : 양장운 이옥순
이사 : 차동수 송영길 이용해 최해성 노상원 김승희 한민수 진민자 최복숙 김정애 황순희 정순희 김종순 황상섭 신창숙 변영자 손병국 김원호 이재삼 김장근 최점순 정호옹

중앙회사무국 2232-6948~9 FAX 2233-5445
주소 : 서울 중구 신당2동 421-1 대현B/D 3층
인터넷 주소 : http://www.buddhapia.com

단위산악회 회장단

서울동부불교산악회 차동수 / 서울연심회불교산악회 유재근 / 서울불교산악회 금강에아리 윤부윤 / 서울북부불교산악회 김광호 / 서울불이산우법회 조인행 / 부산불교산악회 류동길 / 부산청년불자산악회 김정관 / 대구불교산악회 정병국 / 인천불교산악회 조병용 / 광주불교산악회 김재승 / 대전불교산악회 지우하 / 대전한밀불교산악회 오도강 / 대전반야불교산악회 김상준 / 대전비봉불교산악회 이제상 / 강원고성불교산악회 김응규 / 양산불교산악회 김학조 / 광명선원불교산악회 최두혁 / 경남고성불교산악회 옥윤중 / 거제불교산악회 조부환 / 속초불교산악회 최상길 / 양양불교산악회 박노영 / 대전약사불교산악회 박암이 / 인제불교산악회 현광호 / 장승포불교산악회 이경언 / 영주불교산악회 천중기 / 안동불교산악회 최상조 / 예천불교산악회 김희섭 / 문경불교산악회 김경수 / 옥포비로자나불교산악회 김무숙 / 전주풍비나불교산악회 윤도아 / 남원불교산악회 구자웅 / 제주불교산악회 김재철 / 충북불교산악회 김정길 / 고양시불교산악회 구윤회 / 성남불교산악회 유덕수 / 수원불교산악회 임병선 / 전국장애인불자연합회 나경선

중앙회 사무국 기획부장 이기풍 조직부장 김남수 홍보부장 김중근 산행부장 나상호 청년부장 이성훈 총무간사 박희정

사 설

문화부 종무실 축소

기획예산위원회가 문화관광부의 종교관련 업무를 축소하려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최근 정부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문화부의 종무실을 없애고 대신 문화정책국 산하에 종무과를 두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 결정에 전 종교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로서도 할 말이 있다. 온 나라가 효율적 경영을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판국에 종교분야의 행정서비스라고 예외일 수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데는 애경경영연구원과 모니터컴퍼니의 경영진단이 토대가 되었다. 두 연구원의 진단이 잘못 되었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경영진단은 현실의 효율만을 근시안적으로 문제삼아서는 안된다. 진단에서 종교관련 업무에 생산성을 고려했다면 그것은 적지않은 판단착오다. 문제는 비젼이다. 사업의 중요도와 전망을 놓치고 현실의 대차대조표만을 고려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미래가 없다. 일본이 그 거대한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오랜 침체에 빠져있는 근본원인이 거기에 있다.

두 연구소의 경영진단은 결국 정부가 종교의 문제를 얼마나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대해왔는가를 반증하고 있다. 종교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어디 한 두 가지인가. 거창하게 보면 20세기의 지구적 분쟁은 종교와 인종을 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유교와 불교 사이의 알력은 옛이야기가 되었지만 기독교와 불교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 중재를 누가 할 것인가.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은 자발적 운동에 맡긴다 해도 현실적이고 사회적으로 충돌하는 현실을 관장하고 그 완충역을 해 줄 기관은 오직 정부뿐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겨레의 문화유산이 붉은 페인트로 칠갑을 해도, 또 조계사가 불법 난입과 방화와 투석전의 아수라장이 되어도 정부는 저만큼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공권력의 태만이다. 종교는 이미 집단이고 조직인 한 사회적 맥락 속에 있고, 그런 점에서 권력행위이다. 그 월권을 제어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다. 경영진단이 부정적으로 나온 것은 이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고식(姑息)에 원인이 있다.

종교는 인간 삶의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영역이다. 인간의 삶은 합리와 계산으로만 구획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행위 또한 그렇다. 정행과 헌신의 본능을 어떻게 유도하고 다스리느냐에 국민적 통합과 사회적 건강이 달려 있다. 이런 문제는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실패하게 되어있다. 아니, 경제영역에서도 지금은 그동안 비경제적 요인으로 알려졌던 사회문화적 전통의 자산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아시아적 가치가 운위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이다.

실질적으로 전 인구의 3분의 1이 종교와 직접 간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과 국가의 명운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 점을 기획예산위를 위시한 정부당국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줄 안다. 지금이라도 그런 적극적 인식과 정위(正位)를 토대로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세분하며, 기획과 사업을 늘여야 한다. 그것이 바른 길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근시안적으로 집착해 인력을 줄이고, 직급을 낮추며, 종무서비스를 축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심모원려가 아니다. 21세기는 종교의 시대이다. 간곡히 재고를 촉구한다.

종교계도 국민연금 파문

보험료 일괄적 부과 항의 잇달아
조계종등 승려노후복지 준비 가속

국민연금 부과업무가 졸속으로 추진돼 곳곳에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로까지 파문이 일고 있다.

성직자의 경우 학생이나 군인(사병), 실직자 등과 함께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고있으나 상당수의 스님이나 목사 등에게도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돼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 서울 사찰의 한 스님은 "대도시 스님들에게는 3백만원, 농촌지역 스님들에게는 1백만원 상당의 월소득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보직이 없는 스님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가 빈번하자 조계종 총무원은 3월초 종보를 통해 △스님은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며 △이미 부과된 경우에서 승적부 사본을 관할 공단에 제시해 취소시킬 것을 당부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이면 당연히 연금보험료 납부 대상이어서 국세청 세금 납부자료와 직업별 과세 표준액, 의료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했다"면서 "봉사에 필요한 활동비 말고 다른 소득이 없는 성직자라면 납부 예외자로 인정되므로 사유서를 지역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전체 국민의 소득 가운데 30% 정도만이 국세청에 노출된 실정"이라면서 "면세 대상으로까지 분류된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 실사를 통해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대부분 성직자들의 노후가 불안한 만큼 성직자들도 국민연금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는 않다. 국민연금이 개인연금에 비해 노후보장 혜택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당연히 세금도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자진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성직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등 불교계는 이제 승려 노후복지문제를 위한 조사사업에 착수한 단계다. 조계종은 노스님들에 대한 열악한 복지환경이 주지직 분쟁과 주지 전횡, 사찰재산의 사유화 문제 등을 낳는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열반당'이나 함께 모여 수도를 하는 선원 형태의 양로원을 짓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3월의 호국인물' 사명대사 추모행사

전쟁기념사업회(회장 홍은표)는 임진왜란 당시의 고승이자 승병장인 사명대사(1544-1610)를 3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하고 5일 오전 전쟁기념관에서 추모행사를 거행했다. 사명대사 공적보고, 헌화, 묵념, 추모사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표충사 주지 신허스님(불교TV 사장), 조계종 분화부장 양산스님, 불교방송 성낙승 사장,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사명당기념사업회 박권희 회장, 이상조 밀양시장 등 군인·불자 2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재경 기자

공로상에 지광스님·경철 교법사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 결정…20일 시상

능인선원장 지광스님과 경철 광주불교대학장이 조계종 제10회 포교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인터뷰 3면>

조계종포교원(원장 정련)은 3일 공로상 2명을 비롯 원력상 8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상식은 20일 오후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거행한다.

포교대상은 매년 12월 선정했으나, 이번에는 지난 해 11, 12월 있었던 조계종사태로 늦어졌다. 또 종정상인 대상 수상자는 종정스님의 궐위로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공로상(총무원장상) 수상자로 선정된 지광스님은 어린이포교와 신도교육 활성화는 물론 해외에도 사찰을 건립하여 해외포교에도 진력하였으며, 각종 장학회 운영 및 복지활동을 전개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경철 광주 정광중학교 교장은 광주불교대학장을 역임하면서 불자양성에 진력하였으며, 교법사로 재직하면서 청소년포교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원력상(포교원장상) 각 부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법미스님(통도사 부산포교원장) △재소자-정남복(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장) △경찰-김진홍(포교사단 경찰포교팀장) △일반-임완숙(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예술연예-김민종(가수) △청소년-이경석(파라미타청소년협회 연구위원) △군포교-박상길(군불교진흥회장) △방송-이영구(불교부산방송 총괄국장).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고침 지난 212호 2면 기사 중 '쌍계사 승가대학 정식인가'는 '가인가'로, 7면 소설 <진감국사> 발행처는 '경서원'에서 '불교춘추사'로 바로잡습니다.

'수련회 정보센터' 운영키로

조계종 포교국장회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사찰수련회 활성화를 위해 포교원내에 '수련회 정보센터'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6월경 개설할 예정인 수련회 정보센터는 △사찰수련회 정보를 취합, 이를 적극 홍보해 일반인의 동참을 권유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나 장소가 없는 사찰이나 단체에 장소 정보를 제공 △수련회 프로그램의 지원 및 협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교원은 3일 열린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보센터 개설에 앞서 사찰수련회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수련회 개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포교원장 정련스님과 포교원 부·국장, 과장, 16개 교구본사 포교국장들이 참석, 올해 포교원의 포교종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찰수련회와 중앙신도회 활성화 방안, 포교사 관리 방침, 신도등록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기사 3면>

정성운 기자

선운사주지에 법현스님 선출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에 현 총무국장 법현스님이 선출됐다. 선운사는 3일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법현스님을 무투표 선출했다. 법현스님은1961년 월정사에서 희찬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67년 법주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대흥사 불국사 총무국장, 총무원 포교국장, 분황사주지 등을 역임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중신회 대의원총회 13일 조계사 대웅전

조계종중앙신도회는 2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의원총회를 13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키로 했다. 중앙신도회는 대의원총회에 △98년 결산승인 △99년 예산 및 사업계획 △회칙 개정 △임원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또 회장 전형위원을 9인으로 구성키로 하고, 인원 구성은 회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정영스님 멸빈결의

3일 조계종 초심호계원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종걸)은 3일 제18차 심리를 열고 정화개혁회의측 총무원장 정영스님에 대해 멸빈을 각운스님에 제적을 관행, 문수, 보연, 성조, 원범스님 등 5명에 공권정지 10년, 본연·종언·활현스님에 공권정지 7년, 오심, 적문스님에 공권정지 5년을 각각 결의했다.

임연태 기자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을 밝힙시다

조계종 사회복지 법인 승가원이 운영하는 원주 치악산 소쩍새마을. 이곳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부랑자와 장애인, 무의탁 노인들 3백여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소쩍새마을은 현재 강원도 횡성에 새로운 보금자리 승가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소쩍새들의 보금자리 건설불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어 불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율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본사는 승가원과 함께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 하나를 밝혀 등체대비의 무량 복전을 일구시기 바랍니다.

△동참비: 1인1등 1만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복지법인 승가원 (02)928-0750
△접수내용: 성명 주소 생년월일(음 양) 영가등도 접수 받습니다.
△접수기간: 3월3일~5월 21일
△입금계좌
- 한빛은행 059-170968-13-001
- 외환은행 142-22-01704-2
- 국민은행 093-01-0293-459
- 우 체 국 011809-0332390
- 농 협 063-01-19213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승가원 소속 스님 13분이 축원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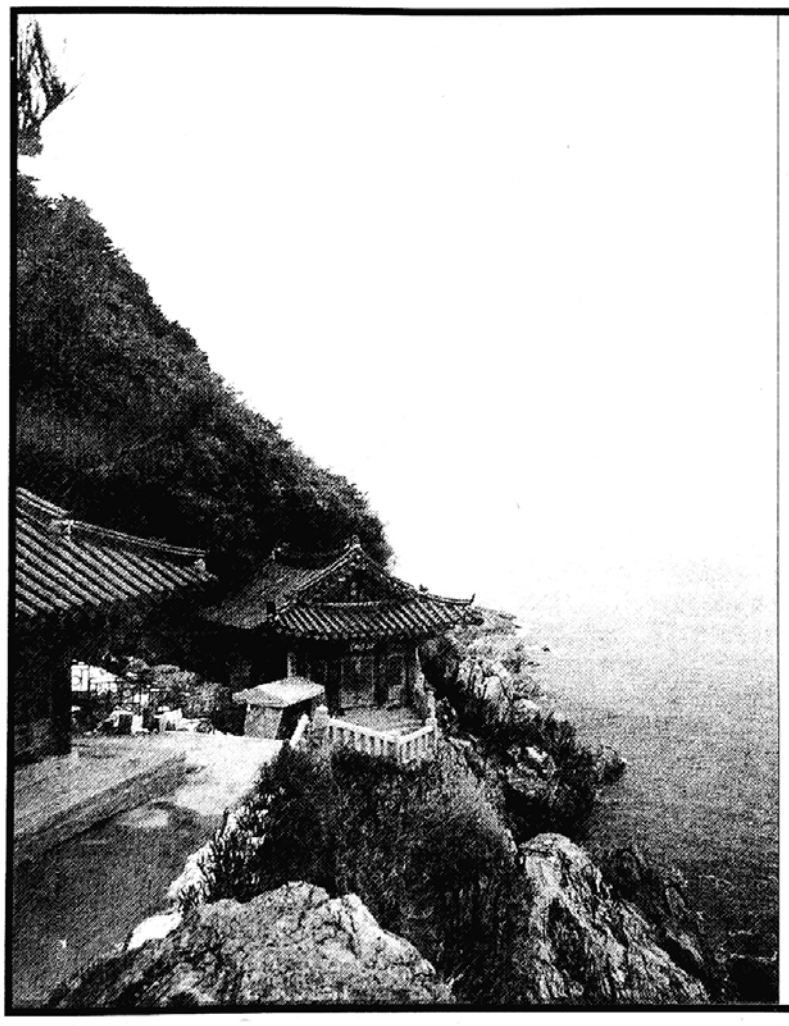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참다운 방생…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머무시는곳

낙산사 홍련암 법당 해체 복원불사 모연문

낙산사 홍련암은 관세음보살님의 진신(眞身)이 상주하는 백화도량으로써 의상스님께서 7일 재계(齋戒)하시어 관세음보살님으로부터 수정염주(水晶念珠)와 여의보주(如意寶珠)를 친히 받으신 곳입니다. 관음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굴 위에 법당을 창건하여 1200여년동안 뭇중생의 영험 도량으로 오늘에 이르렀는바 동해의 해풍(海風)으로 인해 훼손정도가 심각하여 복원이 불가피하므로 이제, 불사의 대원력을 사부대중과 함께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스러운 불사에 무루 동참하시어 수희공덕(隨喜功德)의 인연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3년 2월

■시 주 : 기둥, 서까래, 단청, 기와 등

▶ 대 표 전 화 ◀	■대표 송금 온라인번호■
낙산사 : 0396)672-2447~8 홍련암 : 0396)672-2478	국민은행 : 304-21-0686-334 (송태현) 한빛은행 : 192-121972-12-101 (송태현) 우 체 국 : 201491-0027377 (송태현)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낙 산 사

홍 련 암 주지 지 홍 (송태현) 합 장

■불교TV 살리기 범불교 토론회

"범종단 지원책 절실" "재정-경영 분리 검토"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TV를 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범종단 및 불자들의 지원과 전문 경영인 영입 등이 제시됐다.

3일 동국대 학술문화회관에서 열린 '불교TV살리기 범불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불교TV 회생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는 선우' 박광서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여수석천사 주지 진옥스님등 6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벌인 이날 토론회는 불교TV의 중요성과 위상을 재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놓인 불교TV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신선한 허결책의 제시가 미흡했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 범종단지원 풍토 조성

불교기자협회 하춘생회장은 "불교TV설립 당시 범종단적 협력체제로 출발하지 못해 불교도 전체의 방송이라는 인식 부족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불교TV 주식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통도사 주식 지분을 정리해 특정 문중의 방송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종원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종단적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 시키면서 "불교TV는 2천만 불자들의 발원과 염원의 결정체"라며 "다종교 상황에서 불교TV가 없어진다면 불교의 위상은 나락에 떨어질 것이다"고 전 불교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호소했다. 신동우 불교TV노조위원장은 "불교TV는 주식회사로 등록돼 있지만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소유가 아니라 불자들의 방송"이라고 강조했다.

■ 전문 경영인제 도입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은 "교계의 매스미디어 이용 자세와 인식의 저조가 전문 경영인 부재라는 상황에 부딪혀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며 "불교TV에 대한 잠재 가능성을 적절히 평가 한 뒤 종단과 스님들은 재정적인 면만을 뒷받침하고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영숙 불교TV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에 적극 동의하며 "종단 사태와 관련해 방송의 공정성 시비와 경영 부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 경영진의 한사람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경영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범종단의 적극적인 유무형 지원과 함께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체 수입증대 방안

이영숙 위원장은 또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 판로 확장, 불교 전문 이벤트 사업 등 수입증대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신동우위원장도 "과거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으로 수익성과 프로그램의 질을 동시에 창출 시킨 전력이 있음"을 들며 불교TV의 수입 증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불교TV가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투자와 영업 마인드구축이라는 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숙제들기의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 방송환경 변화따른 대책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성동규 교수는 "전파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방송환경을 볼 때 불교TV가 포교에서 담당하는 몫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타 방송 매체와 차별되는 프로그램을 가발한다면 포교의 광역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방청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영숙위원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합방송법 제정과 채널티어링제 실시로 불교TV의 시청자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아울러 위성방송 등 미래 방송 환경에 대비한 기본적인 제작 기술 체계를 갖춘 만큼 수익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신동우 위원장도 "위성방송이 시작되면 국내 방송을 위해 제작된 기존 프로그램의 영어자막, 영어 더빙의 추가비용으로 몇백배 능가하는 고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디지털TV 시대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은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불교TV는 이날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해 경영 정상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3일 열린 '불교TV 살리기 범불교토론회'에서는 불교TV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신도등록 묘안찾자"

조계종 "계속추진"…실적 고과제등 마련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조계종 신도등록 사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할 것인가. 3일 열린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의 쟁점은 신도등록에 관한 것이었다. 이날 회의에는 포교원장 정련스님과 포교원 부·국장, 과장, 16개 교구본사 포교국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구본사 포교국장들은 신도등록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말사의 신도등록 숫자에 따른 분담금 책정 등이 신도등록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라며, 이의 시정을 포교원에 요청했다. 또 국립공원 무료입장을 빌미로 신도등록을 권유하고서 막상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잘못을 지적했다.

포교부장 현진스님은 신도등록에 따른 분담금 책정과 관련해 이의 시정을 당부하는 공문을 교구본사에 보냈다고 밝히고, "신도등록 우수 사찰 포상, 미비한 사찰의 종정감사 강화, 인사고과 반영을 실현하겠다"며 이 사업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신도등록 사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 모두는 △신도의 조직화 △정기적 신행 확산 등의 목적으로 시작한 신도등록 사업의 계속 추진에 동의했다. 또 15만명에 그친 신도등록 현황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신도등록 사업은 95년 10월 시작, 3월 현재 14만8천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론. 포교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사찰 및 대도시 거점 신행단체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 △교계언론매체와 사찰 발행 매체를 통한 신도등록 홍보 강화 △관람료 사찰 무료입장 추진과 함께 불교용품점과 계약, 불교용품의 할인구매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도등록에 대한 스님들과 신도들의 관심을 모으고 효과적인 방안 찾기를 위해 설문조사와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3월경 5백개 사찰과 신도단체, 일반신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종단의 목적사업임에도 전문적인 이론개발이 없었다는 반성과 함께 중간평가를 하고 신도등록 사업의 본사이관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정성운 기자

무인년 동안거가 2일 전국선원에서 일제히 해제됐다. 방장·조실스님 해제법어 전문은 부다피아 인터넷 속보란에서 볼 수 있다.
〈www.buddhapia.com〉

목어

혜초스님의 날

2월 27일은 혜초스님의 날이었다.

낮에는 학술세미나가, 밤에는 음악회가 열렸다. 세미나장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는 학자와 불자들이 가득했다.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는 1천5백 객석이 모자랐다. 서서 또는 밖에서 모니터로 관람하는가 하면 되돌아간 불자들도 있었다.

혜초스님 음악회 무대는 오카리나 연주로 시작됐다.

1시간동안 쉴새없이 때로는 장중하게 때로는 애달프게 구도의 길을 내달린 창작교성곡 '혜초'는 객석을 사로잡았다.

2천여 청중은 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어떤 이는 가사에 반했고, 어떤 이는 곡·가사·관현악기와 한복의 아름다운 조화 등 모두에 반했다.

혜초스님의 생애가 드라마처럼 펼쳐진 가사에는 구법의 발길과 정신, 敎속에 살아 숨쉬는 禪, 서라벌과 인도의 불심과 풍물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인생은 영원한 우주의 나그네임을 일러주면서 혜초스님의 정신이 새천년으로 울려퍼지길 발원하고 있다.

서양음악을 전공했으면서도 우리가락을 사랑하는 작곡가는 이러한 가사를 국악 교성곡으로 잘 살려냈다. 질풍처럼 내달리는 구법의 열정, 달밝은 밤 뜬구름과 기러기를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는 나그네의 향수를 우리의 소리로 묘사했다.

3백30명이 출연한 대합창은 국악의 하모니였다. 가야금, 대금, 북, 唱 등 전통의 소리에 서양음악적 요소도 얼핏 얼핏 보였다. 그것은 국악이 젊어질 수 있는 가능성 즉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조화였다.

대통령부인 이희호여사는 축하메시지를 통해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혜초스님의 창조적 탐구정신과 진취적 기상은 우리 민족의 세계화에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그 정신과 업적이 선양되길 축원했다.

불교계와 문화관광부는 혜초스님의 정신을 되살리는 성대한 대중공양을 올렸다. 아쉬움이 있다면 불교계 밖의 관심부족이다.

혜초스님 음악회와 세미나는 불교행사로 국한시킬 행사가 아니었다.

1월의 문화인물 이중섭展이 3월까지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혜초 음악회도 녹화·녹음방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 영광의 얼굴

"본분사 충실하면 밝은 미래"

능인선원장 지광스님



"조계종사태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고 참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본분사에 충실하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습니다."

조계종 제10회 포교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결정된 지광스님(능인선원장)은 "매일 기도하고 공부하며 불제자로서 욕되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께 면목이 없습니다"는 말로 소감을 밝혔다.

86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 상가에서 불법을 펴기 시작한 능인선원은 지금까지 능인불교대학을 통해 6만7천여명을 배출해냈다. "마음 속 깊숙히 들어가면 하나인 자리가 있다. 이 자리에 머물기 위해 부단히 자기를 심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로 이같은 놀라운 성과의 비결을 설명했다.

지광스님은 현재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포교·복지 사업을 계속하는 한편 이후 "불교계와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주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학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새싹포교 불교미래 청사진"

정광중 경철교장



"불교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린이·청소년 포교와 포교사 활용이 시급합니다."

포교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결정된 조계종립 광주 정광중학교 경철 교장(62세)은 "미래불교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는 새싹포교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반들과 더욱 열심히 불교공부를 해나가겠다"는 말로 소감을 가름했다.

7년간 광주불교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며 4백56명의 포교사를 배출한 경철 교장은 "인재배출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일"이라며 "각 사찰에서 포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철 교장은 69년 광주 정광고 교법사로 부임하여 전국교법사단 초대부회장과 정광중 교감, 한국시조시인협회 부회장, 광주불교대 학장을 역임했다. 98년 9월 광주 정광중 교장에 취임하여 현재 광주불교대학 명예학장, 조계종포교사단 광주전남부지단장, 광주전남불교신도회 광주불교능인문화원 상임법사로 활동중이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계율해이가 종단불신" 46.7%

승가대 '종단개혁의 평가…' 5백여명 설문

조계종의 젊은 스님(학인)과 신도들은 종단이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계율의 해이와 승가의 자질과 능력 리더십의 결여에서 찾고 있다. 사찰의 재정운영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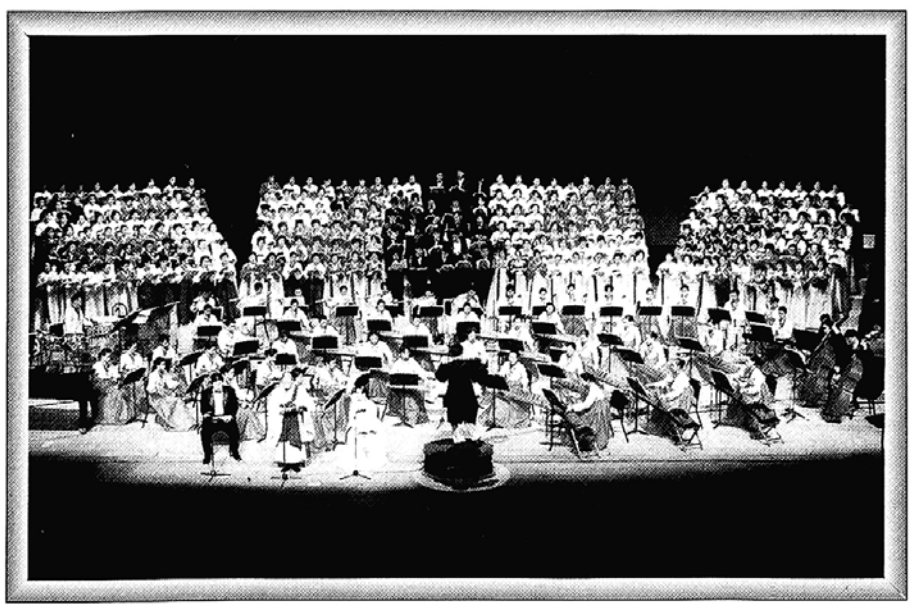
이같은 사실은 중앙승가대학이 최근 발간한 〈승가〉제16호에 게재된 '종단개혁의 평가와 불교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의식조사'의 분석 자료에서 나타났다. 중앙승가대와 전국 강원의 학인 서울 대규모 사찰의 신도, 언론계 종사자 등 5백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가을에 실시한 이 설문은 94년 개혁 이후 4년간의 불교계 변화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조사의 응답자 가운데 46.7%는 계율의 해이가 종단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라 지적했으며 자질과 리더십의 부족이 원인이라 응답도 32%에 달했다. 또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찰운영위원회와 관련, 응답자들은 신도들의 참여가 저조한 가장 큰 원인으로 사찰의 적극성 부족(46%)을 들었다. 또 소임자와 신도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데도 22.3%가 공감했으며 제도적 미비도 지적됐다(20%).

사찰의 재정관리에 대해서는 45%의 응답자가 교구본사별 통합관리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반면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12%에 그쳤고, 재정운영이 비효율적이란 경해도 40%에 가까워 사찰 재정관리에 대한 종단적 개선이 필요함을 드러냈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창작 국악교성곡 '혜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2월의 문화인물 혜초 스님을 기리는 국악 교성곡 '**혜초 음악회**'가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여러 후원단체, 신교도, 음악 애호가들의 성원과 공연 관계자들의 아낌없는 보시행에 힘입어 성황리에 회향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금번 초연을 마친 '**혜초 음악회**'는 지극한 불심과 굽힐 줄 모르는 모험심을 가진 혜초 스님의 구법정신을 유려한 언어로 묘사한 빼어난 가사에 흥겹고 구성진 국악의 선율을 기본으로 서양음악을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불교음악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시금석이 될 수준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교계는 물론 음악계에서도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번 국악 교성곡 '**혜초**' 공연에 보내주신 각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불교음악과 문화발전을 위해 정진해온 종단은 배전의 노력과 서원으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리가 협소 해 불편하게 관람했거나 미처 입장을 못하신 분들에게는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성 초 합장

대한불교진각종 학교법인 회당학원/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 국제불교연구소/ 밀교신문/ 도서출판 진각종 해인행

"회통의 가르침 나누고 싶어"

묵언 해제 청화스님 전국 순회법회



◇청화스님은 2일 책방 여시아문을 방문, 미국에 있는 신도들에게 선물할 불서를 구입했다.

경남 하동 화계 칠불암에서 동안거를 마친 청화스님(전 태안사 조실)이 3월과 4월 전국 8개 사찰을 순회하며 깨달음의 법문을 설 할 계획이다.

스님은 이번 동안거에도 어김없이 묵언수행을 했다. 스님은 "나이가 들어서 묵언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30~40대에 열심히 공부하고, 나이들어서는 중생교화에 힘써야 마땅하나,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중생교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참된수행에 이르기 위해 묵언수행은 필수"라 밝혔다.

이번 안거기간에 얻은 소식을 묻는 질문에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없듯이 나는 아직 말을 할 수 없다"면서 "정평있는 성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안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법회동안 불자들에게 불교의 정통 가르침을 들려줄 스님은 "법집과 아집을 벗어난 회통의 가르침을 불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3월 중순 잠시 미국을 다녀온 뒤 4월말까지 총 8개 지역 사찰에서 법문을 할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순회법회 일정표

날짜	장소
3월 5일	전주 송광사
3월 7일	김제 청운사
3월 11일	곡성 성륜사
3월 28일	안성 도안사
3월 30일	대전 보현불교회관
4월 4일	김포 심우선원
4월 18일	서초 정토법당
4월 25일	제주 고관사



탑골공원 3·1절 현창선언

제80주년 3·1절 기념식 및 3·1정신 현창 선언식이 1일 오전 11시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3·1정신 현창선언문 낭독, 3·1절 노래,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됐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원불교 조정근 교정원장,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장, 지덕 기독교교화연합회장 등 종교지도자와 종교인 1천여명이 참석해 3·1정신을 기렸다.

이어 앞서 3·1정신현창운동본부는 2월 27일 조계사 옆 수송공원에서 보성사(普成社) 기념조형물을 제막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필 국무총리, 신낙균 문화부장관 등 정관계 인사와 종교계 대표 3백여명이 참석했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교차로

불교TV에 1억원 출연

윤보 염불종 종정은 4일 불교TV를 방문, 사장 신허스님에게 1억원의 이사 출연금을 기탁했다.



승가원 이사장에 선출



현성 중앙승가대 총장은 4일 승가원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당연직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파리대서 연구마치고 귀국



호진 동국대 경주 불교학부 교수는 프랑스 파리 제7대학 연구원으로 초청받아 1년간 서구종교현황에 대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2월 25일 귀국했다.

보경사 주지 취임식

법달 보경사 주지는 2월 28일 오전 11시 대웅전에서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과 신도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경사 주지취임식을 가졌다.

육사 호국사서 장병 격려



동광 도선사 주지는 3일 오후 7시 육군사관학교내 화랑호국사에서 열린 생도환송법회에서 장병 및 군인가족을 격려했다.

서울 구치소서 위문 법문



성운 서울구치소 불교교화위원회장(삼천사 주지)은 2월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재소자를 위한 기묘년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1천여명의 재소자들이 참석했으며, 불자가수 김흥국씨의 진행으로 문화한마당 잔치도 진행됐다.

성적우수자에 장학금



혜인 삼화불교대학장은 10일 불교대학 대법당에서 삼화불교대학 제1학기 개강법회를 열고, 98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국신도회 사무국 이전



선진규 전국신도회장(봉화산 수련원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동산교육회관 4층으로 사무국을 이전했다. (02)732-7272

국악 유치원 개원식



박범훈 중앙국립관현악단(서울 국악예고 이사장)은 5일 오전10시 서울 국악유치원 강당에서 국악유치원 개원식을 가졌다.

동화사 제2대 신도회장에



최동원 대구광역시신도회장은 5일 동화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2대 신도회장으로 유임됐다.

프로듀서 진행자상 받아



김병조 불자코메디언은 제11회 한국프로듀서상 라디오 진행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홈페이지 개설등 정보화 주력"

교불련 신임회장 이준 교수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교불련이 되도록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2월26일 열린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총회에서 제8대 회장에 선출된 이준 교수(건국대 공업화학과). 이교수는 "1천여 회원들이 전산망으로 똘똘뭉쳐 연구뿐만 아니라 신행생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교수들이 뒤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교수의 기본적 신념이다. 이교수는 "우선 '한국불교 정보화의 과제'(가제)를 주제로 5월경 학술심포지움을 갖고, 교불련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할 계획"이라며 "홈페이지 개설 후에는 교불련 관련 업무를 E-mail 등으로 처리하고, 불교 신행 관련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전 회원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의상스님 연구"

휴식년 들어가는 정병조 교수



동국대 정병조 교수(국민윤리)가 올 1년간 '교수 연구휴식년'에 들어간다. 지난 2월로 4년 임기의 부총장직을 마감한 정교수는 "보직으로 인해 게을렀던 연구에 전념하고 싶다"며 "특히 아직 미개척분야에 머물고 있는 의상스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세계일보에 연재해 온 '불맥'을 정리·보완, 108개의 한국사찰을 안내하는 책도 펴낼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불교연구원의 국제학술세미나 개최와 신행모임 '구도회'의 강원도 및 청주지부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동국대 신임 인사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1일 서울·경주캠퍼스 교무위원급과 부속기관장급에 대한 신임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캠퍼스 부총장 홍치유 교수(물리), 불교대학장 현각스님(선),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성본스님(불교) 등 총 26명이 신임 보직에 임명됐다. 한편 송석구 총장 재임과 관련, 갈등을 빚어온 교수회는 학교측이 제시한 '회장단 사퇴를 조건으로 한 징계철회'에 합의하고 88일간의 농성을 풀었다.


◇홍치유교수


◇현각스님


◇성본스님


◇장충식교수


◇조용길교수

서울 △부총장 홍치유 △대학원장 민태진 △행정대학원장 이상현 △경영대학원장 조희영 △교육대학원장 곽준규 △언론정보대학원장 김번웅 △산업기술환경대학원장 이문호 △불교대학장 현각스님 △문과대학장 임기중 △이과대학장 이 순 △사회과학대학장 백경남 △경상대학장 김태홍 △생명자원과학대학장 김용욱 △공과대학장 김병식 △정보산업대학장 조 암 △예술대학장 송영방 △이부대학장 강성윤 △기획조정실장 정용길 △연구교류처장 최순열 △관리처장/총무처장 김종욱 △중앙도서관장 조용길 △박물관장 장충식 △정보관리처장 이종욱 △동대신문사 편집/주간 양영진

경주 △정각원장 성본스님 △기초과학센터 소장 박순홈

동국의료원 △경주병원장 정필현 △포항병원장 안우섭 △기획관리실장 배성한



가산연구원 혜초학술 세미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2월2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월의 문화인물 선정 기념 혜초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계정신을 탐험한 위대한 한국인!'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양산스님, 동국대 이종찬 교수, 이기동 교수, 김상현 교수, 부산대 이진오 교수, 한성대 강순애 교수, 진각대 허일범 교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제3회 만해상 시상식

만해사상실천선양회(회장 명호근) 주최 제3회 만해상 시상식이 2월 26일 세종문화회관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종회의장 법등스님, 교육원장 일면스님, 실천선양회 명호근회장, 실천선양회 수석대표 장명국(YTN 대표), 우리는 선우 박광서공동대표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총지종 역삼노인복지관 개관

총지종은 지난 2월26일 서울 강남구로부터 위탁받은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여익구) 개관식을 가졌다. 총지종 김녹정 종령, 불교TV사장 신허스님, 안효강 법장원장, 한나라당 서상목의원, 권문용 강남구청장 등 3백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총지화 재단이사장은 "지역사회 복지와 문화공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선우 향산장학금 지급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는 2월 27일 1차 총회를 열고, 98년 사업 결산 및 99년 사업예산 2억7천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아롱(명성여고 1)학생 등 고등학생 4명과 대학생 3명등 총 7명에게 향산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선우종고등학생회 창립에 힘쓴 손일권씨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訃告

金河堂 光德 大禪師 世緣 已盡

二月 二七日(陰 正月 十二日) 午後 二時

於梵魚寺 入寂 玆以訃告

불기 二五四三년 二월 二七일

문도 일동

■ 永訣時間 : 불기 二五四三년 三월 三일(陰 正월 十六일) 午前 十시

■ 永訣式場 : 梵魚寺 普濟樓

■ 茶毘場 : 梵魚寺 茶毘場

喪 : 덕윤

護 : 덕명

門徒代表 : 혜암

證明 : 서옹 서암 월하 석주

葬儀委員長 : 지유

葬儀副委員長 : 덕명

葬儀委員 : 지백 화엄 능가 고산 정관 무진장 지원 지혜 대정 월서 벽파 백운 양익 홍교 선래 정견 선용 성현 성오 대성 창도 반월 향운 혜운 법륜 혜관 무근 도근 일미 계전 도천 홍원 명선 양국 담연 향국 영환 몽산 원경 호연 일출 휴정 오본 지명 인각 관조 광진 인걸 원우 일오 장산 법희 혜총 도업 보광 홍선 현묵 일면 정련 법등 정락 도후 현해 혜광 진허 법장 성덕 법타 성타 보광 원파 법조 도영 다정 종걸 현지 보선 중원 혜산 밀운 원택 만성 일철 양산 종고 성조 계성 현진 도현 화남 정대 세영 청하 마근 도완 정념 지명 진구 진각 장곡 인행 정묵 법등 법보 종운 종상 종광 수완 능관 영담 정인 정각 근일 설송 평상 원행 성오 화범 진만 종삼 영조 범종 월우 종하 탄우 대원 진원 경훈 성우 명진 현봉 현응 지욱 정우 해창 영배 여연 정휴 법민 장윤 원명 수헌 법성 도문 일법 운달 지형 계호 종훈 원정 법산 정여 해주 본각 경륜 종한 무여 원융 혜국 명정 정찬 상경 현전 우송 인수 지해 설파 지안 수진 지운 대각 통광 거해 혜남 지욱 혜권 의룡 선과 원명 도형 무공 현고 천제 설조 진월 도현 성근 하담 송석구 박충일 조용길 박범훈 류진수 현선 혜하 불광사회상단일동 불광법회인연제자일동(무순)

執行委員長 : 성오

上座 : 지정 지환 지오 지연 지상 혜성 지문 지홍 지원 상진 성일 혜운 학륜 지선 경민 지명 지철 지인 지현 지묘 지종 지성 지암

孫上座 : 진효 진산 진융 대인 대각 대웅 대혜 본공 본각 원일 법효 동일 대우 정안

信徒會長 : 류진수 박충일

■ 문의 및 연락처 : ☎(051)508-3122~7, 508-3636 (02)413-6060~2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五四六번지 범어사

禪刹大本山 梵魚寺 金河堂 光德 大禪師

門徒葬 葬儀委員會

"정치화합 경제회복 앞장"

국민회의·자민련·청와대불자회 합동법회

고산스님 축하법어

국민회의 연등회와 자민련불자회 청와대불자회는 2월 2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국민의 정부 탄생1주년 기념및 기묘년 신년하례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국민회의 연등회 박상규회장은 "국민의 정부에 관심갖고 도움준 불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불심을 모아 더욱 활기찬 국가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철언 자민련불자회장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난국을 극복했다"며 "화쟁사상으로 정치화합에 더욱 진력하여 제2의 건국을 이룩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상심의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진각종 통리원장 성초,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국민회의 연등회와 자민련불자회가 주최하고 청와대불자회가 참가한 신년하례법회가 27일 조계사에서 열렸다.

격려사를 통해 "오늘의 난국은 정치인들로 인해 비롯됐다"며 "하루빨리 정파간 분쟁을 일소하고 민생현안처리에 더욱 진력하는 국회가 되도록 불자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편 청와대불자회 김태동회장은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한글 팔만대장경 CD롬' 타이틀을 기증했으며 법회참가자들은 실직자돕기 성금을 모금했다.

이날 법회에는 각 종단 총무원장스님과 국민회의 박상규부총재, 조성준 배종무 추미애 정한용의원, 자유민주연합 박철언부총재, 청와대 정책기획실 김태동수석, 현대불교신문 김광삼사장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가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교사불자련 가족법회 신심 함양

지난 27~28일 월정사등 순례

"애들과 절에 가면 정서순화에 좋습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가족법회에 항상 아이들과 참가하고 있는 박경자씨는 2년새 아이들의 행동가짐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은완숙)가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월정사 정암사 상원사 법흥사에서 가진 정초기도 가족법회에 참가한 35명의 회원 가족 불자들은 적멸보궁을 참배하며 가족화목과 신심을 다졌다.

이번 가족법회는 평소 시간적인 제약으로 마음놓고 기도를 못한 것에 대한 원을 풀기라도 하듯 각 사찰에서의 기도정진에 이어 정암사에서는 추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야기도를 했다.

박등자부회장은 "적멸보궁에서 정초기도를 하고 나니 올해는 웬지 좋은 일만 생길것 같다"며 "사찰에서 내려오며 '우리는 선우' 회원들과 합장하며 '성불하세요'라는 인사말이 유난하게 가슴에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불자연합회 가족법회는 지난 해부터 시작됐으며, 처음 승용차 1~2대로 출발하던 것이 1년새 대형버스 1대로 늘어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김원우 기자

교사소식지 '귀소야' 26호 발간



광주전남교사모임(회장 김진택)은 교사들에게 띄우는 붓다의 향기 〈귀소야〉 제 26호를 최근 발간했다.

〈귀소야〉에는 영조스님(증심사주지)의 지상법석 '참회 그리고 참회', 김진택회장의 '기도 그리고 영험', 현장스님(대원사주지)이 현대불교신문에 기고한 칼럼 '제정신으로 돌아갑시다', '야광귀신을 위하여'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문의 (062)573-8810 김진택

세무사·국세청 합동법회

한국세무사불자회(회장 정은선)와 국세청보리회(회장 김정부)는 17일 오후 8시 강남 봉은사에서 합동법회를 개최한다.

봉은사주지 원혜스님이 법문으로 진행될 이날 합동법회는 60여명의 양단체 회원이 참가한다. 세무사불자회와 국세청보리회 합동법회는 1월 국세청보리회가 세무사불자회를 칠보사에 초청한 이래 올해들어 두번째다.

정은선 세무사불자회 회장은 "합동법회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신심을 증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02)407-9795

우리 모임에선

석불문화연 사랑방 모임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10일 오후 6시 삼청동 가족아카데미아에서 3월 사랑방 모임을 갖는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근후회장이 '부처님의 상호이야기'를 주제로 발표한다. 문의 (02)760-5138

심우회 육군교도소 위문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7일 육군교도소를 방문하여 수감장병들을 위문했다.

이날 행사는 위문법회에 이어 다과시간 등이 마련됐다.

화두는 견성의 방편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⑨

■11월23일 식욕의 背理

겨울철에 구워먹는 상원사의 감자맛은 일미다. 선객의 위 사정이 가난한 탓도 있겠지만 장안 갑부라도 싫어할리 없는 맛이 있다.

요 며칠전부터의 일이다. 군불땐 아궁이의 꽃불이 죽고 알불만 남으면 고방에서 감자를 몇 되박 훔쳐다가 아궁이에 넣고 재로 덮어버린다. 저녁에 방선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자구이 담당 스님이 아궁이로 감자를 꺼내러 간다. 뒷방에서는 공모자들이 군침을 흘리면서 기다린다.

감자는 아궁이에서 몇시간 동안 잿불에 뜨뜻하게 잘 구워졌다. 새까만 껍질을 벗기면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맛은 틀림없이 삶은 밤맛이다. 서너개 먹으면 허기가 쫓겨간다. 잘 벗겨 먹지만 그래도 입언저리가 새까맣다. 서로를 보며 웃는다. 스릴도 있고 위의 사정도 좋아지니 여유가 생겨서다.

처음에는 화대(火臺)스님이 주동이 되어 몇몇 스님만 방선후에 아궁이 앞에서 재미를 보았는데 이제는 뒷방에서 재미를 본다. 살림살이 책임자인 원주스님은 큰 방에서 자지 않고 별채에 있는 원주실에서 잔다. 그러기 때문에 뒷방의 감자구이가 가능하다.

규모가 커졌다. 공모자가 많으니 감자의 절취량도 많아야 한다. 감자껍질 뒤처리는 당번스님이 철저히 한다.

그러나 계량심(計量心)의 천재인 원주스님이 감자가 없어지는 것을 오래도록 모를리 없다. 그렇다고 대중공사를 열어서 감자를 구워먹지 못하게 할 정도로 곽 막힌 스님도 아니다. 그래서 고방문에는 문고리가 박아지고 자물통이 채워졌다. 그러나 감자구이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감자구이 공모자 가운데는 못과 손톱깎기만 있으면 웬만한 자물통은 다 따는 스님이 있다. 이 스님의 재주를 미처 몰랐던 원주스님의 실책이었다.

아무 말 없이 감자 유출을 막기 위한 비상책을 강구하던 원주스님이 강릉을 다녀왔다. 손에는 큼직한 번호 자물통이 들려있었고 틀림없이 고방에 채워졌다.

그러나 감자구이는 계속되었다. 그날 감자구이 당번은 40대의 원두(園頭)스님인데 이스님은 묘한 습성이 있는 분이다. 어느 절엘 가거나 절간 방에 문이 채워져 있으면 돌쩌귀를 뽑아 버린다. 중이 감출게 무엇이 있으며 도둑맞을 것은 무엇이 있느냐면서 중생의 업고와 무명을 가두어 놓은것 같아 갑갑하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다. 원주스님이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잠갔던 고방문이 돌쩌귀째 뽑혀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원주스님은 언짢아서 우거지상을 지우질 못했지만 감자구이 동호인들의 희색은 만면하다. 원주스님의 판정패다.

그렇다고 판정패를 당하고 선선히 감자를



그림·이준석

훌륭한 선객은 화두에 끌려 다닌다
유무에 얽매인 세간지식 쓸모 없어

대중에게 내맡길 원주스님은 아니다. 와신상담의 며칠간 고심 끝에 묘책은 강구되었고 드디어 실천에 옮겨졌다. 주부식의 원료가 감자 편중(偏重)이다.

쌀과 감자의 비율이 6:4이던 점심이 4:6으로 뒤바뀌고 잡곡과 감자가 비율이 반반이었던 저녁은 3:7로 되었다. 부식도 매끼마다 감자국에다 감자나물이 올랐다. 대중이 항의를 하자 원주스님은 다음과 같이 대꾸했다.

"감자 먹기가 얼마나 포원이 되었으면 그 부족한 밤잠을 줄여가면서까지 감자를 자시겠소. 스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감자 일변도의 메뉴를 짰을 뿐 입니다. 일주일 내로 메뉴표를 고칠 것을 약속합니다."

대중들은 틀림없이 감자에 질리고 말았다. 감자구이는 끝이 나고 동호인들이 뿔뿔이 헤어졌다.

인간 식성의 간사함을 잘 파악하고 이용한 원주스님에게 판정승이 돌아갔다. 역시 살림꾼인 상원사 원주스님다운 책략이었다. 우리는 그때부터 상원사 원주스님을 조계종 원주감으로는 제일인자라고 공인해 주었다.

■11월25일 화두의 묘리

달포가 지나니 선객의 우열(優劣)이 드러난다. 선객은 화두와 함께 살아간다. 화두란 참선할 때 정신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 붙드는 하나의 공안인데 철학의 명제, 논리학의 제재라고 말할 수 있다.

화두는 처음 선방에 입방할 때 조실스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 종류가 무한량이다. 흔히들 세상에 화두아닌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 많은 화두 가운데서 자기에게 필요한 화두는 단 하나이다. 단 하나일때 비로소 화두다 라는 결론이다.

대부분의 선객들이 붙드는 화두는 시심마(이게 무엇이냐)이다. 예로부터 경상도 출신의 스님들이 가장 많아서 강원도 절간에서도 경상도 사투리가 판을 친다. 그래서 시심마가 불교에서는 '이 뭐꼬'로 통한다.

화두는 철학적인 명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이다. 그러니까 분석적인 것이 아니고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화두는 견성의 목표가 아니라 방편이다. 여하한 수단도 목적이 달성되면 정당화 되는 것처럼 여하한 화두도 견성하고보면 정당해진다. 화두가 좋으니 나쁘니, 화두다 아니다 라고 시비함은 미망일 뿐이다. 훌륭한 선객은 화두에 끌려다닌다. 절대로 끌어서는 안된다.

처음 선방에 앉은 선객이 유식하면 유식할수록 화두에 대해 분석적이다. 유무가 단절된 절대무의 관조에서 견성이 가능하다는 선리를 납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견존재(見存在)인 육체의 유무에 얽매이게 되고 사유를 가능케하는 정신의 유무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방의 연륜을 더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식과 함께 분석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무식과 함께 화두가 들어 있음을 알게된다. 이때 비로소 선객이 되는 것이다.

어느 절에를 가더라도 입구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를 볼 수 있다.

"입차문내 막존지해(入此門內 莫存知解)."

유무에 얽매인 세간의 지식은 무용하다는 뜻이다.

선객을 끌고가던 화두는 마침내 선객을 백치가 아니면 천재쪽으로 끌어놓는다. 백치는 백치성 때문에 고통에서 해방되고 천재는 천재성 때문에 번뇌에 얽매인다. 그래서 대우(大愚)는 대현(大賢)이 되고 대고(大苦)는 대탈(大脫)이 된다.

〈계속〉

법안명상 사범학교 99학년도 신입생 모집안내

21세기를 선도할 지도자그룹에 일원이 될 분을 찾습니다.

◐ 심신정화하여 사회정화 할 수 있는 지도사범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함.
◐ 각행원만하여 대중을 자유, 평등, 화합의 세계로 인도할 법사를 양성코자함
◐ 전법교화하여 이웃을 돕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며 진실정토인 정화세계를 이룩할 인재를 양성코자함.

1 교과 및 모집인원 : 법안명상과 10명 (2년제 주말수업)
기공사범과 10명 (2년제 주말수업)
만국역리학과 30명 (2년제 통신 및 주말수업)
불교학과 30명 (2년제 통신 - 법사원위탁교육)
2 입학자격 : 만18세이상 학력제한 없음 (단 불교학과는 고졸이상임)
3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9년 1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 불교학과는 2월25일까지임)
4 전형방법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 전형료 ₩25,000 · 원서대 ₩5,000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본 1부, 여권사진 8매, (최종학력증명서1부 불교학과만해당됨)
6 등 록 금 : 학기당 35만원(입학 동계, 하계 소집교육시 숙식포함)
(단 불교학과는 통신교육이므로 교과서,강의테이프,우송료포함) 숙식별도
7 입학금 : 10만원
※ 특전 : 성적우수자 장학금지급,사범및포교사자격수여, 수행법계품수, 수계, 불교대학원입학추천 우수졸업생은 본교사범 및 조교사로 임명함
※ 선원, 명상수행원, 기공도장, 포교원, 역학원, 사찰창건시 적극 지원함
※ 기타 : 기숙사완비 - 선착순 0명 (월15만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않음, 우편접수가능함 (당일소인유효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부로 문의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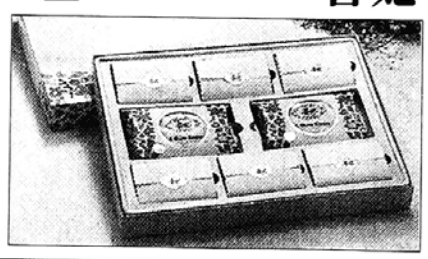
법안명상 사범학교 정화사 혜명선원
사단법인 법사원불교대학 조치원분교

339-830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서로 믿고 화합해야 생활공동체

이렇게 들었다 — 노사협력

노사관계에 다시 먹구름이 일기 시작했다. IMF 파고를 한고비 넘긴 시점에서 노사의 대립은 국가 신인도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원만한 타협에 이르기까지는 산너머 산인 것이 현실이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올해 임금인상율을 5.5%와 7.5%로 내세운 반면, 재계는 동결한다는 방침을 내놓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4천여 노동자들의 시위도 있었다.

국민은 노사와 정부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고용인은 고용주를 위하여 다섯 가지에 힘써야 하느니라.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 그가 부르지 않도록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하도록 하라. 주인의 물건을 아끼고 버리거나 도둑맞지 않도록 하고, 주인이 출입할 때 항상 예절로서 대하며, 주인의 착한 점을 말할지언정 나쁜 점을 말하지 않도록 하라. 〈시가라월육방예경〉

▨고용주는 고용인을 대하되 다섯 가지 일에 힘써 존경해 부양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힘에 알맞게 부리며, 음식과 급료를 적절히 지불해야 하며, 때에 따라 수고로움을 위로해 주어야 하며, 때때로 휴가를 주고, 병이 나면 치료해 주도록 하라. 〈선생자경〉

▨주인은 노비나 종들을 다섯 가지로 대우해라. 마땅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도록 하라. 병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의사를 불러 치료해 주도록 하라. 함부로 때리지 말라. 노비의 사유 재물을 빼앗지 말라. 물건을 나누어 주되 공평하게 하라. 〈시가라월육방예경〉

▨곧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잘못을 이끌어 자기에게 향하면 다툴 것이 없어진다. 〈열반경〉

▨거친 말을 멀리 함으로써 저를 해치고 남을 해쳐서 피차 함께 해입는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저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가 널리 이롭도록 해야 한다. 〈대아미타경〉

▨모든 중생들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 따르니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한가지이나 사업을 이름에는 참아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뜻을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욕함을 배워야 한다. 〈별역잡아함경〉

▨보살은 길을 가면서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매우 더울 때와 비가 오는 때에 나무 그늘이나 집이 있으면 남에게 먼저 앉으라고 양보하며, 우물이나 샘물이 있거나 타인의 물 가진 것을 보았을 경우면 남에게 먼저 마시라고 양보하는 것이 그것이다. 〈보살내계경〉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강당에 모이게 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일곱 가지 법을 말씀하셨다. 첫째 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하라. 둘째 상하가 하나로 협력하여 공경하고 뜻을 어기지 말라. 셋째 법을 받들고 금할 것을 금하여 제도를 어기지 말라. 넷째 스승을 받들어 섬겨라. 다섯째 마음을 닦되 효도와 공경을 우선으로 하라. 여섯째 계행을 닦아 욕심과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일곱째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뒤로 하며 명예와 이익을 탐내지 말라. 그리하면 법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라. 〈장아함경〉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쟁을 일으키려 한대도 같이 싸우지 말라.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뇌를 맛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뇌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쟁인연경〉

열린마당 — 문화부 종무실 축소

정부의 종교행정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 종무실이 축소 대상에 올랐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1급 공무원이 실무 책임을 담당하는 종무실을 4급 수준인 종무과로 격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종교계와 해당 부처의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불교계도 종무실의 중요성을 간과한 발상이라며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불교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종교인구 증가 현행대로 존치"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



문화관광부의 종무실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종교계와 정부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이기 때문이다. 종무실은 종교관련 정책의 제일선 창구이기 때문에 종교인 혹은 종교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국내외 종교활동에 대한 조정과 협력자 역할을 해온 것이다.

그런 기능은 다양한 종교가 존립하는 우리 나라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갈등 해소의 중재자가 되는 표피적인 행정 말고도 이 시대의 종교문화 형성에 적잖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종무실의 축소 개편은 이 같은 역할의 중요성보다는 구조조정이라는 '숙제풀기' 차원에서만 검토된 듯한 인상이다. 종교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종교인구의 증가와 정서를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해야 하고 종무실은 현행대로 존치돼야 한다.

"종교편향 심각 오히려 격상을"

자월 〈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종교간의 화합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종교관련 업무창구를 축소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으니 철회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종무행정은 국민의 절반을 훨씬 넘는 종교인들을 위한 것이란 점에서 오히려 종무기관을 격상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종교가 국민 정신문화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생각한다면 종무기관을 생각하는 정부의 자세는 바뀌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종교정책이 아쉬운 판에 기구를 축소시키겠다는 것은 늘어나는 종교관련 행정을 '나몰라라'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훼불과 종교편향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도 올바른 종교정책의 정책 부재 때문이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기왕 개편설까지 나온 종무실은 이번 기회에 그 역할과 기여도를 새롭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실현 종교역할 크다"

안동일 〈재가불자연합 대표 · 변호사〉



정부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문화관광부의 종무실을 축소한다는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무실은 각 종교계 행정을 다루는 부서이다. 그런만큼 각 교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종교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런만큼 종교계가 말고 있는 사회 분담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예가 인간생활을 차원높게 지켜주는 사회복지 실현 등의 사업은 정부를 대신하여 종교계가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종교계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비롯하여 종교행정서비스가 줄어드는 종무실 축소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민에게 미치는 종교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21세기는 종교의 시대가 된다고 하는만큼 미래사회 종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부 종무실 개편안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문화정책 포기 근시안적 사고"

윤원철 〈서울대교수 · 종교학과〉



민족문화의 꽃인 종교를 관장하는 종무실을 종무과로 3단계나 격하시키려는 것은 문화에 대한 근시안적인 이해에 기인하는 단견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를 있게 한 것은 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개신교 등 주요 종교의 역할이 지대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밀레니엄 문화도 이들 종교가 선도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의 정수는 종교문화로 꽃을 피웠다. 동시에 문화발전의 거대한 원동력은 언제나 종교라는 근원적인 원천에서 발흥했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얼마 않되는 경상비를 절약하기 위해 가장 전망이 밝은 21세기 신문화 발전의 인프라를 도외시하는 어리석음을 국민의정부가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관료주의 발상 종무행정 퇴보"

김용표 〈동국대교수 · 불교학부〉



미래학자들은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21세기에 이르러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종무실이 약화되기보다는 강화되어야 할 때이다. 단순히 종무실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게 아니다. 종무실에서 근무하는 각 종교 담당관들의 전문성 즉, 종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종무실 근무자의 한국의 여러 종교에 대한 몰이해도 지적하고 싶다. 또 종교관련 행정을 담당한 국가의 유일한 기관인만큼 관료적 태도를 버리고 종교서비스 기관으로써 거듭나야 할 때이다.

종무실 축소 방안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한다. 이 일을 계기로 종무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원 자질을 향상해야 하고 국가의 성숙된 종교정책도 요구된다.

목탁소리

IMF체제와 '사람방생'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지난 1일은 민속명절인 정월대보름. 이때면 불교계는 전통적으로 대대적인 방생법회를 연다. 방생의식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보살행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이날 경기도 평택의 한 아담한 저수지. 방생법회에 참여한 50여명의 불자들이 자라, 미꾸라지, 붕어 등을 사와 저수지에 놓아 보니었지만 웬지 표정이 밝지 않았다. 물고기를 놓아 주어봤자 다시 잡히거나, 더러운 물 때문에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힘없이 동그라미를 그리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괜히 돈 주고 산 물고기만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놓아 준 것이 아닌가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 앞선 2월 25일과 28일. 전북불교회관과 영남불교대학이 거행한 방생법회에 참여한 불자들은 하나같이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북불교회관 신도들은 사후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에 서약하면서 헌혈운동에 동참키로 했으며, 영남불교대학 학생 및 졸업생들도 경주 감포 앞바다에서 해변 대청소와 바다살리기 캠페인을 벌인 후 사후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 남기기 캠페인을 펼쳤다. 자연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했기에 참가자들의 보람도 클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전통적인 방생의식은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어류나 조류 등 대상물에게 삼귀의와 오계를 주는 수계식과 보리심을 발하게 하는 법문과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이 함께 행해진다. 따라서 '불자여, 자비심으로 방생업(放生業)을 행하라. 그들이 지금은 어류이지만 모두 전생의 너의 부모이니라'(범망경)고 한 경전의 본뜻을 깊이 깨우쳐 봉행하는 환경친화적인 방생은 생명존중사상을 실천하는 방편이 아닐 수 없다.

버스를 대절해 먼 곳의 방생지를 찾기에 앞서 가까운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인간의 정이 흐르는 '사람 방생'을 실천해 봄은 어떨지.

(jgkim@buddhapia.com)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 본사 생산제품 ·

솔선식(2개월 ₩500,000), 솔효소정액(2월 ₩500,000)

익수영진고 (2개월 ₩1,000,000), 치신왕기환(3개월 ₩500,000)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숭(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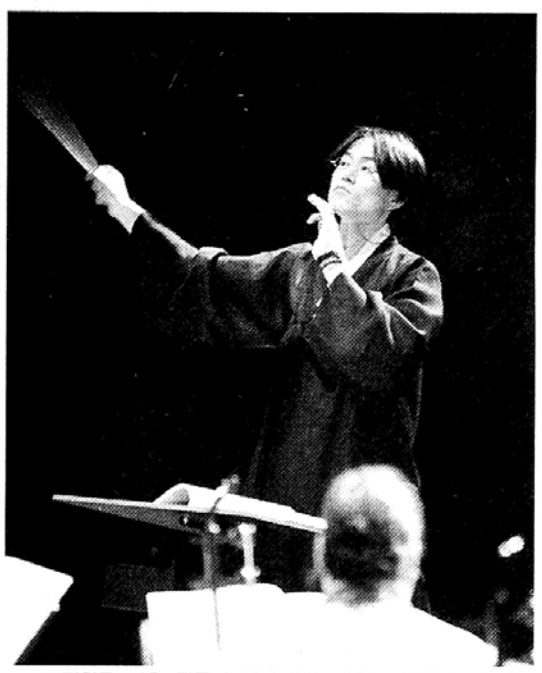
혜초와 만남…2천청중 '환희심'



◇음악회에는 고산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각종 각해 총인, 성초 통리원장, 태고종 인곡 총무원장, 광우 전국비구니회장, 총파 관음종 총무원장, 총지종 총지화 통리원장,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 박철언 자민련 불자회장, 배종무 국민회의 연등회 부회장, 황규선 한나라당 의원,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 김광삼 현대불교 사장 등 종단 대표들과 정·관계 인사, 신행단체장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동참했다.



◇'혜초' 음악회의 처음을 장식한 유승엽씨의 오카리나 연주 선음악 '혜초'. 마치 초원을 흐르는 청량한 바람처럼 그윽하고 신비로운 오카리나 선율이 저 먼 서역으로 인도하고 있다.



◇지휘를 맡은 작곡자 김희경씨는 이번 창작국악교성곡 '혜초'에서 국악과 서양음악의 조화를 시도하는 불교음악의 새로운 기법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창작 국악교성곡 '혜초' 대성황

"위대한 구도정신 음악 승화"

CD제작-지방 순회공연 예정

천삼백년전 불법을 찾아 머나먼 서역만리 구법여행을 떠난 혜초스님. 2월 27일 오후 7시 국립극장 대극장에 모인 사부대중 2천여명은 음악으로 혜초스님의 구법여행에 동참하는 환희심을 맛보았다.

진각 길상사 청룡사 묘각사 인천 보명사 불광사 수원포교당 조계사 청년회 중앙불교 합창단과 서울대 성악과 합창단 등 연합합창단 3백여명이 무대에 서고 중앙국악관현악단이 협연한 국악교성곡 '혜초'는 구성지면서도 흥겨운 전통 국악 선율을 기본으로 하면서 서양의 행진곡, 그레고리안 성가, 인도의 전통 선율, 남도창, 범패 등 다양한 기법이 선보였다. 국악과 서양음악을 넘나드는 불교음악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어 2년전 국악교성곡 '불밭에 피는 꽃'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은 차세대 작곡가 김희경씨의 기량이 한껏 돋보인 무대였다. 장지현정사가 쓴 유려하고 시적인 가사는 혜초스님의 구도여정을 잘 나타내 주었고 도신스님과 국악인 최진숙, 바리톤 유훈석씨의 독창과 남도창, 범패 그리고 내레이션 등이 합창과 어우러지면서 장엄한 음악으로 승화되었다.

'혜초' 음악회는 2부로 진행됐다. 1부는 대중음악가로 잘 알려진 유승엽씨의 오카리나 연주. 유승엽씨는 토속악기 오카리나로 자신이 작곡한 선음악 '혜초'중 '703년 연화장'과 '천축국을 향하여' 두곡을 연주했다. 초원을 흐르는 바람과도 같은 그윽한 오카리나의 선율이 청중들의 가슴에 잔잔하게 파고들은 후 국악교성곡 '혜초'의 연주가 시작됐다.

혜초스님의 구법정신을 유려하고 섬세하게 묘사한 빼어난 가사에 구성지면서도 애절한 선율이 완벽하게 조화된 교성곡은 1시간 내내 청중들의 눈과 귀,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음악회에는 교계 문화행사 최초로 대통령 부인 이희호여사가 축하메시지를 보내 격려해 주었다. 이날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한국불교음악사에 길이 남을 감동의 무대"라면서 "음악회를 준비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공연이 끝난후 기립박수를 선도한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 역시 "혜초스님의 선각자적인 도전정신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음악회"라 말하고 "혜초스님을 문화인물로 지정한데 대해 보람을 느끼며 스님의 업적이 우리 삶속에서 빛나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가족과 같이 관람 온 최장수씨(강남구 대치동)는 "불교인이 문화인물로 지정된다면 이번 음악회처럼 구체적인 문화행사를 마련해 그 인물의 정신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혜초'는 4~5월경 대구등 지방에서 순회공연이 계획되고 있으며 CD도 나올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밀교의 맥 계승한 혜초스님 정신선양"

혜초음악제 공동주최한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위대한 선지식 혜초스님을 국악교성곡으로 표현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참, 감상하고 스님의 정신을 선양하게 된것이 무척 기쁩니다. 끝없는 도전정신과 극기로 험난한 구도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혜초스님을 상기해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용기도 얻고 불심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흐뭇합니다."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은 밀교종단 진각종이 밀교승 혜초스님의 정신을 수준높은 음악제로 기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은 물론 불자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혜초스님을 널리 알리게 된 점을 기뻐했다.

성초 통리원장은 진각종이 문화포교 교육 복지 불사를 지향하는 '문화종단'으로서 혜초음악회를 계기로 "대내적인 문화행사뿐 아니라 범종단적 예술행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불교문화를 창달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힌다.

용성스님 유고詩 '온겨레의…' 3·1절 기념식장서 불려져 화제



"백두산이 아빠되어 단군겨레 이루었고/ 한라산이 엄마되어 단일기백 이루었네/…/만세 만세 만만세는 단군겨레 만만세요/ 만세만세 억만세는 우리겨레 억만세라."

민족대표 33인중의 한분인 백용성스님(1864~1940)의 유고시에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가 최영섭씨가 곡을 붙인 '온겨레의 노래'가 1일 삼일절 기념식장에서 불려져 화제를 모았다.

용성스님이 '온겨레의 노래'를 지은 때는 30년대로 당시 독립운동지사들의 모든 시와 글들은 일제에 의해 압수대상으로 분류, 금지목록에 올랐고 해방후에는 남북분단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속에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91년 용성스님의 유고시집들을 보관하고 있던 도문스님(대각사 주지)이 직접 최영섭씨를 찾아가 곡을 의뢰 95년 노래가 만들어졌으며 이번에 삼일절 기념곡으로 불리게 돼 용성스님의 업적을 한층 추모하게 되었다.

'온겨레의 노래'는 힘차고 역동적인 선율로 자주·독립정신을 잘 표현해 준다는 평을 얻고 있다. 직접 풍금을 연주하며 찬불가를 지어 포교하였다고 전해지는 용성스님은 우리나라 창작 찬불가의 시조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소식

행원문화상에 대중예술상 추가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2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제8회 행원문화상부터 대중예술상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역경상 △문화상 △예술상 등 매년 불교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업적을 이룬 사람을 선정 시상하는 행원문화상의 대중예술상은 방송 연예 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추천 마감 6월 30일. 문의 (02)926-4377(교환302)

통도사박물관 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은 전통문화와 박물관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제1기 박물관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내용은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학 불교미술 등 한국의 전통문화 전반에 관한 것으로 선착순 145명을 모집한다.

또한 박물관 문화센터에서는 4월 26일부터 매주 1회씩 사진 한지공예 서각공예 불화그리기 등 4개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센터 3월 13일까지 선착순 마감. (0523)384-0020

문화재소식

'유적유물 비공개 도면'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구한말 광복이전 유물 관련 자료들을 영구 보존하고 유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유리원판목록집Ⅱ〉과 〈광복이전조사 유적유물 미공개도면Ⅰ·Ⅱ〉 등 자료집을 새로 발간했다.

〈유리원판목록집Ⅱ〉에는 중앙박물관 소장 흑백유리원판 중 소형 유리원판(1931~1944년 촬영분), 중형 유리원판(1924~1934년 촬영분), 대형 유리원판(1911년~1943년 촬영분) 7천8백여장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유리원판은 문화재 뿐만 아니라 풍속, 생활, 경제, 체질, 주거유형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다양한 모습과 상황을 담고 있다.

〈광복이전조사 유적 유물 미공개도면Ⅰ·Ⅱ〉에는 일제시대에 작성된 미공개 유적·유물 도면 중, 경상남·북도의 도면자료 4백여장이 실렸다. 이 보고서는 1942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의 기초도면과 조선총독부 학무국 주관으로 시행되었던 각종 발굴·학술조사 관련 도면 등 보고서나 책자로 소개되지 않은 도면들을 모았다.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보고서

문화재관리국은 중요문화재 기록보존사업의 일환으로 96~97년에 지정된 국가지정(국보·보물) 동산문화재를 수록한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96~97 지정편)〉와 88~96년까지 발견 신고된 매장문화재를 모은 〈중요발견매장문화재도록(제Ⅲ집)〉등 보고서 2종을 발간하였다.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96~'97 지정편)〉에는 부여 능산리출토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를 비롯한 국보 14건과 조선시대의 의약서인 의방유취(보물 제1234호) 등 39건의 보물이 수록되어 있다. 각 지정문화재에 대한 해설과 관련된 사진자료를 담은 이 보고서는 전통문화를 연구 기초학술자료로 쓰거나 일반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중요발견매장문화재도록(제Ⅲ집)〉에는 9년간 발견 신고된 매장문화재 중 3백4점의 중요유물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유물의 특징과 성격에 대한 해설과 함께 사진도판이 실려 있다. 또 이 기간동안 발견 신고된 유물 총4천7백여점에 대한 명칭, 수량, 시대, 발견자 등을 수록한 부록은 발견문화재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경주 남산' 세계문화유산으로

문화재관리국 추진

문화재관리국은 2월2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문화재 선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위원장 고병익)를 개최해 경주 남산과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추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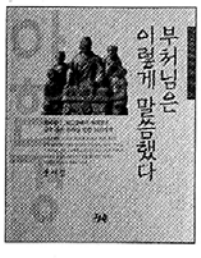
신라인의 불국토 사상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경주 남산(사적 제311호)은 신라미술을 대표하는 불상과 불탑이 산재해 있는 노천박물관으로 산 전체가 신라의 역사와 문화, 신앙이 결집되어 있는 곳이다. 고창·화순·강화고인돌은 세계 거석문화의 발생·분포 및 전파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써 밀집분포도, 다양한 형식의 공존 등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다.

문화재관리국은 관련 시·도와 협조하여 세계유산 등록신청서, VTR자료 등 관련서류를 7월1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등록 여부는 유네스코 전문가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잡아함 1,362경에서 가려뽑은 금쪽같은 부처님 말씀 100가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경전을 읽는다. 2,6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우리 앞에 홀연히 나타나는 부처님. 부처님은 마치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침을 베풀듯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설법을 하신다. 가장 원형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잡아함 1,362경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는 100개의 경전을 골라 간단한 독후감을 덧붙인 이 책에는 시공을 초월한 부처님의 육성이 생생하게 녹음돼 있다.

종사성 지음/ B6 배판 변형/ 288쪽/ 값8,000원

장승 주소: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13층 4호 전화: (02)730-2500, 725-2800 팩스: 723-5961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 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

'한국불교 기도성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적멸보궁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한 관음·지장·약사·문수·나한 기도 성지 등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 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불교계 잡지·신문의 전문 기자가 필자로 참여, 발로 쓴 생생한 정보가 가득한 이 책에는 신비로운 기도 성취 영험담, 절의 역사, 문화재, 절을 찾아가는 길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정성운 외 지음/ A5신 260쪽/ 값 7,000원



불사대사 주소: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13층 4호 전화: (02)730-2500, 725-2800 팩스: 723-5961

몸에는 생기를… 생활에는 윤기를… 아~보아

자연 그대로를 침실에 옮겨드립니다.



이젠 바꾸어요. 세상이 달라지게…

황토의 원적외선은 혈액순환촉진, 피로회복, 숙면, 체온상승, 발한작용촉진, 음이온방출, 숙취해소, 과산화지질분해등의 효과가 있고, 황토의 양이 많은 침대가 원적외선 방출량이 많은 침대입니다.

퍼플

* 사찰을 통한 단체 구입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아모아



마린



제라

아~보아는 다릅니다: 품질이 다릅니다. 써비스와 가격만족은 물론 효능은 더욱 뛰어납니다.



Health-Q HQ-98-030 Quality-Q 0990-98-032 The Far Infared Testing ESAK Membership

황토 흙침대의 명품으로 남겠습니다.

이유

하나 : 살아있는 황토흙을 천연 그대로 사용합니다.
둘 : 황토흙의 양이 국내 최고입니다.
셋 : 전자파장애 Zero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넷 : 황토판의 내구력이 타사제품과 비교기지되지 않습니다.
다섯 : 두께은 동판을 광폭으로 사용하며, 소비자가 직접 흙판두께, 동판두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 최고의 원적외선 방출침대
일곱 : 삼성할부금융 제휴 할부판매(최장36개월)
여덟 : 타사제품까지도 완벽한 A/S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보아황토침대 AHBOA MUD BED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47-5 동화빌딩2층

고객상담실:(02)3431-0322

해외신간

알기 쉬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이성적이며, 상식을 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재가 법사로서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스티븐 하겐은 〈알기쉬운불교(Buddhism Plain and Simple)〉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금의 자신과 현재를 아는 것임을 강조한다. 불교의 근본교리인 사성제와 팔정도를 수필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책. Paperback 출판. ISBN: 0767903323

내면의 불성을 깨닫자



미국에서 티벳불교를 알리고 있는 수라다스 스님이 최근 펴낸 〈내면의 불성을 깨닫자(Awakening the Buddha Within : Tibetan Wisdom for the Western World))는 티벳경전 속에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찾아내고, 불자들의 진심 어린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대사회의 문제의 해답으로 삼을 수 있는 티벳불교의 은유적 깨달음을 현대적 어감으로 설명하고 있다. Paperback 출판. ISBN: 0767901576

해방의 종교

종교가 역사사회의 중심에서 어떻게 인간의 현실에 관계하고 '해방'에 이바지하였는가.

〈해방의 종교〉에서 저자 료오키 마사하루(菱木政晴)는 이 문제에 대해 확인하고, '해방'에 대한 종교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 도구로 기능해왔는지를 검증했다. 綠風出版刊.

'윤회의 수미산 무너지다'

고은 불교소설 '수미산'

육도윤회 넘나들며 불교의 우주관을 시처럼 쓴 소설의 진수

현대불교신문 3년간 연재



◇지난해 5월 수미산(히말라야산)에 오른 고은 시인. 소설 '수미산'에서는 수미산을 무너뜨렸다.

히말라야를 본뜬 허구 속의 산이요, 불교의 우주관을 이루는 거대한 산 '수미산'. 그런 수미산이 무너(?)졌다. 한 시인이 그렇게 했다. 다 무너지고 다 놓아버린 적멸의 상태. 시인은 수미산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재하기를 바랐다.

한국문학의 큰 산맥 시인 고은. 그에게 수미산은 더이상 '상상의 산'이 아니다. 존재의 궁극은 수미산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인생을 시처럼 치열하게 살아왔다면 그에게서 시는 곧 수미산이리라.

시인 고은씨의 장편소설 〈수미산〉(전2권, 대원정사 刊)은 불교의 세계관과 구도 역정을 아름다운 문체로 그려낸 구도소설이다. 그의 시에 절제되어 나타나는 인생과 세계의 의미가 한편의 소설로 짜여져 우리에게 속삭이는 듯하다. 그런만큼 〈수미산〉은 다분히 시적이다.

번연의 〈천로역정〉이나 단테의 〈신곡〉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단순한 구도 순례기라면, 〈수미산〉은 천상과 지옥뿐만 아니라 축생, 아귀, 다양한 인간의 길 등을 종횡으로 오가면서 존재의 의미를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수미산〉은 새로운 차원의 구도소설로 평가할만 하다. 소설 〈수미산〉은 같은 제목으로 현대불교신문 제2호(94.10.26)부터 151호(97.11.19)까지 149회에 걸쳐 3년 동안 연재되면서 독자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야기는 조선후기인 숙종조 방랑승 인담이 예성강 전포나루에서 실성한 낭자 우녀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우녀를 서해안의 자신의 수행처인 무욕도로 데리고 온 인담은 납각(南覺) 무전(無田) 등 8명의 도반을 받아들이고 무욕도 결사를 감행한다. 그렇게 이들은 무욕도에서 치열한 수행을 하다가 인담과 우녀를 납기고 각자 업보와 서원에 따라 다른 세상으로 윤회한다. 이후 무욕도는 요형, 명오 등 세상의 혼탁을 넘어 진리를 갈구하던 새로운 식구들을 맞아들인다. 그러나 이들 역시 모두 업보와 발원에 따라 윤회하고, 인담과 우녀도 역시 윤회의 길을 걷는다.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인 무욕도는 만공스님이 비로소 '달을 만났던' 서산 간월도다. 그리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19인 모두는 수행과정에서 각자 육도 중의 한 곳을 택해 뛰어들고 지옥에서 도솔천까지를 몸소 체험한다. 우리의 정신적 고향으로 여겨지는 간월도와 이들의 수행을 통해 모든 삶의 유형을 파헤치고 있는 고은 시인의 인간표현이 이 소설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

"수미산의 어떤 영매로 하여금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을 받아쓰는 것 같기도 하다"는 김희균씨(전 대중불교 편집장)의 말처럼 이 소설은 마치 내달리는 말과 같은 통쾌함마저 전해준다. 조그마한 삶의 테두리에서 전우주의 갖가지 생명으로 존재의 범주를 넓혀놓은 것이 그렇다. 길고도 아름다운 체험의 여정에 등장인물이 많고 다양한 것도 기억해가며 읽어볼만 하다.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저자의 대승이요, 보살정신이 함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소설의 가치는 '윤회는 삶의 굴레가 아니라 해탈'이며 '생사는 괴로움이 아니라 끝없는 수행과정'임을 보여주는 데 있다. 저자는 소설 말미에서 "해탈이 곧 윤회의 반대인가"라고 묻고는 "해탈이야말로 새로운 윤회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답한다.

그렇다면 고은 시인은 '이제 이 세계에 작은 짐승이나 아메바로 태어나도 좋은 것이다'(시집 〈속삭임〉 중 '내생') 미물조차도 삶 속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옥 속으로도 기꺼이 들어간다. 이렇듯 윤회의 과정을 무한한 수행의 과정이요, 깨달음이 동터오르는 삶으로 기꺼이 껴안은 것이다.

수미산이 무너지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멸망은 그 무엇보다 장엄하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억겁의 세월이 지나 그 세월마저 무너져내릴 때까지 윤회할 우리 모두가 수미산의 '자식들'임을 말한다. '장엄한 적멸의 대단원' 한마디로 〈수미산〉은 그런 소설이다. 값 각 권 8천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신화속에 감춰진 원효스님의 실상

남동신씨 '원효'



남동신씨(한국외국어대 강사)가 펴낸 〈원효〉(새누리 刊)는 원효스님의 대중교화 업적과 사상체계, 원효스님과 신라 중대 왕실의 관계 등 원효스님의 다양한 모습을 기술한 평전이다. 전기에 입각하되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원효스님을 조명하고, '스님'보다는 '거사'의 모습으로 바라본 시각이 독특하다. 화쟁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효스님 시대에 나타난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과 화쟁방식을 밝히고, 다시 그것을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거사로서 일생을 마쳤듯이 불교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재가보살로서의 삶의 조명은 원효스님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내용은 전체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원효스님에 대한 허상과 실상, 시대배경, 스님의 삶을 기록한 3대 전기(傳記)를, 2부에서는 생애를 소개해 놓았다. 3부에서는 고도로 정제된 원효스님의 철학을 다뤘으며, 4부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3대 전기와 13종 저술의 서문을 번역하고 아울러 연표와 참고문헌을 수록해 놓았다. 값 1만원. 한명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참선요지	대 성	여시아문
3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4	밀교강좌	혜 정	출판시대
5	불자의 기본예절	일 타	효 림
6	입산	재 연	문학동네
7	티베트의 지혜	소갈 린포체	민 음 사
8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9	카운슬링 불교	후지타 기요시	시 공 사
10	있는 그대로	마하리쉬	한 문 화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피안을 향한 지혜의 길 해공스님 지음

일상서 실천해야 할 불교가르침



심오한 교리나 사상은 삶의 궁극을 제시한다. 반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가르침이 절실할 때도 많다. 해공스님(영천 충효사)이 펴낸 〈피안을 향한 지혜의 길〉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생활법문집이다.

자기 자신의 주체성 확립, 부부관계·자녀교육 등 가정문제, 공동체 속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편,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불교적 관점에서 비추고 있다. 법문집이기는 하지만 에세이처럼 작은 주제 아래 짧은 글들로 엮어져 있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인생의 물길을 가늠하고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자 강을 건너는 뗏목이며, 지뢰를 감지하는 탐침"이라고 해공스님은 말한다. 〈불교시대사, 9천5백원〉

방생공덕 감로묘우 도휘스님 엮음

일화로 살핀 방생의 공덕과 의미



부처님께서는 "뭇 생명을 살리는 공덕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공덕"이라고 설하셨다. 방생은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는 생명존중사상이다. 그리고 그 공덕은 살생을 하지 않음은 물론 뭇 생명을 살려주고 나아가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자비심이 우러나기 한다.

〈방생공덕 감로묘우〉는 티벳의 적맞펀촉 법왕이 방생에 대해 설법한 것을 정리한 것으로, 그 의미과 공덕을 자세히 소개한 '방생 입문서'다. 사람을 살리고 살생하지 않는 공덕, 살생 참회 등에 대한 방생의 의미를 갖가지 일화를 통해 설명해 놓았다. 삼세의 인과와 티벳의 방생의식도 덧붙여 놓았다. 서문에는 '방생'을 통해 영원한 안락을 얻고 다같이 해탈의 길로 나아가라는 적맥펀촉 법왕의 법문이 실려있다. 저자는 연등사에서 수행정진 중인 도휘스님. 〈부다가야, 4천원〉

불교와 기독교 논리적 비교분석

이동방씨 '예수께서 신을…'



제바달다와 유다, 수바드라와 한 여인, 아시타와 시므온. 불교와 그리스도교 모두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공통점. 제바달다와 유다는 부처님과 예수를 배반한 제자요, 수바드라와 한 여인은 두 분을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이다. 아시타와 시므온은 두 분의 위인됨을 예언했던 사람.

이동방씨(대한불교대학 학장)가 펴낸 〈예수께서 신을 제명하심〉(동방사 刊)은 부처님과 예수,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세세히 비교분석해 놓은 책이다. 비교항목을 명쾌히 나누고 경전과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근거로 그에 맞는 논리를 전개해 놓았다.

내용은 부처와 예수의 일대기, 불경과 신약 성경, 부처와 예수가 설한 진리말씀, 계율과 율법 등 모두 6편의 큰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연기법과 인과응보, 윤회 등 불교의 주요 교리와 비교할만한 성경의 구절을 언급하는 등 저자의 비교연구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도 많다. 값 9천5백원.

한명우 기자

문의 354-6204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봉성기획

박찬호,
20승할까? 못할까?



30분만 따라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설날, 온가족이 모여 함께 따라해 보세요

■ 벽산스님(불명 : 道日) 약력 1968 합천 해인사 입산, 1973 부산 범어사 덕하대 대화상 은사로 득도, 1975~76 통도사/봉선사 강원 대교과수료, 1977 동국대 역경원 원장 운허 대종사 법좌하에서 수학, 1977~86 서울 성내동 자은 포교당 주지, 부산 정수사/소림사/회엄사 주지, 現 합천 칠성암 주지, 부산 금정구 생활 신원 주지

「벽산스님 따라하기」 50쪽만 따라읽으면 누구나 쉽게 괘를 뽑을 수 있습니다.

▶ 6가지 괘 뽑는 법 쌀로 괘 뽑는 법 · 책페이지로 괘 뽑는 법 · 바둑돌로 괘 뽑는 법 · 동전으로 괘 뽑는 법 생활속의 숫자(이피트호수, 주민등록번호, 차표 등)로 괘 뽑는 법 일진, 년, 월, 시로 괘 뽑는 법
▶ 14가지 항목별 괘풀이의 예 투자/주식 2개월간 수요일을 노려라 의약, 식품 주식이 좋다 시험/학문 다시 재정비하라 마음만 앞서기고 있는 상태다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를 연구하고 7일동안 정신수련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매매 타인, 증개인 말만 듣고 함부로 계약하지 말라 3개월만 참으면 좋은 계약이 이루어진다 사업 새시업은 6개월 뒤에 시작하는게 좋다 소자본으로 재별 부립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된다. 자신감을 가져라



10,000명의 실전상담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게 풀어쓴 생활주역
30분만 보면 점쟁이 뺨친다
벽산스님 따라하기

신국판 상,하권 / 값 각권 12,000원

균여스님의 독자적 교판론 고려초 화엄사상에 기여

최연식씨 박사논문 '왕권체제 대변' 일부주장에 반론

"균여(均如)스님은 독자적 교판론(敎判論)을 통해 화엄사상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화엄사상의 정체성을 확립한 고려초기 대표적 화엄사상가다."

고려초 불교계 재편시기에 활동했던 균여스님(923~973). 균여스님의 사상을 고려초기 정치체제 정비과정과 관련, '중앙집권 체제의 확립을 뒷받침하는 사상체계'로 평가한 주장(김두진 〈균여화엄사상연구〉·1983년 刊)을 반박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대 '98 박사논문 '균여 화엄사상연구: 교판론을 중심으로'에서 최연식씨(국사학과)가 "균여스님의 사상을 화엄사상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해하지 않은 채 왕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이데올로기'로 이해한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한 것. 최씨는 논문에서 균여스님의 독자적인 교판론을 중심으로 그의 화엄사상을 중점 고찰하는 가운데 균여스님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본격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균여스님의 사상을 불교사상의 틀 내에서 이해하기에 앞서 정치·사회적 의미로 파악하려는 학계 일부의 불교사 이해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씨는 "실제로 고려초기 화엄종의 부상은 광종(光宗)의 중앙집권화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하나의 사상체계가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단순히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이뤄지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사상자체의 내적 역량 축적과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려는 사상 자체의 쇄신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화엄교학의 이론들을 재검토하여 화엄교학의 체계를 새롭게 정립한 균여스님의 사상은 고려초기 화엄종의 재등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 특히 김두진교수(국민대)가 '균여스님의 성상융회(性相融會) 사상은 광종대의 대호족(大豪族)을 억제하고 왕실을 중심으로한 중앙집권 체제의 확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최씨는 "균여스님의 성상융회 사상은 이론적 측면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던 신라 화엄학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그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려 이후 화엄사상이 교종(敎宗)을 대표하는 사상으로 재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상융회' 사상은 초기의 화엄교학에서 당시 사상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법상종(法相宗)의 유식학설을 화엄사상의 체계에 포섭하기 위해 대두된 것으로, 김두진은 '왕실과 연결된 화엄의 성(性)의 입장에서 지방 호족과 연결돼 있던 법상종 특히 나말여초의 군소호족의 지지를 받고 있던 신법상종의 상(相)의 입장을 통합하고자 한 것이 균여스님의 성상융회'라며 '국왕과 군소호족이 결합하여 대호족을 억압하는 정책을 합리화해 준다'고 밝혔었다.

최씨는 "현존하는 균여스님의 저술 내용 중에는 직접적으로 전제왕권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있는 서술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성상융회 사상이 전제왕권의 이데올로기라는 이해의 전제가 된 왕실과 화엄종, 대호족과 선종, 군소호족과 법상종의 친연관계도 현재의 자료로는 증명하기 힘들다"며 "균여스님의 사상이 당시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관련하여 갖는 의미는 성상융회 사상 자체가 아니라 당시의 중앙집권체제의 실현과정에서 균여가 담당한 역할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통해 설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하나의 사상을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그 사상의 역사적 의미를 사상계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균여스님과 같이 철학적 논의를 주로 전개하고 있는 사람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상 자체의 철학적 내용을 이해한 위에 그 사상이 현실에서 갖는 정치·사회적 기능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학술단신

'정토학연구' 원고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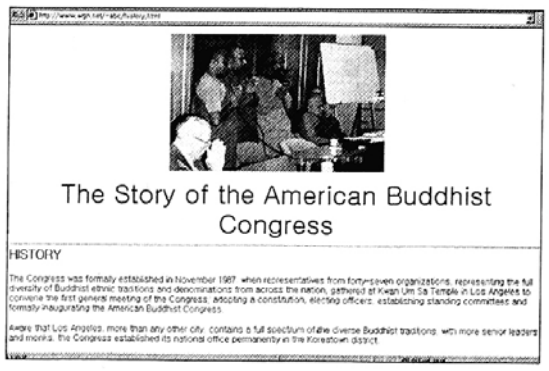
한국정토학회(회장 정태혁)은 〈정토학연구〉 제2집에 수록할 원고를 모집한다. '21세기의 불교신행의 과제'를 주제로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6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02)581-3137

'원효학연구' 제3집 발간

원효학회(회장 김영태)와 원효학연구원(원장 성타스님)은 최근 〈원효학연구〉 제3집을 펴냈다. '원효성사의 교학과 통일이념 연구'를 주제로 지난해 11월 열린 학술발표회 발표논문 10편을 수록하고 있다. (0561)42-9922

'경주사학' 제17집 나와

경주사학회(회장 박청평)가 학술논집 〈경주사학〉 제17집을 발간했다. △대구 도동 관음사의 탑상(장충식·동국대) △경주 남산 용장사지마애여래좌상의 명문과 조성연대(박홍국·동국대) △대한제국기 새로운 관리등용제도의 성립과 시행(정구선·동국대)등 10편을 담았다.(0561)770-2157



The Story of the American Buddhist Congress

HISTORY

The Congress was formally established in November 1987 when representatives from forty-seven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full diversity of Buddhist ethnic traditions and denominations from across the nation, gathered at Kwan Um Sa Temple in Los Angeles to convene the first general meeting of the Congress, adopting a constitution, electing officers, establishing standing committees and formally inaugurating the American Buddhist Congress.

Aware that Los Angeles, more than any other city, contains a full spectrum of the diverse Buddhist traditions, with more senior leaders and monks, the Congress established its national office permanently in the Koreatown district.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미국의 불교단체

평의회-불교회-불광회 등 활동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중국·일본·티벳등 다양한 불교계의 화합을 목표로 삼고 있는 단체들이 바로 미국불교도평의회(American Buddhist Congress), 미국불교회(The Buddhist Association), 국제불광회(Buddhas Light InternationalAssociation) 등이다.

△미국불교도평의회(이하 평의회) 1987년 11월 미국 전역에서 불교의 윤리적 전통과 불교종파를 대표하는 47개 불교단체 대표자들이 로스엔젤레스에 소재한 관음사(觀音寺)에서 설립됐다.

평의회에서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미국 불교인들에게 법회와 불교행사 등을 통괄해 알려주고 다국적 언어로 된 불교문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 또 불교인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불교전통에서 유래한 불교인들의 협동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다.

평의회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불교사찰·단체 주소록' 학술회의 년1회 개최 등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자료를 축적,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사찰 및 단체 주소의 경우 지금까지 약 1천8백여 개의 목록이 수집됐다. 이 사이트를 방문한 불자 네티즌이 전자 우편을 통해 자료 수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불자 네티즌이 미국의 불교사찰·단체를 등록하려면 하버드대학의 '종교다원론 프로젝트'로 해당 사찰·단체를 설명한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또 평의회가 주최한 학술회의 관련 논문·사진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미국불교회 미국불교학에 관심을 가졌던 중국계 미국인의 모임인 '리하이 불교클럽(Lehigh Valley Buddhism Club)'에 기원을 두고 1987년에 설립된 펜실베니아 지역의 중국불교계 학술·신행 단체.

불교회는 펜실베니아의 장엄사에서 회의, 포럼, 법회 등을 개최하고 뉴스레터도 발간, 배포하고 있다. 장엄사는 대불전, 관음전, 인광루, 천련재, 태허재, 도서관, 식당 등의 건축물과 칠보호(七寶湖) 등을 갖춘 대규모 사원이다.

또 불교회 회원들은 중국의 한문장경을 연구하기 위해 불교전뇌자신고공덕회(佛敎電腦資訊庫功德會·The Electronic Buddhadharma Society)라는 학술기구도 설립, 지원하고 있다.

이 공덕회는 대반야경, 불학사전등의 불교 자료들을 입력하여 CD-ROM으로 출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상세한 보고서를 한문(BIG-5)으로 읽을 수 있으며 입력한 자료들을 일부 샘플(영·한)로 제공한다.

△국제불광회 대만 불광산의 성운스님이 설립한 국제적인 신행단체. 불광회는 서래사(Hsi Lai Temple)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15에이커에 달하는 서구에서 가장 큰 사찰. 국제불광회는 중국문화와 불교를 전한다는 목적으로 1978년에 준비를 시작, 1988년에 완공하였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미국불교도평의회 http://www.wgn.net/~abc/abc.html
미국불교회 http://dual/iems/nwu.edu/~cwshen/buda-ebs.html
국제불광회 http://www.clcr.com/hsilai/blia.html

근대 한국불교학 연구 역사학적 접근서 출발

이능화·권상로씨 선구적 역할

이재헌씨 논문 '불교학 성립과 종교인식'

근대 한국 불교학은 사회진화론적인 진보사관에 입각하여 연구하는 작업, 즉 역사학적 접근 방법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헌씨(철학·종교학)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9학년도 박사논문 '근대 한국 불교학의 성립과 종교인식-이능화와 권상로를 중심으로'에서 "불교 근대화를 학문적으로 조명한 이능화와 권상로는 사회진화론과 비교종교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하여 진보적인 한국 불교사를 서술하고 종교 다원주의라는 근대적 종교인식의 바탕위에 불교개혁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논문 전반에 걸쳐 '조선 5백여년 동안의 척불에서 벗어나 근대화와 종교의 자유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한국불교는 학문적으로 이를 어떻게 소화하여 대응하였으며, 또 생존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는가'라고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이씨는 "조선후기의 불교학은 근대적 종교인식을 통해 근대학문으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이능화와 권상로는 선구자적 입장에서 그 기초를 닦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근대적 불교연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인 '종교인식'에 대해서는 △당시의 종교상황을 종교다원주의적으로 본 것 △당시 종교학의 유력한 방법론이었던 진화론과 비교법을 정확이 이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 종교들을 비교 고찰 할 것으로 설명했다.

이씨는 "근대이후 한국의 불교학은 호교적(護敎的) 교리연구나 훈고학적인 경전 탐구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불교 연구의 틀을 잡아가게 되는데 이능화와 권상로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한 역사학적 방법론으로 자료의 축적와 정리를 통해 한국 근대불교학을 정립했다"며 "불교개혁의 이념을 정립하고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를 대사회적으로 홍보, 계몽하는 일에도 앞장섬으로써 불교 자체가 근대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천태종의 원류는 '법안종 선사상'

'불교춘추' 봄호 특집기획

천태종의 원류가 '법안종의 선사상'임을 밝히는 등 의천의 천태종을 새롭게 조명한 학술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달 중순 발간되는 계간지 〈불교춘추〉가 봄호 특집기획 '대륙에서 만난 의천, 그의 자취를 따라'를 위해 지난 1월15일부터 24일까지 중국 현지에서 학술조사를 진행한 것. 학술 조사를 주관한 최석환씨(불교춘추 발행인)는 "의천에 의해 주창된 천태종의 원류는 남종선(南宗禪) 못지않은 전성기를 누리며 고려 선불교를 리드한 법안선(法眼禪)에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법안선의 현장을 찾아서'에서 "법안선은 고려 광종(光宗) 이후 구산선문을 비롯 여러 종파가 천태종에 흡수되면서 자취를 감추었으나 1천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엄연히 한국 선종사에 뚜렷한 존재로 각인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법안선은 의천에 의해 선종을 천태종으로 통합하기 이전까지 꽤 오랜기간 전성기를 맞았었다"며 "천태종의 5대 선원 가운데 무려 4곳이 법안종의 영향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안종은 고려조에 남종선 못지않은 전성기를 누렸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21세기 불교적 사회 '작은공동체'

류승무교수 '승가' 지에 발표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에 적합한 불교적 대안사회는 마을이나 지역사회와 같은 '작은 공동체'이다."

〈승가〉지 제16호 특별기획 '경제위기와 불교적 극복방안'에서 류승무 교수(승가대 포교사회학과)는 '고실업 사회와 불교적 대안사회'를 통해 "우리가 불교적 지혜나 불교적 사회원리를 원용하여 이를 현대사회적 조건 속에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해 본다면, 오늘날 실업문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원리로서 유용성과 함의를 지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교수는 불교이론이 갖는 대안사회적 모델로서의 효용성을 △합리적 경제관 △참여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관 △친환경적 교리 △무소유 등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원리를 지양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등으로 제시하며 "이상과 같은 근거에 기초하여 미래의 불교적 대안사회를 구성한다면 그 사회의 기본단위는 마을단위의 '작은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교수는 "불교는 인간의 행복을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의 총체적 산물로 간주함으로써 실업문제를 물질적 조건의 개선과 비물질적 조건의 확보를 통해 총체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험도량에서
소원성취한 이야기

진현종 지음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이야기』의 저자

생생하고 감동적인 신행의 현장, 방방곡곡
영험도량에서 부처님의 은력(恩力)을 체험한다!

10년 지병을 3일만에 낫게 하고, 30년 어두웠던 세상에 빛을 보내주시며, 죽을 고비마다 나타나 삶으로 이끌어주신 부처님. 참회와 발원이 바탕을 이룬 청정한 마음, 그 속에 희망이 있다. 간곡한 기도로 운명까지 바꿔버린 우리들의 영험담!





신국판/값 5,000원

대원미디어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우:140-190)
대표전화(02)757-6717 팩시밀리(02)775-8043

현대불교 '98년도 합본 제4집 발간 안내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21세기 희망찬 내일 불교의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에서 '98년도 합본 제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다사다난했던 '98년도의 불교계 모든 소식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친견하기 어려운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정보와 지혜의 내용을 함께 모았습니다.

포교와 수행의 지침이 될 「현대불교신문」을 보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위해 '98년 1월 1일자(157호)부터 12월 30일자(204호)까지 총 48호 1,172페이지로 불교를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3집('97년판)과 제4집('98년판)을 한정 판매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법보시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님 계신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입안내

○ 합본 제4집 : 1998년 1월 1일자(157호)~1998년 12월 30일자(204호) 총48호
▶ 1,172페이지. 신문판형『크기: 40㎝×55㎝』
○ 구입 가격 : 1권 6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제3.4집 : 11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 '99.1월에 신청하시는 현대불교신문 구독자에게는 발송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5524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및 신청 : 경영관리국 기획관리부(담당자 이신정)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입금 후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들숨 날숨에 정신을 집중하라"

경전 속의 禪 사상 9

안반수의경〈상〉

글쓴이

이 태 영
〈한국요가연수원장〉

선정 보급위해 부처님도 안반수의
이론과 실제-공덕 두권에 설명

이 경전은 〈불설대안반수의경(佛說大安般守意經)〉 〈대안반경〉 〈안반경〉 〈수의경〉 등으로 불리는 경전이다. 한역으로는 후한시대 안세고(安世高)가 상하 두 권으로 번역한 것이 있다. '안반수의(安般守意)'란 범어 '아나빠나싸띠(Ānāpānasati)'를 소리와 뜻에 따라서 한자로 번역한 말이다. 이 의미를 분석하면 '아나(ana)'는 들숨이고, '아빠나(apāna)'는 날숨이고, '싸띠(sati)'는 의식집중이다. 한자로 보면 '안반'은 들숨과 날숨이고 '수의'는 의식집중이므로 '안반수의'란 곧 들숨과 날숨에 정신을 집중하는 선정 수행이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경의 제목으로 본다면 초기 선정수행의 오정심관(五停心觀) 중의 하나인 수식관(數息觀)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방법적으로도 이 선정은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세는 것부터 시작하나, 내용상으로 볼 때 이 선정법은 '안반수의법' 또는 '안반념법'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

전체의 내용을 보면 상권은 안반수의법의 이론과 실제를 설명하고 하권은 상권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그 공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법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안반수의법을 통하여 많은 교학적인 사상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일견 매우 복잡한 듯하나 그 전체의 구성은 상하권이 다음과 같이 유기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에는 안반수의법에 의해서 여섯가지의 진전 단계를 1)들숨과 날숨의 수를 헤아리는 수(數), 2)호흡에 의식이 따라가 하나가 되는 상수(相隨), 3)마음이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고요히 안정되는 지(止), 4)사물을 관찰하게 되는 의식집중 상태인 관(觀), 5)다시 고요한 자기의 주체로 돌아오는 환(還), 6)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세계인 정(淨)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하권에는 이러한 여섯단계에 이르렀을 때 얻는 공덕을 1)수의 단계에서는 네가지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사념처(四念處), 2)상수의 단계에서는 마음의 힘으로 네가지 악을 없애고 바른 노력을 하는 사정근(四正勤), 3)지의 단계에서는 네가지 신통력을 얻게 되는 사신통(四神通), 4)관의 단계에서는 다섯가지 악을 처부수는 힘을 얻는 오력(五力), 5)환의 단계에서는 일곱가지 지혜를 얻게 되는 칠각지(七覺支), 6)정의 단계에서는 여덟가지 올바른 길인 팔정도(八正道)를 얻는다고 설명한다.

이상과 같은 수행의 진전 단계와 그에 따른 공덕은 최초의 수(數)의 단계에서부터 수동적·자발적인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이 안반념법의 수행의 시작은 단순히 호흡을 헤아리는 행법에서부터 출발한다. 선정수행이 이처럼 동물의 원초적인 본능작용에 바탕을 둔 까닭은 선정수행을 모든 중생에게 보편화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이 경의 첫머리에 "이 때 부처님께서는 앉아서 안반수의를 90일 동안 하셨다. 다시 90일을 홀로 앉아 생각을 가다듬고, 온 세상의 모든 인간과 날아다니는 새와 꿈틀대는 동물들을 구제하시고자 하셨다"이 의미는 선정수행을 쉽게 대중화시키고자 하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수행을 쉬운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은 부처님의 중도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의 육년고행 중에는 숨을 멈추고 참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고행으로 머리는 쪼개지듯이 또는 칼로 베듯이 아프고 몸은 불에 타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이러한 고행은 부처님과 같은 분에게도 궁극적인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반 범부로서는 감히 실행하기 어려운 행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극단적인 고행을 버리고 안반수의라는 중도적 수행을 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살아있는 인간으로서는 아주 당연한 생명현상인 숨의 움직임에 의식을 집중하는 방법인 안반수의는 선정을 쉽게 일반화한 것이다. 그러나 숨을 헤아린다든가 하는 의식집중은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나 생각의 멈춤과 같은 상태(止, 사마타)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교학을 바탕으로 한 지혜로 비추어 봄이 있다. 예를 들면 들숨인 안과 날숨인 반은 곧 생·멸 또는 유·무와 같은 이분법적이고 상대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수의는 중도이고 비춰보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반수의는 지의 수행만이 아니라 관(觀, 위빠싸나)의 수행을 함께 갖추고 있는 지관겸수의 선정법이라 할 수 있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8

지혜

불교학자들은 세계가 진리(dharma·法)라고 불리는 것들의 끊임없는 흐름으로 이루어졌다고 간주한다. 즉, 세계는 진리의 질서 안에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요소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은 무지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고, 그 진리를 볼 수 없다. 스님과 불교학자들이 대중과 학생들에게 불교를 가르칠 때 지혜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덕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진리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근대 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원자, 미립자, 전기장들과 같은 자연계 구조물들이며, 그것들의 속성, 경향, 습관만을 밝혀내기 위해 연구되어 왔다.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으로 연구해 얻어진 자료들을 궁극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혜는 다르다. 그것은 일상적 감각에서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근본적인 개념을 찾아가는 것이다. 지혜는 반야(prajna·般若)와 거의 동일한 말이다.

현대의 보통 사람들에게 지혜라는 말은 현명함, 신중함, 세련된 감각, 침착함 등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또 세계의 움직임을 이해해 얻는 권력으로도 이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처님이 가르친 지혜의 개념은 이와 다르지 않지만 더욱 정밀하다. 그 개념은 처음에는 암시를 주고 다음에는 현실적인 정의를 제시함으로써 더욱 명백해진다. 암시에 관해서는 〈법집론(Dhammasangani)〉에 잘 설명되어 있다.

이 경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는 탐구, 법의 추구, 분별력, 명백함, 반성, 풍부함, 진실한 행복 등이다. 또 마음을 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회초리로써의 지혜, 무지를

본질 꿰뚫어 볼수 있는 지혜로
미혹에 가린 다르마 밝혀내야

깨어있는 상태 '반야'는 최상의 덕

몰아내고 바른 견해를 추구하는 지혜 즉, 번뇌를 잘라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이제 지혜에 대해 실제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지혜란 진리들의 본래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마치 숙련된 궁수가 쏜 화살이 정확히 목표물을 관통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 지혜는 진리들을 감추고 있는 미혹의 어둠을 사라지게 한다.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들은 진리의 실체 즉, 그 진실한 모습을 가려버리고 피상적 외관만을 보여준다. 본질적으로 지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만적인 외관을 버리게 하고 진리의 실제 모습대로 진실한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유·무정물들의 진실한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는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를 명상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삶의 의미와 행위들은 진실한 실제와의 접촉에 달려 있으며, 지혜는 바로 이러한 진실한 실제에만 관여한다. 지혜가 최상의 덕으로 간주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람이 꿈꾸는 동안에는 그 속에서 일어난 듯이 보이는 대상들에 대한 생각이나 영상들을 사실적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거기에는 실제적인 대상들은 없으며,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알게된다. 지혜란 바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한다.

진실한 실제에서는 자아도 무아도 파악될 수 없다. 위대한 현인들은 우리에게 그들에 대한 모든 견해를 피하도록 했다. 보이거나 들릴 수 있는 것은 진실한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학산책 — 음과 양



절대적 분별은 없다
음과 양의 존재는
각자의 입장차일뿐
같은 근원의 다른 다툼

1956년 프랭크 양과 중국계 물리학자 리(T.D. Lee)에 의해 약한 상호작용에서는 패리티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 컬럼비아 대학의 우(C. S. Wu) 교수에 의해 코발트60 이란 원자의 붕괴에서 방출되는 전자들이 한쪽으로만 스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이론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게 되었다.

약한 상호작용은 전자와 중성미자(neutrino)라고 하는 전자의 짝에 관한 행동과 관계있다.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입자들을 통칭하여 경입자(lepton)라고 부른다. 물리학자에 의하면 전자와 중성미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W입자(W는 weak에서 따옴)라고 부르는 새로운 입자의 교환으로 일어나고 이 입자의 교환에 의해 약력(weak force)이 발생한다고 한다.

세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4가지 힘중의 하나인 약한 핵력(약력)은 방사성 붕괴와 관련있다. 방사성 물질은 붕괴하거나 부분으로 쪼개어질 때 열을 방출하므로, 약한 핵력은 지구 깊숙이 있는 방사성 광물을 가열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 열은 화산활동을 일으키는 열이 되고, 가끔씩 지구 표면에 까지 이르는 강력한 용암 분출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약한 핵력은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즉, 방사성 요오드는 갑상선 종양의 제거에 사용되고 어떤 유형의 암세포에 방사능 치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방사성 붕괴의 힘은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미국의 스리마일 섬과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서 있었던 핵발전소의 방사능 유출은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다시 우리의 외계인과의 통신으로 돌아가자. 이제 리와 양의 결과를 안 후, 우리는 마이크 앞에 되돌아가 외계인에게 얘기한다. "이젠 됐습니다. 코발트60을 많이 준비하고 자기장을 걸어서 전자가 방출되는 쪽이 북쪽입니다. 당신이 북쪽의 의미를 알면, 시계방향이나 오른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계인이 대답한다. "우리는 코발트60이 뭘 말하는지 안다. 그것은 핵 안에 60개의 양성자를 가진 원소이다. 우리는 이 실험을 할 수 있다." 결국 리와 양의 선구적인 업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개념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서로의 우정을 표시하기 위해, 우리가 외계인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면 오른손과 오른더듬이로 악수하기로 서로 미리 약속한다. 드디어 외계인의 별에 도착하여 외계인과 만나 우리의 오른손을 내민다. 그런데 그 외계인들이 그들의 왼쪽 더듬이를 내미는 것이 아닌가.

순간적으로 우리는 여기에는 심각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 외계인들은 반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까지 계속 우리는 반물질로 이루어진 외계인과 얘기하고, 그들은 또 반코발트60으로 실험을 하고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행한 반전자의 스핀을 측정한 것이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소름끼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만약 우리가 외계인의 왼손과 악수하면 우리들은 서로 물질-반물질 충돌로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른쪽이라는 개념은 이 개념이 존재하는 기반인 더 큰 개념(이 경우는 세상)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다. 입자 세계에서 입자를 측정했느냐 반입자 세계에서 반입자를 측정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물론 각각의 세계에서는 측정에 아무 모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들 각자는 자신이 옳게 측정했다고 믿게 된다. 아상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이….

여기서 우리는 또한번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분별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음을 알게된다. 이는 음과 양이 태극의 바탕에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며 존재하지만 태극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른 성질은 같은 근원의 다른 나툼인 것과 같다. 즉, 용과 체의 문제인 것이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최신 PCS폰 무료에 160분 무료 통화까지!

016 놓치지 맙시다! 대축제 3月 26日까지

놓치지 맙시다 I — 최신 PCS폰 무료 제공

아래의 가입조건을 갖추어 가입하시면
최신 PCS폰을 무료로 드립니다.

■ 가입조건
1) 요금서비스 : 에이스요금 또는 프리요금중 택일
■ 행사대상모델

▶ 가입조건 모두 개통일로부터 6개월간 명의 변경, 요금변경 및 일시정지 금지
▶ 가입비 별도(분납가능) 및 1년간 의무사용 조건
▶ 상기모델은 조기에 품절될 수도 있습니다.
▶ 지로를 통한 요금납부는 해당안됨



놓치지 맙시다 II — 신규가입자 누구나 160분 무료통화 제공

행사기간중 가입하시는 모든 고객께 160분 무료통화 혜택을 드립니다.

■ 무료통화 증정방법
· 가입 익월에 제공
· 미사용분 이월 사용 불가
· 무료통화는 국내 통화만 가능(국제전화, 700서비스, 114안내등 제외)

놓치지 맙시다 대축제 신청방법
■ 서울 02)732-1522, 02)737-8881로 전화주시면
■ 신분확인후 즉시 개통
■ 택배로 가정까지 배달됩니다.

전화 : 02-732-1522 / 737-8881(대표)
팩스 : 02-737-0697 / 737-0698,0696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PCS 016 담당자 앞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만다라-탕카의 세계로 초대

티벳 · 몽골 밀교예술전

광주 전일빌딩 5층
11월 13일까지 전시

우주의 질서-깨달음의 실상 예술적 형상화
밀교의식 법구류 · 티벳민속의상 등도 볼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티벳. 생활과 종교가 둘이 아닌 티벳사람들. 티벳불교의 만다라와 탕카(탱화)를 만나는 순간 감동에 앞서 성스러움에 옷깃을 여미게 된다.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 5층에 티벳미술 문화의 진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티벳 · 몽골 밀교예술 특별전'이 마련돼 시민과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보성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이 10여년동안 티벳을 오가며 수집한 미술품들을 한데 모은 것.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티벳 · 몽골 만다라와 탕카 등 5백여점. 불상 및 밀교의식에 쓰이는 각종 법구류 50여점, 민속의상 및 민속공예품 30여점, 불경 목판화 전적류 30여점, 인도 고대 불상 및 세밀화 30여점 등 총 5백여점. 티벳 불교미술품들이 인류의 가장 뛰어난 문화유산으로 꼽히는 이유를 관객들에게 말없이 전하고 있다.

전시회는 2월 14일까지 열 예정이었으나 반응이 좋아 11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성 백민미술관에서 티벳불교미술전을 연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전시에는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조성된 '칼라차크리' 등 만다라와 탕카, 섬세함으로 유명한 석가족의 장인들이 정성으로 제작한 '연등불'과 몸안의 남성에너지와 여성 에너지가 완전한 조화를 이룬 깨달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남녀 부모불', 한지에 쪽물을 들이고 옻칠을 한 다음 금 · 은 · 터키 · 산호석 등 네가지 보석으로 쓴 불경 등 티벳인의 종교적인 신심과 열정이 찬란한 불교미술로 승화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대한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밀교에서 만다라와 탕카는 생명과 우주의 질서, 깨달음의 실상세계를 형상화 한 것으로 밀교 수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다라는 크게 대일경전에 의해 여성에너지를 상징하는 태장계 만다라, 금강정경에 의해 남성에너지를 상징하는 금강계 만다라로 분류한다.

태장계 만다라의 기본구조는 중앙에 중대 팔엽원이 있고 중심원에 우주 법신생명의 인격화인 비로자나불이 연꽃방석위에 앉아 있다. 그 둘레에는 여덟 개의 꽃잎에 4여래와 4보살이 배치되어 있다. 4여래는 우주를 구성하는 4대 원소, 흙 · 물 · 불 · 바람의 상징이다. 4대보살은 정신의 4대 원소인 수 · 상 · 행 · 식을 각각 나타낸다. 이는 수행자가 물질과 정신의 구성원소가 본래 실체가 없는 공성(空性)임을 증득할 때 무아를 깨닫고 법신 생명과 한몸이 된다는 뜻이다.

금강계 만다라는 동 · 서 · 남 · 북의 4대 여래가 각각 4보살을 거느리고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는 모양이다. 이는 중생의 다섯가지 번뇌가 정화되면 본래 스스로 존재하는 5가지 지혜덕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상징한다.

만다라는 청 · 황 · 적 · 백 · 흑(녹)의 다섯가지 색채로 구성된다. 하얀색은 생명 우주의 중심 비로자나불을, 파란색은 자신의 틀에 맞추려는 에너지를, 노란색은 집착을, 빨간색은 애착을, 연두색은 활동적인 에너지를 각각 상징한다. 즉 만다라는 오염되고 병든 마음이 깨끗하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통로인 것이다.

티벳의 탕카는 종교적 의식에 사용됐던 인도의 종교디술 빠따(Pata)와 만다라에서 유래한다. 탕카에는 모든 종교적 의식이 그려져 있으며 수행과 명상을 위해 사용된다. 요즘 티벳의 탱화는 멘리, 멘살, 까르마 가드리의 세가지 양식이 있다. 이 탱화속에는 부처님, 보살들, 가르침에 호소하는 신장들, 스승들의 생애, 육도윤회, 계율과 의학이 관한 내용 등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도 병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액난을 막기 위해, 극락왕생을 위해서도 탱화를 그린다. 티벳의 탕카는 아무리 복잡한 내용을 표현하더라도 세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이뤄진다. 상단의 좌우에는 해와 달이 빛나고 하단에는 연화대 위에 본존이 모셔져 있다.

이번 전시회에 전시된 티벳미술품들은 이같은 부처님의 심오한 진리와 티벳인들의 혼이 내포돼 있다. 특히 만다라 명상은 번뇌와 고통 불안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초켈스님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개인의 고통과 불안, 사회의 혼란은 자기 생명의 본질에 대한 무지에서 온 것이다. 삶과 죽음 이후의 세계, 생명과 우주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의 영성세계를 예술작으로 표현한 티벳불교미술을 통하여 모든 이웃들이 고통과 불안의 원인을 깨닫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큰 숨을 세 번 내 쉬어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나쁜 독을 다 내보낸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이 불 보살의 자비를 고 청정한 마음과 하나라고 생각한다. 만다라 감상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 바로 만다라 세계의 중심이다고 생각 한다." 등의 만다라에 대한 올바른 감상법을 설명했다.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조성된 칼라차크리.

티벳사람들은 자기의 성품과 우주의 본바탕인 '비어있음'을 몸으로 걲기 위해 탕카예술을 배우고, 좁은 생각을 내세우지 않으려고 경전을 배우고, 영성의 힘을 얻으려고 스승을 찾아 성지순례를 한다. 전시관에 마련된 법당에 앉아 명상에 잠기면 생활과 종교가 둘이 아닌 티벳사람들의 순수를 닮을 수 있다.

글=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악사여래의 정토를 그린 만다라.


◇석가세존과 16나한을 그린 탕카.


◇티벳 · 몽골 밀교예술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초켈스님으로부터 미술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있다.



땀흘리는 미륵불

티벳 · 몽골 밀교특별전에 전시되고 있는 미륵좌상이 2월 12일부터 몸에서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어 관람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처음에는 안면부분에 습기가 어리기 시작해 하반지까지 축축히 적시고 있다.

밀교예술전 기획 현장스님
"티벳의 지혜 배우는 기회로"



티벳 · 대몽골 밀교예술특별전을 기획한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은 "이 행사가 단순한 미술품 전시회가 아닌 티벳의 생활지혜를 배우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장스님은 87년 인도 라닥의 '초크탐사'에서 묵언기도를 마친 달라이라마를 친견한 것을 계기로 티벳불교를 만났다. 그 후 스님은 티벳불교에 매료돼 수행과 연구활동에 남다른 원력을 보이고 있다.

10여년동안 5백여점의 티벳불교미술품을 수집해 온 스님은 "티벳 예술에서 볼 수 있는 티벳의 맑고 깊은 정신문화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싶어 전시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티벳은 가장 절실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민족으로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보며, 현대산업사회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스님의 티벳불교 예찬론이다.

"티벳불교는 21세기를 위해 보존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종교적 힘을 잃고 물질주의화 된데 반해 티벳불교는 21세기에 인간을 구원하는 종교로 우뚝 서 있어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현장스님은 지난해 5월 티벳 라마댄싱팀 초청 공연, 티벳 불경 번역 등 티벳과 한국불교 교류사업에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문화재 가치가 높은 티벳의 예술품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1백20평규모의 (가칭)티벳성보박물관을 대원사에 건립하는 한편 티벳과 몽골의 불교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티벳 몽골 불교문화연구소도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수천년 불교역사의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 티벳불교미술품들을 모으며 정토를 염원하고 있는 현장스님은 "밀교미술품 보기를 좋아하고 그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처에 이르는 성스러운 길로 들어 선 것"이라고 말했다.


◇티벳불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있는 불자들.

명상음악-선체조 강좌
티벳불교 이해에 한몫

전시관에는 티벳불교의 이해와 신행활동을 돕기 위한 강좌도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명상음악 감상 및 선체조 건강기공이 바로 그것.

전시장 한켠에 30여명이 앉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에는 관람객들이 티벳에서 온 초켈스님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손녀와 함께 보성에서 온 지혜심보살은 "스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 전시작품과 티벳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며 호뭇해 했다.

이밖에도 불자들의 참배를 위해 티벳식 소법당을 마련했으며, 티벳관련 비디오를 상영하는 등 각종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는 이번 전시회가 눈으로 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학습을 통해 티벳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처방이다.

강좌를 듣고 싶어하는 불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시회를 주최한 대원사는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3개월동안 명상음악 · 선체조 상설 강좌를 마련했다. 이 강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강좌에는 티벳에서 온 초켈스님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스님은 지난 96년 한국을 방문해 한국불교를 배웠고 지난해에는 한국불교와 티벳불교의 영적교류를 위해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여시아문刊)를 발간하기도 했다.

우리말을 유창하게 하는 초켈스님은 매주 화요일 '생활속의 실천불교'를 주제로 강의한다. 목요일에는 보성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의 '명상음악 감상 및 만트라 학습 · 선체조와 건강기공(항공)'을 실시한다. 회비는 일반 5만원, 학생 3만원이다.
(062)222-1165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⑩

故祖師云 汝但於心無事 於事無心
고조사운 여단어심무사 어사무심
自然虛而靈寂而妙 是此心旨也
자연허이영적이묘 시차심지야
據此則以無妄心 非無眞心妙
거차칙이무망심 비무진심묘
用也 從來諸師 說做無心功夫
용야 종래제사 설주무심공부
類各不同 今總大義 略明十種
유각부동 금총대의 약명십종

그러므로 조사는 "다만 너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고, 일에 걸리는 마음이 없으면 자연히 비었으되 신령스럽고, 고요하면서도 신묘하다"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마음의 참뜻이다. 이렇게 볼 때 망심이 없다는 것이지 진심의 묘용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종래의 여러 선사가 무심의 공부에 대한 말씀은 그 유형이 각기 다른데 이제 대의를 총괄하여 대략 열 가지로 밝히겠다.

一曰覺察 謂做功夫時 平常絶念
일왈각찰 위주공부시 평상절념
隄防念起 一念纔生 便與覺破
제방념기 일념재생 편여각파
妄念覺破 後念不生 此之覺智 亦不須
망념각파 후념불생 차지각지 역불수

一條白練去 冷湫湫地去 古廟裏香爐
일조백련거 냉추추지거 고묘리향로
去 直得絶廉纖離分別 如痴似兀
거 직득절렴섬리분별 여치사올
方有少分相應 此是休歇息妄功夫也
방유소분상응 차시휴헐식망공부야

둘째는 쉬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부할 때,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마음이 일어나면 곧 쉬고, 인연을 만나도 즉시 쉬어야 한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가닥 흰 비단실처럼, 찬 땅을 조심스레 밟고 가듯, 옛사당 안의 향로처럼 엄숙하고 고요히 하여 바로 망상을 끊고 분별을 떠나서 마치 바보와 같고, 막대기 같이 되어야 비로소 조금 진심에 부합된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쉬고 쉬어서 망념을 없애는 공부이다.

三泯心存境 謂做功夫時
삼민심존경 위주공부시
於一切妄念俱息 不顧外境
어일체망념구식 불고외경
但自息心 妄心已息
단자식심 망심이식
何害有境 卽古人 奪人不奪境
하해유경 즉고인 탈인불탈경

"다만 너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고 일에 걸리는 마음이 없으면 신묘"

用 妄覺俱忘 名曰無心 故祖師云
용 망각구망 명왈무심 고조사운
不怕念起 只恐覺遲 又偈云 不用求眞
불파념기 지공각지 우게운 불용구진
唯須息見 此是覺察息妄功夫也
유수식견 차시각찰식망공부야

첫째는 깨달아 살피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부할 때 항상 생각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생각이 일어남을 막으려면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즉시 깨달아서 부숴버려야 한다. 그 망념을 깨달아서 부숴버리고 다음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며, 이러한 깨달은 지혜마저도 쓰지 않고 망념이다, 깨달음이다 하는 분별도 함께 잊어버리면 그것을 무심이라 한다. 그러므로 조사께서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 말라. 단지 깨달음이 더뎌질까를 두려워하라"하였다. 또 게송에는 "진심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견해를 쉬어 버려라"하였으니 이것이 깨달아 살펴서 망념을 쉬는 공부이다.

二曰休歇 謂做功夫時 不思善不思惡
이왈휴헐 위주공부시 불사선불사악
心起便休 遇緣便休 古人云
심기편휴 우연편휴 고인운
法門也 故有語云 是處有芳草
법문야 고유어운 시처유방초
滿城無故人 又龐公云
만성무고인 우방공운
但自無心於萬物 何妨萬物
단자무심어만물 하방만물
常圍繞 此是泯心存境
상위요 차시민심존경
息妄功夫也
식망공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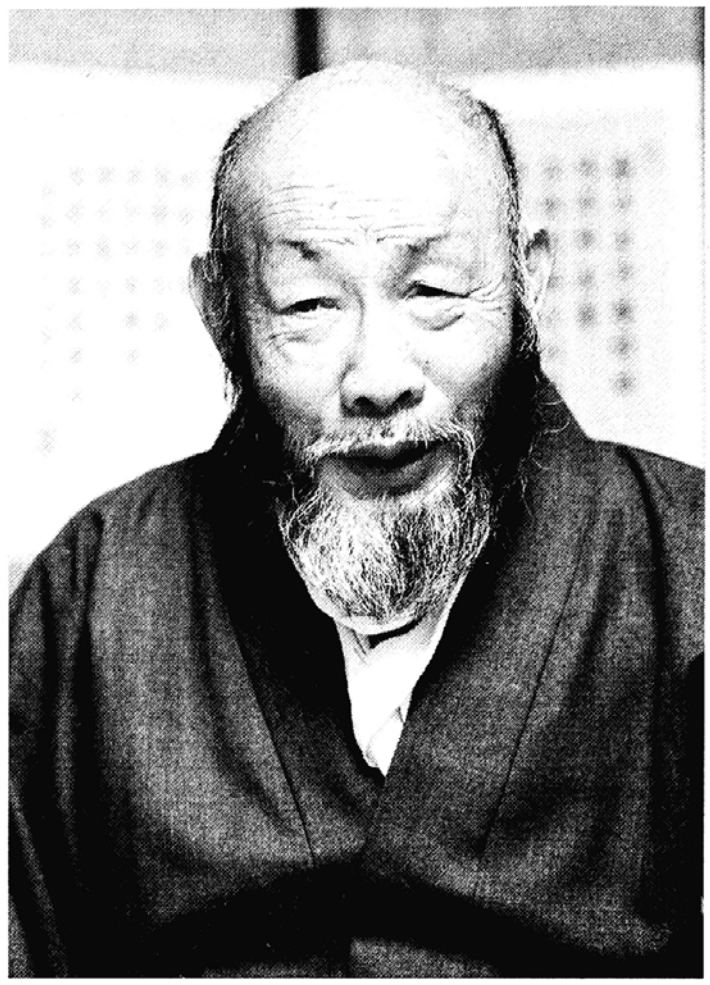
셋째는 마음만 없애고 경계는 두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부할 때 일체의 망념을 다 쉬어서 바깥 경계를 돌아보지 않는다. 단지 스스로의 마음만 쉬게 되면 망심은 이미 쉬게 되는 것이니 바깥 경계가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곧 옛사람이 '사람만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하는 법문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향기 나는 풀이 성 안에 가득하나 옛사람은 없구나' 하는 말도 있고, 또 방거사(龐居士:당나라 때의 재가불제자)는 '다만 스스로 만물에 마음이 없으면 만물에 둘러싸였다고 해서 무슨 방해가 되리오' 하였다. 이것이 곧 마음만 없애고 경계는 둔채로 망심을 없애는 공부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부처님처럼 마음쓰면

운제스님 〈태고종 승정〉



약력
- 1922년 충북 괴산 生
- 37년 안변 석왕사에서 재순스님을 은사로 출가
- 일본 임제대 수료, 동국대학교 사학과 졸업, 경북대대학원 석사
- 1960~67년 조선대 역사학과 교수
- 68~87년 건국대 사학과 교수
- 88~91년 태고종 총무원장
- 92년 태고종 선암사 승가대학장
- 98년 태고종 승정
- 역 · 저서 〈원효사상〉 〈유마경강설〉 〈열반경 종요〉 〈기원의 꽃〉 〈선시백수〉 등 다수
- 현재 원효연구원 이사장

중생의 몸으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배우고, 보살행을 실천하고, 염불이든 참선이든 사경이든 부지런히 수행해서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한 생각 마음을 돌이켜 부처님처럼 행하고 마음을 쓰면 그 순간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말씀에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어도 그것을 연주할 만한 재주가 없으면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는 사람에게 있지, 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도 자기 나름대로의 수행방법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나는 한 평생 학문에 치중하면서 수양 정도에 머물렀지 전적으로 수행에 힘쓰지 못해 늘 안타까웠습니다. 요사이 염불선으로 정진하며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염불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수행법 같지만 염불삼매에 드는 일도 꾸준한 노력없이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염불선을 통해 무애가를 부르며 천촌만락을 다니면서 염불을 권장한 신라 원효스님의 뜻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내 성품이나 남의 성품이나 똑같이 이 우주에 가득차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느꼈다고나 할까요.

이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달라진 점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어름한 사람들과는 상대조차 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훌륭해 보이고 부처님 같아 보입니다. 사람을 대할때는 그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명예니 돈이니 권력이니 물질이니 하는 것은 다 장애물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도 지냈고, 교수로서 수십년동안 많을 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그게 습으로 남아 알게 모르게 장애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승 재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나를 알아주고 추켜주고 잘 대해주면 좋아하지만 무시하거나 섭섭하게 대하면 불쾌하게 여기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사실 남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존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인생 백년을 산다해도 자신을 잘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가 깊어지면 남이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하는 그것조차도 홀홀 털어버릴 수가 있지요.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내가 출가해 공부하던 때 이야기입니다. 나는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일본인들의 차별대우에 갈등이 많은 학창시절을 보냈지요. 마음 속으로 '일본에 공부하러 온 내가 아쉬운 처지니 일본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자'는 다짐을 했고, 그런대로 잘 지냈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 울분이 가득했습니다. 자연히 나는 '이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세상을 피하는 법을 알아보니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숨는 것, 중간 숨는 것, 작게 숨는 것이 그것이었지요. 가장 크게 숨는 것(大隱)이 바다에 숨는 것이고, 둘째는 도시에 숨는 것(中隱), 셋째 산에 숨는 것이 가장 작게 숨는 것(小隱)이었죠. 고향이 충북 괴산이었던 나로서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만경창파에 어떻게 숨나 싶어 바다는 생각도 못했고, 도시에 숨기 위해 경성(서울)에 왔는데 경성마저도

"번뇌는 자만심에서 나와요 특별한 능력 가졌다는 착각 많은 사람들과 불화 생겨요"

폭격을 맞아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이도 저도 다 포기하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출가 동기가 된 셈이지요.

지금도 산중생활이란 단조롭기 그지없지만 예전엔 더 했습니다. 배 고프고 심심하면 절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경 읽는 소리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경전도 얻어보게 되었는데, 경전 말씀이 머리에 속속 들어왔습니다. 경전을 보니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상쾌해지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법열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살이가 갑갑해서 산으로 피했다가 이 우주에서 가장 자유자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해탈법문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발심출가를 한 것이지요. 내가 일찍 한문교육을 잘 받은 덕분인지, 전생의 인연 덕분인지 석왕사 강원에서 공부하는데 사집(四集)은 건너뛰어 사교(四敎)를 바로 배웠습니다. 또 봉은사 강원에서는 20대 젊은 나이에 강사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총명하다는 평을 들었지요.

한학을 하신 아버님의 영향으로 아주 어려서부터 한문공부를 했던 것이 출가해 공부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 것이지요. 여덟 살 때 일기를 한문으로 쓸 정도로 한문이 몸에 배었으니 불경을 한 번 척 보기만 해도 뜻이 새겨졌습니다.

옛날 공부라는 것은 글을 외워야 하는 것이었는데 한 번만 봐도 자연적으로 외워지고 그 의미를 알게 되니 강원에서 월반 아닌 월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때 사집부터 꼼꼼히 배웠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사교보다 사집 강의할 때 더 신경이 쓰입니다. 공부는 단계 단계 밟아 나가야지 남 열흘 공부하는 것을 하루에 다 마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다는 법도 없어요.

그렇게 건너 뛰다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이 하는 것은 영 어설퍼보이고 남의 말은 도대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원찮아 보이는 거만함이 은연중 몸에 배었는 지도 모릅니다.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남들에게 거만함을 떨고 있었을 내 모습을 상상하고 있으면 지금도 등짝이

황토 흙벽돌 기계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황토 토굴 1 10평형 2 15평형
「선조님들의 토굴방 그대로」
황토의·효능을 느끼지 못하시면 전액 환불하여 드리고,
「무료관리」를 약속드립니다.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H: 017)582-7116
FAX: 0551)283-6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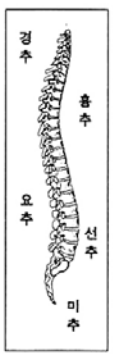
활법 자격취득.창업.부업

◆ 특허청등록획득 ◆
1. 활법을 이용한 척추지압업
2. 활법을 이용한 체육교정업
3. 활법을 이용한 자세교정업
4. 활법을 이용한 자연건강업
5. 활법을 이용한 체육교육업
6. 활법을 이용한 기공업
7. 활법원 경영업
8. 활법기술지도업
9. 활법원 체인점업

◆ 교 육 안 내 ◆
교육기간:4박5일(매주월요일 오후 2시 시작, 금요일 정오 수료식),속성반:능력에 따라 단축 및 연장 가능
10주 코스반(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준비물: 1. 교육비 및 회비와 사진 10매

◆ 특 전
1. 법개정으로 누구나 본협회 자격을 취득후 사무실의 평수와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활법원 및 발관리센타를 운영할 수 있음 2. 교육수료자는 "세계공인활법사 5단증, 스포츠 맛사지사, 카이로프락틱사 자격증, 운동회복사 자격증, 기공사 자격증, 발관리사 자격증과 소자격증"을 부여

스님 · 포교원운영자 · 물리치료사 · 재여침구사 · 목사 · 대체의학연구자 · 발관리사 · 피부미용관리자



경추 1~7번:
두통, 신경질, 불면증, 고혈압, 만성피로, 편두통, 뒷골아픔, 어깨통증, 욱딜미기 뻣뻣함.
흉추 1~12번:
심장, 폐, 간장, 담뇨, 위장질환, 신장, 불임병
요추 1~5번:
요통, 하지순환불량, 좌골신경통, 하복부통증
선추, 미추
생식기계통, 정력증강

◆교 육 내 용◆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맛사지교육 (지압, 태국, 일본식)
4. 카이로프락틱교육(딱다리교정법,즉시효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 (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발관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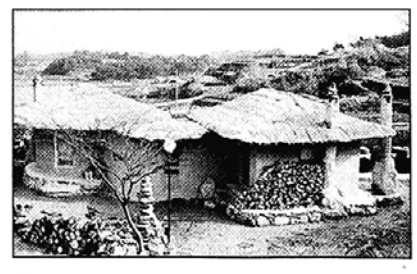
※연락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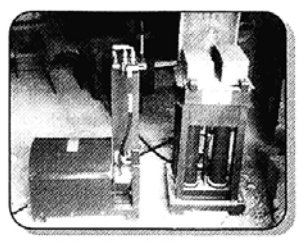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법인
사단법인 건강생활복지협회
특허등록 제49831호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 0571)855-6461/859-4156, 휴 : 011)522-1122
인터넷 : http://www.hwalbup.or.kr

황토 흙벽돌 기계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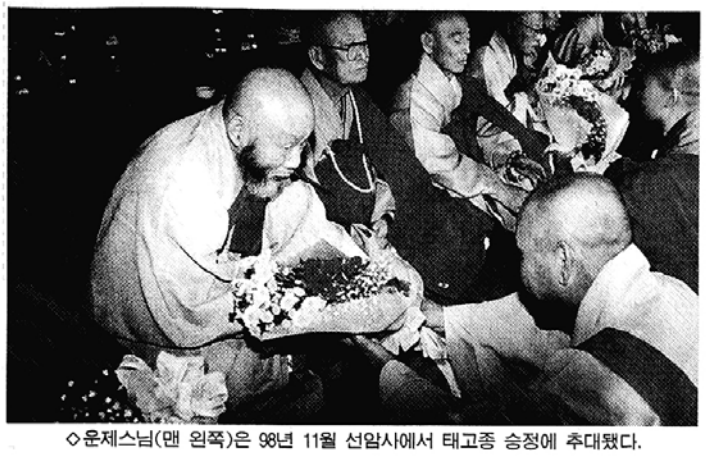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634-1237

큰스님 수행한담

그 순간은 부처됩니다"



◇운제스님(맨 왼쪽)은 98년 11월 선암사에서 태고종 승정에 추대됐다.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 보다 내가 나를 제대로 알고 존중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다 오싹해져 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자만심, 교만이지요. 자만심은 결코 자신의 성장에 보탬이 되지 않지만 가장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자만심에 휩싸이다보면 번뇌가 더욱 많아질 따름이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화의 원인이 되지요.

번뇌라 함은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번뇌는 자만심에서 비롯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만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양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도 교만한 마음을 내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과 불화를 빚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속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겸양과 하심의 자세가 부족한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지식이 곧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배울수록 지식을 많이 쌓을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하심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합니다.

번뇌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만한 마음, 자만심도 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추었다해도 겸손한 마음을 내었을 때는 마음이 덜 괴롭지만, 조그만 재주나 특기를 가지고 자만한 태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면 그 순간에는 인정을 받아 흐뭇하더라도 나중에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되는 것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남들보다 뛰어나길 원하며, 또 내자식만은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최고'라는 부모들의 아같은 생각은 자식들에게 전이되어 그 자식들이 '나만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는 곧 너와 내가 하나일 수 없고, 전체가 아닌 나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이기주의적 사고를 아이들에게 갖게 해 사회적 혼란까지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동양사상을 열등시하고 서양사상에 젖어 사는 현대인들의 사상적 피폐에서 오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효성사는 이미 1300년 전에 다른 사람은 생각도 하지 못할 주장을 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이며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은 사람이라는 남녀평등, 까마득하게 멀어보이는 중생과 부처의 평등, 사람과 축생이 평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교경전만 해도 남자 위주로 되어 있고, 사람들도 자기보다 못하거나 미련한 사람과는 상대를 하기 싫어하는데 하물며 축생과 사람이 평등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원효성사께서는 연기론적인 측면과 본질적인 측면에서 함께 논하셨지요. 연기론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 인연에 의해 모습이 달라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부처와 중생도 하나이고, 남자와 여자도 하나이고, 사람과 축생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래 하나인데 지금 세상은 되려 서구사상에 휩쓸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자꾸 구별하고 가르는 것을 가르칩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지도를 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지도하니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보아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개인주의적이고 물질만능적인 서구사상을 맹목적으로 좇아서는 인류의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개인을 떠나서는 전체가 있을 수 없고 전체를 떠나서는 개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호흡을 볼까요. '호'는 남을 위해 내뱉는 것이고, '흡'은 자신을 위해 숨을 들여마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자신의 행동을 항상 돌아보고 조금 더 상대의 입장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가정이 평안해지고 사회가 화합되고 세상이 순화됩니다. 무르익은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대할 때에도 성심을 다하게 되고 타인을 이해하게 되며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참된 제자라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줄 알고 자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교를 마치고 선원에서 수행할 때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금강산 마하연에서 설석우 스님을 모시고 한 철 지내고, 오대산 한암스님 회상에서 두 철 났습니다. 경전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부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굳혔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의 수행이 내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것은 사실이고, 부처님 그늘에서 지금까지 이 옷을 입고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견성하기도 어렵지단 세속에서 공부 잘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너는 더 공부해서 불법을 펴라"는 방한암스님의 말씀 덕에 세속공부(사학)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선원 생활은 지금과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수행자들의 정진력만큼은 요즘보다 치열했습니다. 상원사에는 유독 뱀이 많았어요. 뱀은 냉혈동물인데 저녁 무렵 공양간에서 밥을 지을 때면 수십 마리의 뱀이 공양간으로 몰려오곤 했습니다. 뱀이 하도 많아서 무수(無數)뱀이라고도 했는데 스님들이 뱀을 징그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마치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실제로 상원사 스님들은 그 뱀을 전생에 함께 공부하던 도반이라고 여겼어요. 무수히 많은 뱀이 스님들이었을 거라는 말을 들으면서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신도들의 시주밥만 축내고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축생의 과보, 그것도 사람들이 징그러워서 도망가는 뱀의 몸을 받는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뱀들을 보며 승려의 본분에 대해 새삼 자각을 하는 것이지요.

스님들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두어 들이게 되고, 지은 대로 받는 것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사람은 언제가는 다 갈 것이니 갈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삼세인과를 깨닫고 좋아도 내가 책임지고 나빠도 내가 책임지고, 철저하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면서 진실하게 살자'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했는데 중생이 주되는 삶이 아니라 부처가 되어가는 삶을 살자'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진력(精進力)을 키워야 합니다.

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 도처에서 보게되는 우리 이웃들의 우울한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길 밖에 나와 망연히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가슴을 무겁게 만듭니다. 생활고에 못이겨 삶을 포기하는 사례들마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현실의 고통은 어쩌면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정진력을 키우라는 역사적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고 소중한 한 세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인간된 보람을 성취하라는 교훈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자기 반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늦추지 말고 부처님을 닮아가도록 항상 정진하세요.

정리=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부처-중생 남-여 인간-축생 다 하나'
1300년전 원효의 평등정신 되새겨야

나의 수행일기



백숙희 〈불자약사보리회 회장〉

어머니와 할머니가 독실한 불자였던 나는 어린시절부터 불교적 분위기속에서 자랐다. 그야말로 직간접적으로 포교를 받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가끔 절에 가고, 힘든 일이 닥치면 두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의지하던 것이 내 종교생활의 전부였다.

그러던 내게 불교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부터다. 한사람의 개체였던 내게 남편과 아이들이라는 새로운 인생이 결부되면서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는 친구들과 집근처의 작은 포교원을 찾았다.

포교원 이름도 당시 주지스님 이름도 모두 잊어버렸지만 그때의 초발심은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스님은 기복불교를 거부하는, 요즘말로 신세대스님이었다. "누구든지 부처님전에 기도하고 빌어서 뭐든지 다 이뤄진다면, 누가 절에 안오겠느냐"던 스님의 말씀은 무언가 믿고 의지할 곳이 필요해 절을 찾았던 내게 충격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했다. 무턱대고 절을 찾아온 내게 스님은 불교를 제대로 믿으려면 각자가 먼저 제대로 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했다. 그 말씀에 따라 나는 친구들과 일주일에 몇번씩 포교원을 찾아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정병조 교수의 기초교리 강좌와 무진장스님의 법문도 경청했다. 그러나 포교원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아직도 많은 불자들이 기복신앙에 젖어 있을 때였고, 할머니와 아줌마들이 대부분인 절 신도 구성상 어려운 교리공부에 정을 붙이고 절을 다니는 신도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자연히 포교원 운영은 날로 어려워져 갔고, 결국 문을 닫았다.

이후 나는 심적으로 방황을 했다.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법문도 들어봤지만 포교원을 다니던 시절만큼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다. 불교방송도 듣고, 법정스님의 책도 사보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계속했지만 무언가 허전한 감을 떨쳐 버릴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불자약사보리회의 동참기사를 신문에서 읽었다. 약국을 경영하고 있던 나는 그 기사를 보자마자 전화를 걸었다. 오래동안 찾고 있던 무엇인가를 찾았다는 느낌이었다. 처음 10명의 불자약사들이 모여 시작한 불자약사보리회에서 나는 회장직을 맡았다. 그저 나이가 제일 많다는 이유였다. 내게 불자로서 처음으로 큰 짐이 주어진 것이었다. 약사회의 실무를 맡아보는 유효순총무의 노력으로 여러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후원 받고, 인연있는 사찰에서도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회원들이 힘을 모아 탑골공원의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무료투약 봉사를 시작했다.

자신만 생각하고 산 지난날 반성
불우노인 무료투약 '약사의 보람'



탑골공원에서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던 날 만감이 교차했다. 약을 타려고 줄을 선 그 많은 노인들을 바라보며 불자이기 이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기쁨과 앞으로 이 노인들에게 더좋은 약과 처방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도 생겼다. 탑골공원 무료투약봉사에 이어 얼마전에는 원주 소쩍새마을을 다녀왔다. 아직 활동범위가 미비하지만 그속에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불자약사보리회 활동을 하면서 그저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반성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더불어 함께 나누는 삶의 소중함도 새삼 깨우치고 있다.

요즘 나는 친정어머니가 갖다준 〈법화경〉을 틈틈히 독송하고 있다. 독송을 하면서 두가지에 감사한다. 불교와 인연 맺게 해 준 내 부모님에게, 불자약사보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이끌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더 많이 실천하며 살기를 발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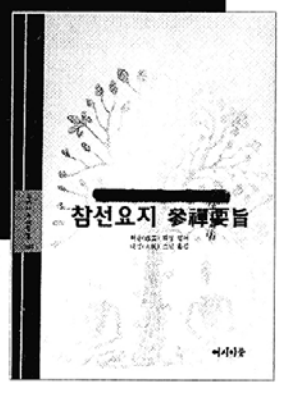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은 가장 궁극적인 일이며,
모든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
이 일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길이 소멸해 버린 자리(言語道斷 心行處滅)이며,
생각으로는 미칠 바가 아니다.

그러나…

허운(虛雲)화상 법어, 대성(大晟)스님 옮김
B6변형 278쪽/ 값5,500원/ 여시아문 펴냄



주머니속 대장경 801-선(禪)

허운 화상 참선 수행 요결

초심자는 공부를 해도 향상되지 않고,
구참자는 중간에 머물러 게을러지게 되니
선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스님의 일생은 진정한 수행자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귀중한 모범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깨달음의 법(法)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통째로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실천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안일과 나태, 그리고 온갖 아집과 자기 합리화에 대한 통렬한 질타이기도 하다. 결국 스님의 가르침은 스님 자신의 이러한 치열한 수행의 체험이 그대로 결정화된, 요긴한 말씀들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옮긴이의 말 중에서)

허운 화상(1840~1959)은 1840년 중국 복건 천주에서 출생하였다. 13세 때 처음 관음보살의 일대기 등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으며 19세 때 출가, 고산 용천사의 표현화상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27세에는 모든 소임을 놓고 3년간 일념으로 관조와 염불을 하였으며 31세에는 천태산 용천암 융경 노화상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스님은 젊은 시절 온갖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불법을 구했으며, 갖은 병고와 액난에도 굴하지 않고 계율을 엄수하고 근고정진한 끝에, 종문의 심인(心印)을 깊이 계달아 단절되다시피 한 5종 가풍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하에서도 승도를 수호하고 사찰, 불당의 파괴를 막았으며 대소 수십개소의 가람을 복원하는 한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를 주고 불문에 귀의시켰다. 그의 문하에서 출가하거나 수계한 제가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수록 내용

제1부 참선요지
제1장 참선의 선결 조건
1. 참선의 선결 조건
2. 성불(成佛)의 방편
3. 화두 참선법
4. 공부의 어려움과 쉬움
제2장 선방 법문
1. 이끄는 말
2. 공부의 입문 방법
3. 공부의 두 가지 어려움과 쉬움
4. 결론
제3장 참선경어
제4장 제석보다시중(除夕普茶示衆)
제5장 수행과 불수행

제2부 선칠법문

부록
1. 허운 화상 약전(略傳)
2. 어휘 해설
3. 인명 해설

8억명 굶주림…매년 1200만명 아사

2000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
3

식량부족

인구증가-기상재해-내전 수급불균형 원인
소말리아·북한등 40여국 극심한 기아상태
선진국 '불교 財施' 정신으로 구호 나서야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98년 9월 보고서 '세계 곡물의 수급현황과 전망'을 보면, 98년의 소맥, 쌀 등 곡물의 생산량은 19억9천2백만톤이다. 소비량은 18억9천만톤으로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는다. FAO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기록적인 풍작을 기록한 97년보다는 못하지만, 여러 지표에서 우려될만한 징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구에 발붙이고 사는 8억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날마다 먹지 못해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다. 실제 1년에 1천2백만명의 사람들은 굶주림이 원인이 되어 목숨을 잃는다.

기획취재팀
정성운 차장
한명우 기자
김재경 기자
오종욱 기자

에티오피아의 심각한 상황은 잘 알려져 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통계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서 부모가 없는 부랑아는 최소 10만명을 넘는다. 수도 아디스아바바엔 공한 눈의 아이들이 손을 내밀며 달려든다. 구걸을 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른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1일 곡물 5백g(열량기준 9백㎉)도 채우지 못하는 주민이 1백90만~2백50만명이다. 에티오피아인들의 평균수명은 47살이며, 유아사망률도 6·25 전쟁 당시의 한국 수준인 1천명당 1백25명이다.

북한 3백만명 사망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에티오피아와 같이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40개국이나 된다. 종고,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수단, 모잠비크, 소말리아, 르완다,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식량난은 세계 언론의 주요한 관심거리였다. 우리 언론도 예외가 아니었다. 급기야 미국 정부의 국가개발처 조사단이 97년 북한을 방문했다. 미국이 민간기구의 모금만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나서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북한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만큼 심각했던 것이다. 미국의 조사단에게 북한의 관리들도 "내년(98년)도 식량부족분이 2백10만톤 정도"라고 말했다.

이러는 가운데 올해 초 최근 5년간 북한의 인구가 3백만명이나 감소했으며, 그것의 원인은 식량부족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올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3백48만t으로 지난해에 비해 70만t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소 필요량인 4백83만t에는 1백35만t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올해 식량과 함께 벼와 옥수수 종자, 비료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활발하다. WFP(세계식량계획)도 북한에 50만t의 곡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인구 59억명 가운데 10%가 훨씬 넘는 8억명이 만성적인 기아상태에 놓여 있다. 더욱이 1천2백만명은 먹을 것이 없어 목숨을 잃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나아지리란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은 지속된다.

FAO는 또다른 보고서인 〈2010년의 세계농업〉을 통해 2010년께 세계 곡물의 수급은 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발도상국은 1억6천2백만t의 곡물 공급부족으로, 2010년에도 여전히 6억4천만명의 사람들이 식량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식량생산의 불균형과 저소득 식량부족국가들의 기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이 인구의 증가다. 세계인구는 30여년 전의 30억명에서 75년 40억7천만명, 85년 48억5천만명, 98년 59억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지금보다 50% 정도 늘어난 85억명이 되고, 연평균 8천5백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유엔은 예측하고 있다. 90년대들어 빈발하고 있는 엘니뇨, 라니냐 등 이상기후도 세계농산물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식량 잉여의 시대 끝나

낙관적인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세계 식량생산은 기술발전에 힘입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런 기술발전은 앞으로도 거의 같은 속도로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부터 생명공학의 발전이 식량생산에 큰 구실을 할 것이다." 세계 식량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카길' 소속의 경제학자 팀 보딘의 전망이다.

이와는 반대로 식량잉여의 시대가 끝났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월드워치연구소 레스터 브라운 회장은 향후 지구촌의 최대 난제를 식량난으로 꼽고 이렇게 경고한다. "세계는 식량잉여의 시대가 끝나고, 곧 식량부족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인류는 생물학적 멸망의 가능성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의 곡물수출이 어려워지면 식량부족 국가들로부터 대량의 이주민이 유출될 것이며, 불모지가 경작지로 바뀌어 환경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 결과 굶주림이 만연하는 것이다.

브라운회장은 또 △기상이변과 생태환경의 파괴로 식량증산이 정체상태 지속 △인구증가 등 곡물수요의 증가로 식량부족사태의 국지적 발생 △식량무기화로 식량 자급도가 낮은 국가들의 식량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전공학 생태계 파괴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생명공학의 발전에 기대를 걸어보지만, "유전자 오염"이라는 두려움을 동반하고 있다. 재초제나 해충·질병 등에 강하도록 이식한 유전자가 꽃가루를 통해 다른 생물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이렇게 되면 어떤 제초제나 살충제로도 막을 수 없는 '수퍼 잡초'와 '수퍼 해충' '수퍼 바이러스'가 등장해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는 식량부족의 해결을 위해 생태계의 가공할 교란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거시지표로 보면 굶주릴 이유가 없다. 곡물 생산량은 세계의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아직까지, 현재의 상태는 그렇다. 앞서 인용한 FAO의 보고서대로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현재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의 국민들은 분명 굶주림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굶주림의 1차적 원인은 이들 나라의 내부에 있다. 세계식량계획(WFB) 에티오피아지부의 스테픈 앤더슨 개발조정관은 "무엇보다 지난 시절 이 나라 지도자들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한다. 지난 30여년 동안 내전과 무모한 사회주의 실험 그리고 경제개발을 뒷전에 둔 권력다툼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국민들은 최악의 빈곤으로 내몰렸다.

선진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9세기와 20세기에 식민지를 강요당한 굶주림의 나라들을 향해 지금은 '돈의 논리'를 전파하고 있다. "더 많은 농작물을 심기 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식량을 살 수 있도록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며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시키는 논리를 계속 유지하는 한 "괜찮다"는 통계와 굶주리고 있는 엄연한 현실 사이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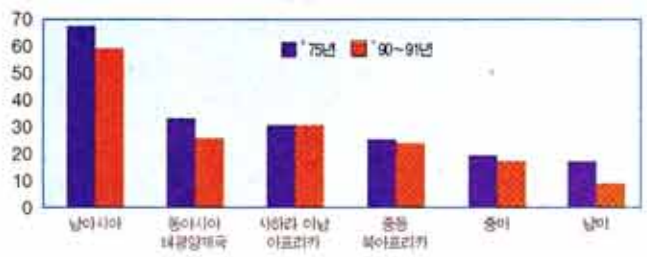
불교에서는 재물의 나눔, 재시(財施)를 중요한 실천윤리로 삼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첫째 생존조건이 먹음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대반열반경〉에서 재가신자들이 계를 범하고 악행을 할 때 생겨나는 다섯 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로 음식이 부족해진다고 설했다. 반대의 경우에 생겨나는 행복 중 가장 첫째는 음식이 풍부해진다고 했다. 먹는 것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대승불교의 〈반야경〉 등에서 보시바라밀을 중시하면서 특히 재물 보시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현실세계에 대한 불교 본연의 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시가 자비의 실천 방도로써 중시될 때 경제적 빈곤이라는 현대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정승석 동국대 교수)는 풀이는 2천5백년 전 인도라는 시공을 뛰어넘어 여전히 유효하다.



◇소말리아 바이도아 지역의 굶주린 한 마을 주민들이 식량배급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 주요지역별 영양부족 5세미만의 비율(%)



◇2010년의 세계곡물의 생산·소비·무역량 예측(억톤)

구분	선진국		개도국		무역량 (선진국→개도국)
	생산량	소비량	생산량	소비량	
1992	9	8.1	10.3	11.2	0.9
2010(현재추세 지속)	12	9.6	15.7	18.3	2.6

※자료: "기아와 포식의 세계식량", 삼성경제연구소, 1997.

연등의 미학 장엄 팔각등

장엄 팔각등은 전통적 미와 현대적 감각을 함께 갖춘 산뜻한 색상과 편리한 보관, 견고함을 자랑하는 연등
- 정성을 다해 제작한 이 전통연등을 삼보전에 올립니다 -

봉축 장엄 팔각등



만다라 장엄 팔각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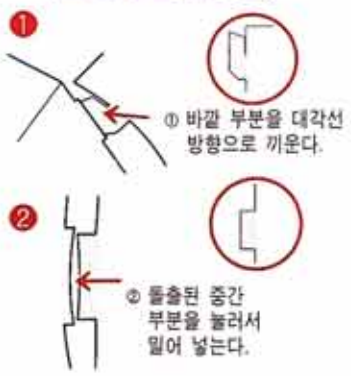
의 장 등 록 : 원98-27738 / 실용신안등록 : 원98-23124

함석판으로 제작된 촛대,등걸이 드립니다.

연등 납품 및 보관시



연등 조립방법



연등이 변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끗하고 선명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엄팔각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1. 환경을 고려한 자생등 등입니다
오랜 사용으로 파손된 경우 분해하여 모아두면 융해후 재활용 이용이 가능해므로 주변환경에 전혀 부담을 주지않습니다.
2. 운반, 사용, 보관이 간편합니다
장엄 팔각등은 기존의 팔각등과는 달리 한 번의 공정으로 사용이 가능하며(조립30초) 필요 하신 모든 곳에 바로 설치할 수 있게 제작 되었습니다.사용후 연등을 분해(분해시간10초) 하시면 칼친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별도의 보관 창고가 필요치 않습니다
3. 야간 점등후의 모습은 더욱 화려합니다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4. 눈, 비, 거센 바람에도 파손 변형되지 않습니다
종이가 아닌 PP(골고플 소재)로 제작되어 물리적인 힘에도 찢어지거나 장대비 속에서도 결코 젖지않고 본래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5. 평상시 사찰 장엄용으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 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6. 색상이 선명합니다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과 고전적 단청 문양을 첨가한 장엄 팔각등은 완벽한 문양처리를 통하여 선명하고 밝은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색이 없어 장소에 관계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 사용기간이 깁니다
분해 조립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장소 기간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어 사용기간이 길어집니다. (4-5년)
8. 세척하면 새것처럼 깨끗해집니다
기존 팔각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사용이 오래 된 경우 분해하여 세척한 후 조립하면 새 것처럼 깨끗이 사용할 수있습니다.

주문 전화 : 02-732-1522 / 737- 8881(대표)
주문 팩스 : 02-737-0697
인테넷 주문 : (http://mall.buddhapia.co.kr)
납품 방법 : 신청장소로 직배, 택배 발송

제조원 : 물·부다피아
판매가 : 2,300원
※ 200등 이상 주문 사찰에는 판매가의 10%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500등 이상 주문 사찰에는 사찰명을 연등 자체에 넣어드립니다.

부처님 오심을 깨끗한 환경으로 축복합시다! 집안과 내집 앞길을 깨끗이 하고 도로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치우며 맑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합시다.
만 중생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연등부처님 재세시에 흙탕길을 긴 머리카락으로 깔아 연등부처님께 공경을 표했습니다. 우리모두는 부처님을 사랑합니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말·행동·생각이 그대로 입력돼요

마음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입니다. 무한량일 수 있고, 바늘 구멍하나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생각해서 진실하게 감사함을 느낄 줄을 모두 모릅니다. 더군다나 더 가깝게 있을수록 감사함을 모릅니다. 당장에 생명을 유지못하는 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을 안하죠. 물을 쓰고, 불을 쓰고, 땅을 딛고 다니고, 공기를 마시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낳아주신 은혜와 일체 만물을 볼 수 있기에 공부를 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상대성 원리로 거발을 할 수 있는 창조력을 기를 수 있고, 창조를 해낼 수도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된다고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일체 만물 만생, 즉 무정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지·수·화·풍이든지를 막론하고 더불어 모두가 평화스럽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질 못합니다.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여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물질세계의 50%에만 전전긍긍하니 거기까지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다느니, 내가 했다느니, 내가 말했다느니 하며, 잘 안되는 것은 타의에서 망하게 했다느니,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됐다느니 하는 이러한 문제 등등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치기 때문에 밝게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진정코 무서운 도리라는 것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일체 만물 만생이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로 낳는 거나, 알로 낳는 거나, 화해서 낳는 거나, 질척한 데서 낳는 거나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무정물도 식물도 천차만별로 가지고 있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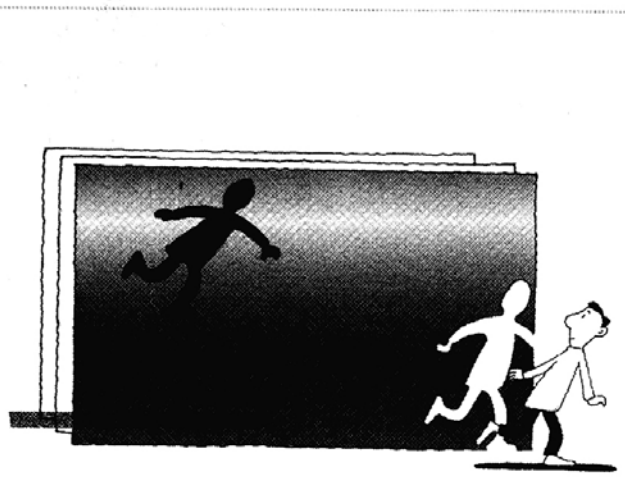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면 원래 전력이 똑같듯이 인간의 불성의 씨는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모습을 달리 지어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입력이 돼서 그것이 현실에 나오며 생활 모두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곰곰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살던게 입력돼 현실에 나오니
나오는 것을 자기한테 다 맡겨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게 바로 참선

물론 사람이 아니고 벌레가 되느냐, 짐승이 되느냐, 날아다니는 새가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부모가 살인을 했다거나 사상이 그르다거나 한다면 그 자식들에게까지도 연관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며,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문제가 결부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볼 점이 있는 것이, 지금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한순간에 꿈같이 내 몸이 사대로 흩어져서 제각기 불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데는 하나도 가져갈 게 없다는 겁니다. 몸도 가져갈 수 없고, 재산도 가져갈 수 없고 또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도 같이 갈 수 없고, 어떠한 권리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이든 선업이든지 업식만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이죠. 그 업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느냐, 짐승으로 나오느냐, 벌레의 모습으로 나오느냐, 새의 모습으로 나오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그냥 살아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방치하는데, 사람의 의식으로 생활을 하고 살다가 만약에 짐승이나 땅 속의 벌레나 독사들이 짝짓기 하는데 들어간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림 · 최주현

세상만사 부처님법 아닌것 하나 없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앞길 주어져요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넝마는 넝마전에 있고, 금은 금방에 있습니다. 깡통은 깡통전에 있고 무쇠는 무쇠전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천차만별로 끼리 끼리들 모두 모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모습을 짓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식으로 살다가 그 모습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아무리 울고 발버둥쳐도 개로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 멍멍 짖을 수밖엔 없는 것이고, 새로 나왔다면 새소리로 지저귈 수밖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말을 해도 세상사람은 들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답답한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디 먼데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재나 쌀을 고르게 해놓고 뭐가 되는지 발자국을 보는 유래가 있었죠. 구렁이가 됐으면 재를 가지런히 해놓은 거기에 표시가 나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사람 발자국 표시가 나고 이랬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지옥이 우리의 눈 앞에 그냥 널리고 천당도 눈 앞에 널려 있습니다. 현실로써 분명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지금 닥치지 않았으니까 라는 안이한 생각들을 하시는 겁니다.

금으로 반지를 만들었다면, 반지가 아무리 찌그러졌어도 금방으로 가서 재생을 하면 금으로 나오지만, 무쇠나 깡통 같은 철 종류라면 다시 재생이 되어도 철 종류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앞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관여가 되고 자식에게도 관여가 되는 겁니다.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마음의 도리가 매우 귀중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생활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과거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닙니다. 과거도 현실이요 미래도 현실입니다. 영원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내가 일러드리는 것은, '과거에 살던 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이니 현실에 나오는 것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자기가 땅을 걸어가다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을 자기한테 다 맡겨놓고 잘된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되게 돌리는 것도 거기다 생각하고 믿고 맡겨놓고 지켜보고 체험해라, 이것이 본래 참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놓고 다시 입력을 시키면 과거에 입력이 됐던 것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면서, 넣으면 넣는 대로 자동적으로 그릇이 비고, 또 넣으면 자동적으로 그릇이 비고, 넣으면 넣는 대로 그릇이 비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을,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길을, 아주 여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한 생각이 모자라서 내다볼 줄 모르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해서 맛을 모르고, 항상 독 속에서 내 마음이 빠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뚱이가 독이라면 독 속에서 나와야 몸뚱이 독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아리 속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항아리를 굴린단 말입니까.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팔만대장경을 다 읽어보지 못했다 해도 뜻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단번에 그 뜻이 들어오는 겁니다. 전에는 못 알아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던 것이, 이 도리를 깨달으면 읽어보는 순간 이것은 무슨 뜻이고 저것은 무슨 말인지가 단번에 들어옵니다. 이 세상 만사가 부처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깐요. 세상사를 빼놓고 부처님 법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마음이란 게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이렇게 광대하고 무변하여 한 생각이면 두루 할 수 있고 또 한 생각에 바늘구멍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뺏어갑니까. 누가 갖다줍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 세상을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당연히 이해가 가야 될 겁니다. 여지껏 그래도 마음공부하라고 이끌어왔고, 여러분과 같이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의 마음이 전깃줄이라면 내마음도 전깃줄이 돼서, 여러분의 전깃줄이 내 전깃줄에 와서 닿으면 불이 밝게 켜지는 것뿐이라고요. 단지 전깃줄과 전깃줄이 맞닿듯이, 마음과 마음이 닿으면 밝게 불이 들어와서 가정마다 모두 밝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얘기하나 할까요! 예전에는 선원이 자리한 이 지역이 공동묘지 터였는데, 이곳에 집이 들어서면서 그 시체들을, 각각 태운 게 아니라 한군데 모아서 태워가지고 뿌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칠 수밖에요. 아무 일이 없던 이 등네에 그 일이 있은 후에는 도둑이 생기고 사람이 다치고 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여기에다 절을 짓게 됐을 때 해골이 그냥 물밀 듯이 밀어닥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한대로 어디 대답해 보십시오. 그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분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07)

인생이란 모르면 생존경쟁, 알면 공부

인생이란 '응아!' 하고 고고성을 울리며 나왔을 때에 이미 예고 없는 사형 선고를 받는 가운데 일생을 꿈속의 일처럼 살다가 돌아가는 것이다. 또는 잠깐 이승에 소풍 나왔다가 가는 것과 같다. 우리의 육신·재산·권력·명예라는 게 본래 실체가 없어서 허망한데, 찰나 동안 살면서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을 놓고 서로 빼앗고 싸우고 울고불고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미 죽을 숙명을 안고 태어난다. 마치 사형이 확정된 죄수와 같다. 그러나 자기의 인생을 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만 나는 내 인생을 몇 십 년 동안 관리할 뿐이라고 확철하게 안다면 마음은 생사의 걸림에서 벗어나 편안해질 것이다.

우리는 한 철 살다 가는 나그네이다. 그러한 나그네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평등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매사를 내 탓으로 돌리며 넓은 아량과 지혜를 가진 인간으로 사느냐, 아니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야 하겠다는 모진 마음으로 나가느냐 각자 판단해 볼 일이다. 다만 한 철 나기 위해 이 세상에 와서 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 간다면 언제 다시 와서 실현할 수 있을지 도저히 기약할 길이 아득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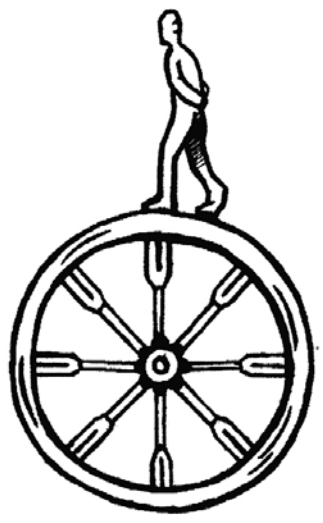
인간이란 지구 안에서도 그렇지만 대천세계를 합친 자리에서 보면 티끌처럼 보잘것없다. 그럼에도 티끌 같은 존재가 티끌 같은 일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왈가왈부하며 화목하지 못한다. 그러니 공부한다 하기 이전에 말 한마디라도 오순도순 곱게 해야 하고 일을 해도 융화를 도모해야 하고 서로 마음을 거슬리지 말아야 하겠지만 몸 떨어지면 그뿐이니 어느 때 삶의 의미를 알게 되겠는가.

사람은 꿈이 꿈인 줄 모르는 까닭에 혹은 기뻐하고, 혹은 괴로워한다.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 쾌락의 꿈과 고통의 꿈에서 깨어나 크게 한 번 껄껄 웃고 명철한 눈으로 이 세계의 참모습을 보며 살아야 한다.

'이 즐거운 세상, 수단 방법 가릴 것 없이 편케 살면 그뿐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 하나 편한 것으로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는 없다. 일시적인 향락이 근본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우리의 삶은 이 생에서 끝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나 혼자만이 몰래 하는 일까지도 업이 되어 내게 되돌아온다는 법칙도 알지 않으면 안된다.

몸은 조만간 스러져 흩어질 것인데 자기를 어떻게 영원하다 하는가 라고 하겠지만 나름대로 모습을 바꿔 옮길 뿐이지 죽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비유하건대 애벌레들이 고치를 틀고 들어 앉았다가 나방의 모습으로 화하여 공중을 나르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삶은 그러기에 생동력 있게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는 것이다.

인생의 최대 문제는 지금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계에서 위 차원으로 올라서느냐, 아니면 아래 차원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 해답은 각자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참 나를 깨달으면 영원히 밝은 세계를 보게 된다.



도대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억만의 부를 쌓고, 까마득하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은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기껏해야 백 년도 못사는 인생, 그렇게 집착하며 구하던 것들도 일단 병들어 죽게 될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청산유수 같던 언변도 일단 몸을 여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다른 유위법적인 보람도 무의미해진다. 그런 것을 바라고 마음 닦는 것은 정녕코 아니다. 고작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위대했던 아무개'라는 소리가 전해진다 한들 뿌리 없는 일이니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자기의 참 주인과의 해후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나은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는 데 급급해서 공부할 겨를이 없다고 말한다. 그 시간에 물건 하나라도 더 파는 게 중하다는 식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한다면서 마치 부업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토록 바쁘게 살면서도 여전히 인생살이가 힘겹다고 한다.

지금 현실의 환난과 고통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공부할 사이가 어디 있겠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고통이 모두 나로부터 나온 것이니 나온 곳에다 되말려야 녹아 내리지 그렇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번해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환난도 고통도 다 공부의 재료인 것이요, 생활이 그대로 이 공부라 하는 것이다.

과학 문명이 발달된 덕분에 현대인들은 예전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현대인들은 그 여분의 시간을 어디에, 무엇하는 데 쓰고 있는가?

이렇게 살기 좋은 노른자위 안에서 이 노른자위 공부를 못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불법은 만 가지 맛이 나는 과일이요 만 가지 향기가 나는 꽃이다. 그리고 수행자들은 그런 과일을 키우는 농부요, 그런 꽃을 재배하는 정원사라 할 수 있다. 모든 생산 중에서 가장 맛이 나고 해볼 만한 생산, 모든 농사 중에서도 가장 보람있는 농사가 바로 불법 수행이다. 그리고 그 농사는 다른 모든 일상 생활을 버리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생업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누구나 불법을 닦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오히려 생업 이야말로 불법을 제대로 닦을 수 있는 연마제인 것이다.

인생이란 모르면 생존 경쟁이지만 알고 보면 공부이다.

협찬 : 주 인 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물질세계만 보니 자유롭게 살수 없어

☞ 15면에서 계속

걸 어떻게 해야만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신도: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 속에 진실로써 '나'라는 게 없고 그 자체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여래가 되죠. 여래라 함은 어떠한 부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모두 돌아가는 자체가 그대로 여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둘이 아닌데 하던, 체가 없는 것이니 나도 마음에 체가 없는 것이요, 상대도 체가 없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입력을 한다면 두드러지지 않으며, 마음 속에 이 세상을 다 넣어도 그릇이 작지 않고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닌데 방편의 말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한데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법이 될 것이고, 내가 말을 하는데도 한데 떨어뜨리지 않고 말을 한다면 이것도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와 하는 자가 항상 둘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져서 밝아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네가 했다 내가 했다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한 사이도 없고 내가 말한 사이도 없고 나도 없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도 없는 것이니 그 무슨 까닭인가 하고 물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만하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삼배를 일배로 하세요. 몸만 왔다갔다하고 허서 삼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 빠져 고민입니다

문 안타까운 마음에 어리석은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나이도 어린 아이가 머리카락이 빠져서 별로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본인도 굉장히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성격까지도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스님께 여쭙니다.

답 인체의 모든 생명 의식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내 인체의 모든 의식들이 한마음으로 작용을 해주니까 머리가 빠지는 것도 낫게 할 수 있다'하는 믿음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면 될 수 있을 겁니다.

공동묘지 영령들과의 인연

문 스님,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후미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많았던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그런 영령들이 큰스님과 어떤 인연이었기에 그런 좋은 인연이 되었는지요?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답 인연이 별다로 없는 겁니다. 바람결같이 스쳐가는 인연, 우리 모두가 바람결같이 스쳐가는 인연들입니다. 이게 성시도 아니요, 꿈도 아니요, 꿈도 생시도 아닌…, 생시와 꿈과 둘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두 바람결같이 돌아가고 찰나찰나의 만남이 그대로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으려니까 인연이 된 거죠. 모두 인연이 돼서 하나로 되니까 영령들은 1백이든, 1천이든, 1만이든지 모두 인간으로 환토를 한 거죠. 환토를 해서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이 또 내놔지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두가 이렇게 긴요하고 이렇게 무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8식이란 무엇입니까

문 네, 잘 알았습니다.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대승기신론과 같은 그런 논장을 보면 아뢰야식이다, 장식이다, 여래장이다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위 팔식이라 그러죠. 장(藏)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 팔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의 그 마음과 칠식이다 팔식이다 라고 하는 그 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자 여쭙니다.

답 그것을 여러 마디로 할 것 없이 아주 축소해서 말을 하죠. 칠식이다 하는 것은 육근이 공해서 돌아가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마음이 된다면 그것이 칠식입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 내 몸을 떠나서 더불어 같이 이 세상 사무·사유를 한데 합쳐서 한마음이 된다면 팔식입니다. 칠식이래도 하나요 팔식이래도 하나입니다. 칠식하면 칠식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식하면 팔이라는 건 없어지고 식만 남아서 그건 구경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느냐 하면 여래장이 되는 거죠.

여래라는 것은 일체 만물 만생이 다 송두리째 둘이 아닌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없고 너도 없어지는 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모두 부처님자리 아님이 없고, 부처님의 작용 아닌 게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래장입니다.

고요한 마음과 생멸심의 관계

문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작용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일순간도 쉬지 않고 찰나에 일어났다가 찰나에 없어졌다, 찰나에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작용이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는 한생각 일어났다가 한생각 없어지는 그 생멸심이 곧 멸하면 고요하고 고요해 마음이 고요한 경계에 들어가서 그것이 참 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요한 마음의 자리와 끊임없이 일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 생멸심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요.

답 하하하, 늘 말씀을 해드리는데요. 우리가 여기 걸어올 때에 한 발 떼었다 한 발 놓고, 한 발 떼었다 한 발 놓는 이것이 바로 생멸입니다.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이러는 거와 같은 겁니다. 표현을 해서 말을 하자면 안 그렇습니까. 그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마음과 한 발 떼어 한 발 놓고, 한 발 떼어 한 발 놓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그 한 발 떼어서 한 발 놓고, 한 발 떼어서 한 발 놓고 하는 작용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안 그런가요?

일어났다 가라앉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성불이라는 말도 없을 거고 중생이라는 말도 없을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또 한번 방편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버지 노릇하다가 남편 노릇하다가 또 다시 형님 노릇하다가 자식 노릇하다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방 딴 걸로 돌아가고 딴 걸로 돌아가고, 이렇게 일어났다 놓았다가, 일어났다 놓았다 해도 그냥 여여하게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둘이 아닌 것입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그냥 '여보' 하고 부르면 '왜그래' 하고 순간 대답하는 그 마음, 그것은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악으로나 선으로나 일어나는 마음을 잘 응용하면 선이 되고, 잘 응용하지 못하면 악이 됩니다. 싸움을 할래도 '여보' 할테고 좋은 말을 할래도 '여보' 할 겁니다. 그런 걸 잘 응용한다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생멸심 · 적멸심 둘아닌 도리

문 예, 그러시다면 그 한 생각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그 마음을 이름 붙여서 생멸심이라 한다면, 그 생멸심과 적멸심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해를, 번뇌심과 보리심이 둘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답 번뇌심이라고 관습에 의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요 생각 조 생각이 나지 않으면 광대하게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고정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요 마음 조 마음, 요 생각 조 생각이 나기 때문에 광대하게 부처를 이룰 수도 있고 광대하게 창조를 해낼 수도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도 있고,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구요. 그러니까 번뇌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수행하는데 발전하게 하기 위한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발전시키는 재료로 알아야 해요.

항상 내가 그런 말을 하죠,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겁니다. 동짓날, 팥죽 솥에다 팥죽을 쑤다가 팥죽창물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걱으로 '요것도 문수, 조것도 문수' 하고 치면서 '이건 무슨 까닭인가' 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지 그 까닭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라 하기 이전에 내 몸뚱이가 팥죽 솥이라면 팥죽 방울이 일어나는 대로 그걸 번뇌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한 그릇 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화해서 나오는 업식에 속합니다. 그러니 그걸 재료로 알아야죠. 속지 말고 모든 건 한군데서 나오는 거, 그 한 군데에 되놔라 하는 소립니다. '이것도 문수 저것도 문수' 하고 친게 자기 마음의 주장자로써 자기한테서 생각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문명이 발달하다 보니 여기에 끄달리는 저희들의 중생심이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과 저희들의 현실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코 앞에 있는 것도 같고 때로는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그러니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은 어떻게 다시 알아듣고 또 수행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일러주십시오.

답 이 마음이란 멀고 까깝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즉 개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기업주가 전깃줄이라 하고 이쪽에서 전깃줄을 하나 대주면 한 순간에 불이 들어와서 그 모두가 밝으니까, 밝음의 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따라 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나 전지의 밝음을 좇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밝으니까 가야지' 하는 그 마음뿐이지 그 도리를 모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임시변통을 해서 건지는 수가 있고, 하나는 정말 지도자가 이 도리를 알아서 거기에 한마음으로 같이 해준다면 진짜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한 손이 되어서 그대로 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구원을 주고 받느냐, 알고 구원을 주고 받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깨우치면 그 가정과 그 나라를 다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죠. 지도자한테 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다면 전체가 한 그릇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집어 넣어 준 사람의 마음대로 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동시에, 저쪽 물방울이 했다고도 이쪽 물방울이 했다고도 할 수 없죠. 밝게 불이 들어와서 같이 살 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래심이라고 합니다.

밝게 불이 번쩍 일어났을 뿐이지, 요런 정도에는 이런 불이 필요하고 큰 용도에는 크게 들어와야 하고, 그러니까 그 불빛은 가지각색으로, 심력으로 말미암아 이쪽 전깃줄에다가 저쪽 전깃줄을 붙여 주면 불이 들어와서 큰 데는 크게 붙여 주고, 적은 데는 적게 붙여주어 천차만별로 건지는데 건져도 건져진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네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양편이 붙어서 불이 들어왔다면 불 들어온 것뿐인데 이쪽 것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저쪽 것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체 만물 만생은 서로서로 교환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인연에 따라 상대성 원리로 돌아가면서 개발도 하고 발전도 하는 것이고 과학적, 물리학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름해서입니다. 그런데 심성의학이라야 되고, 심성과학이라야 되고, 심성물리학이라야 그것이 알맞게 작용을 해서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금요일날 나를 친견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왜 필요합니까.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준다고 믿으면 될 거를 왜 자꾸 긁어 부스럼을 만들며 되묻고 되물어서 전깃줄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게 만듭니까? 오히려 불발이 일어나 가지고 안될 수가 있어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불발이 일어나서 잘못되는 수가 십중팔구입니다. 그러니 때와 장소를 가려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말을 하면 그냥 하는 걸로 족하게 생각하고 귀가 있으면 듣겠지 하고 가란 말입니다.

>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 나온 그자리에다 믿고
> 되말겨 놓는다면
> 자기라는 아집 벗어나
> 자유인 될수 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조건없는 사람이래야 되는 거지요. 조건이 있어서, 이런 업이 너는 있으니까 못하고 이런 업보를 지었으니깐 못하고 이러한 병이 있으니깐 못한다는 이유가 붙으면 전깃줄과 전깃줄이 어떻게 붙습니까? 불을 켤려면 이유를 불문에 붙이고 전깃줄을 한데 합치는 거죠. 이걸 붙일까 말까하고 붙입니까, 무조건이죠. 그래서 캄캄하면 불을 켜서 밝게 살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먹고 싶으면 먹어라 이 소립니다. 그리고 변소가고 싶으면 변소가고요. 하하하….

돈오점수에 대해서…

문 예, 큰스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큰스님께 한 가지 또 여쭐 말이 있는데, 대중들께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오점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해주십시오. 깨닫고 난 뒤에는 다시 깨달을 것이 없다, 깨닫고 난 뒤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어찌 무엇이 있으랴하는 그런 말씀과 또 어떤 스님께서는 깨닫고 난 뒤에는 보임을 잘해야 된다, 깨닫기 전에는 깨달을 것이라도 있지만 깨닫고 난 뒤 보임을 잘못하면 그건 또 영원히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큰 스님들의 말씀이 아직까지 공부하는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깨닫고 난 뒤에는 한물건도 없다'라는 그 의미와 '깨닫고 난 뒤에는 보임을 잘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답 깨닫고 나서 보임을 잘해야 된다는 것도 맞고, 깨닫고 나면 아무 건덕지가 없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성부와 자성자가 한 데 합쳐지면 깨닫는 것인데, 그것은 합쳐져서 싹이 났을 뿐이지 자란 게 아닙니다. 자랄려면 그만큼 수행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스님네들이 입산을 할 때는 '이 무명초를 다 끊어버리겠습니다'고 다짐을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아주 애당초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낸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끊어버렸지 진실하게 우리가 무명초 하나 하나를 수행해 나가면서 끊어버린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모든 것을 모아서 놓는 반면에 이 무명초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수다 하는 거는 그런 수행을 하는 나를 발견했으면 둘이 아닌 관계상 알아야 하니까, 즉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남의 원망을 하지 말고 어떤 게 있어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나로 밀어넣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보임입니다. 보임이라고도 하고 보림이라고 하기도 하죠.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거기다 놓고 가야합니다. 악이든지 선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놓고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믿고 놓아서 둘이 아닌 도리를 두번째 깨달아야 합니다.

세번째에 둘 아닌 도리를 알았는데 나투는 도리를 몰라요. 전깃줄과 전깃줄을 대어주고 떼어주고, 대어주고 떼어주고 하는 도리를 모른다면 여래라고 할 수가 없다, 또 일체 중생이 나 아님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나투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되었다가 남편이 되었다가 이렇게 나툴 줄을 모른다, 이럴 때는 그 나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세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이런 겁니다. 그런데 세번째 깨달음이 있어서 나툼의 도리를 안다면, 모든 일체가 나 아님이 없을 때에 자기가 자기 꺾는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화해서 자꾸자꾸 돌아가는데 어떤 거 됐을 때 내가 됐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땐 점수라고 해도 맞고, 그게 끝났을 때는 너도 나도 둘 아니게 돌아가는 것이니 하나도 없다 하는 소리도 맞고, 둘이 다 맞으니까 둘이 아니다 하는 것도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도리를 이론으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알아서는 아니됩니다. 형상을 보고 무시하거나 그래도 아니됩니다. 형상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형상과 정신과 둘이 아니게 작용하는 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고도 없고 일체 만생이 생명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력이 똑같 듯 생명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모두 하나도 버림이 없이 되고 버림이 없어야 항복을 받고 항복을 받아야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도리가 나옵니다. 질문하실 분 또 없습니까?

주인공에 맡겨도 안될 때는…

문 저는 주인공을 믿고 공부한 지는 별로 안 되는데, 지난번에는 병이 났는데 주인공에 맡겨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에 맡겨도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하하하,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서서 갈 때도 있고 앞으로 그냥 갈 때도 있지요, 응? 어떻게 바로 가는 것만 가는 거고 뒤로 가는 건 가는 게 아니겠어요, 싸울 때도 전진해야 할 때가 있고 후퇴할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고 되는 것도 되는 겁니다. 포위를 당했을 때는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것이지요. 후퇴를 해야 살지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도리를 알게 됩니다.

동생이 7년째 앓고 있습니다

문 저에게는 나이 많은 동생이 하나 있는데, 한 7년전부터 앓고 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께서 병 시중을 드는데, 부딪치기만 하면 어머니하고 환자가 싸우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큰스님 일러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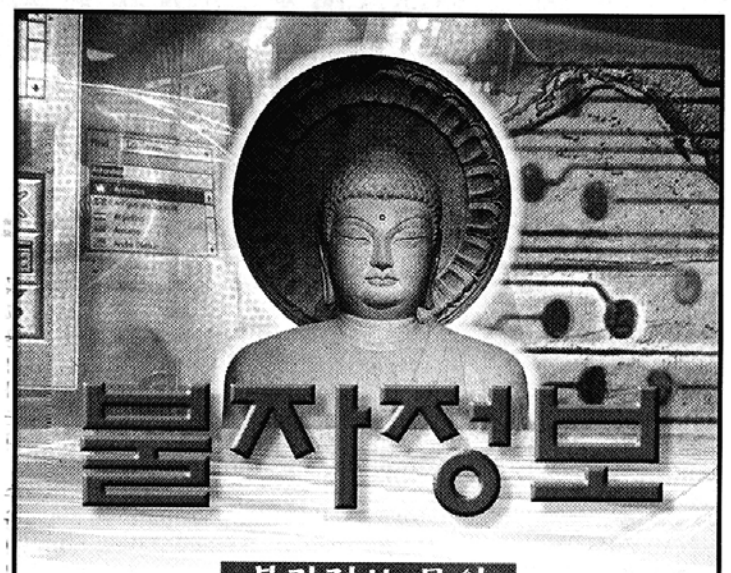
답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온 것이니, 놓는 관법을 알고 그렇게만 믿고 말긴다면 문제는 해결될 일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도 그렇고 이웃간의 화목도 그러합니다. '내가 왜 고개를 숙여, 내가 하는 게 옳은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하면서 마음을 일으켜서 자기를 세운다면 절대 화목이 올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온 그 자리에다 믿고 되말겨 놓는다면 자기라는 아집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정진들 하십시오.



그림 · 최주현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도 중생도 없어요
이생각 저생각 나지 않으면 발전 못하죠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암·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당뇨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의단요법·무료시술

치료비 전액무료

※ 의학적 완치사례 공개 ※
TEL : 0552-585-8118·8128
H.P. : 011-559-811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잠이 쏟아진다!

■ 잠시 앉아만 있어도 잠이 쏟아지고
힘이 샘솟는 「비아그라」보다 더 신비
한 「건강요」와 「한방베개」탄생
만약 2주간 사용불만시 100% 환불!!
전기사용무. 온돌침대겸용.보관간편
수신자부담/080)721-8858 세광산업(주)
-7일사용후 입금가능합니다.-

간병인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02)363-7884
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강좌

수맥강좌안내

1.신비의 추·
L-로드
2.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수맥차단제 판매
4.수맥관련 상담 환영
02)734-2118
011)239-6817
대붕 氣 살림

易학교육전문학원

혼자 배우는 **운명학** 학습지
※ 필독권장대상 ※
·혼자 조용히 배우실 분
·확실, 체계적으로 정리할 분
·용신 찾아 헤매고 있는 분
8주 완성
농협 037-01-298413(예금주)글향기
◀매주 토요일 무료공개 강의▶
易학교육전문학원 (02)332-7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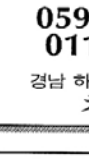
전통불교의식 학인및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의식 등
■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특별의식
■ **어산작법반(속성반)** : 상주권공, 요점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도량게, 다게나비무
※불교제반(49재, 천도재, 점안식 등)의식을 전통의식으로 봉행함
■ **원상생 봉사회원 모집** : 불교상의 식의 장례의식(교육후 봉사활동)
※각 과정 통신수강 가능
■ **문화강좌** : 사경기도법회 및 기초교리강좌, 사물놀이, 생활불교의식, 서예, 아나파나사티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전통불교의식연구원 ☎02)511-0108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
◇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시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5시
- 야간 : 7시30분~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풍수, 운명, 침술, 감정시무하고 있음
(철학관 및 포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출가관심자 승려 수계득도 지원함)
0331)264-4582 대·불광사,승가대학교무처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39번지)

F·R·S 발 건강교육원



★ 발반사구요법
수강생 모집
·창업 및 부업
·가족 건강
·봉사 목적 단체 실비교육
★ 매월 2째주
토요일 오후 2시
무료 공개 강좌
무료상담전화 080)765-4872

동양사상 공부하실 분

◆과목 : 참선지도, 불교경전
주역원문, 노장사상,
관상, 육효, 사주,
풍수지리, 가상(家相)
※전강 탄허스님 문하에서 수학
◆강사 : 김 소 호 거사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술장상당도 해드림)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12호 달마정사선원
011)755-5333/02)914-6551

구인

경주시 황용산 토굴에 사는 비구승입니다.
탁발을 위해 **천도재, 49재,**
기도 및 법회 보아 드립니다.
필요하신 사찰이나 뜻있는
불자은 도움 주시는 마음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561)773-8640
동로 합장

말법시대의 중생을 교화하여 구제하고 어려운 시대의 경영난도 해결할 수 있는 전무후무하고 상상을 초월한 지혜방편을 마련하고 **관심있는 스님, 포교사, 신심이 돈독한 불자들을 초빙**하오니 많은 연락바랍니다.
02)579-0102,0103
011)217-9223

모 집

불교미술(불화)
남·녀 문하생 0명
02)388-6004
011)351-1688
한국 정통 불교미술원

불심 돈독한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구리시 동국사
0346)557-2266
011)751-7960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53)942-0700
011)501-2219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기타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화엄경(80권)-1,400,000원
법화권(7권)- 170,000원
사 교(7권)-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김창본
02)962-6477 처 사

공 고 문

전국 광산 김씨 스님·포교법사로 계시는 분은 영산재 등 각종 행사문제로 천안의 통일미륵사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 미륵사 주지 도선
광산 김씨 대종회
광산삼보종회 (光山) 金容太 합장
0417)567-5281/011)427-5281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재 관리국 기능보유자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하고 그외도 조각 장여부연이며 4미터 이하는 거의 육송을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진관사 승가사 용화사 용주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연사 보광암 비봉사 현재 은선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大慈 大悲 달마도는 자연의 기운입니다

(KBS 2TV 달마도의 신비출연-98.7.24)



▶ 수성사
02)540-5926
무하합장
이사, 삼재
차량운행
수맥차단
5회의 불보살님 견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관음보살도 보급중>

보이차 직판합니다.

100g ×10봉지(10만원)
100g ×1봉지(1만2천원)
02)911-6798
017)406-6682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혜월당 회향암
0564) 33-2037
017) 531-2929

벽지 바닥재 버티칼·페인트

도매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출장견적 환영
해인 인테리어
02)2201-1470
019)369-8000

전통 황토방

"흙은 만물의 모체다"
황토에는 병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데..
순수 황토만으로 시공하며 장판을 깔지 않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황토방으로 개조하며 도배나 화학재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음.
금강황토 산업 032)427-7899/016)360-2236
FAX 032) 427-5634 지정 합장

홍민운기의 신법 계룡산 육신도통 대법회

충남 공주시 계룡면 계룡산 갑사위, 대자암위 연천봉하 대명당에서 산신·천지인·삼계 대운맞이와 안,이,비,설,신의, 도통과 유, 佛, 선 삼교를 포용, 도통법회를 개최합니다.
■일 시 : 1999년 3월 8일 亥시 ~ 9日 亥시
■장 소 : 충남 계룡산 공주시 갑사위, 대자암위 연천봉하 대명당
■회 비 : 1박 2일, 침식제공, 3만원 간편하고 두터운 옷
■접수처 : 서울 02)821-6622/02)923-3110
휴 016)239-3110 유성 042)825-0936
■기타 사항은 (02)821-6622로 문의 바랍니다.
■접 수 : 농협 029-01-167866 곽 태 일 앞
度優寫 육신통 도통회
달마심기선무기공회장 태일법사 합장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 수양·기도·공부·참선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사찰안내

사찰 운영안내

◇위치 : 대구 달서구
◇대지 : 20평 ◇임법당 : 20평
◇가액 : 전세 1,300만원(시설비 없음)
◆0559)521-8345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합천군 묘산면 (면에서 5분거리))
◆평수 : 대지 300평,법당 10평, 요사채 2동(삼존불, 산신각, 칠성각 모셔져 있음, 용왕당)
◆사찰 경내 차량진입 가능
◆가격 : 7천 7백만원(절충가능)
0599)932-6278

사 찰 안 내

◆ 수도권 및 전국 일원 사찰이나 암자를 양도·양수하실 분 찾습니다.
◆ 특히 급한 사정에 의해서 사찰,암자, 불사 가능한 대지를 매매 원하시는 분
◆ 수도 정진할 수 있는 사찰, 암자를 구하시는 분
◆ 전화상담시 고객의 입장을 철저히 보안 유지합니다.
※사찰건축, 포교당 실내공사, 상담환영
좋은인연 02)561-7020
02)561-7791
한국불사연구소 018)223-7315

토굴 안내

◇ 위 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황토흙방 3)
◇ 가액 : 3천만원
◆ 최고의 명당(황토흙 방 3개)
◆ 차도 전기 미설치
018)621-6969

사찰(급) 안내

◆위치 : 경북 상주시 화북면 회룡동 (마당넓음)
◆평수 : 약 300평
◆건물 : 38평- 28평 1, 10평 1 두채로 되어있슴.
◆가격 : 9천 5백만원
0582)536-7985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774
◆ 대지 : 2000평 내에 목조기와 단층주택 큰방 4칸 (이중창방범창도 있음)
◆ 법당 : 임법당 1칸, 삼존불, 탱화 4점, 현관 및 넓은 마루도 있음
◆ 법당 신축부지도 있음
◆ 가격 : 시설집기 일체포함 총 3,600만원
0451) 641-7569

안성 사찰부지

◆ 특징 : 고시원,교육관,실버타운지 다용도최적토목공사완료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져수지 및 국도접
◆ 평수 : 합 1,500평(다섯필지로 분할도 되어 있슴)
◆ 가격 : 해외이민사정상 평당 현시세 70만원이상을 40만원정도에 급매함.
02)2281-1515

포교원 안내

◇ 위 치: 부산 온천3동 수덕포교원(최고위치)
◇ 건물: 30평
◇ 가 액 : 전세5천, 월세가능 (시설비 일체포함)
051)503-0177
011)311-3744

사찰터 안내

◆위치 : 대전시 동구 상소동 (대전역 20분 거리)
◆평수 : 임야 9,800평 밭 320평(준농림지)
◆용도 : 암자, 납골시설
◆가격 : 1억 2천(시세절반가)
042)525-5373
011)428-0805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 법당 : 18평 ■ 요사 : 50평
■ 부지 : 65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전국의 사찰 포교당 다량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위치 : 통영시
◆부지 : 1,180평
◆법당 : 25평 ◆요사 : 25평
◆가액 : 답사후 절충
◆ 특징: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송림에 싸여있는 청정지역
012)1067-0108
0502)580-0108

사찰(급)안내

◇위치 : 장호원 시내에서 차편 5분 (서울 약1시간대)
◇대지 : 438평
◇총건평 : 85평
- 법당 약 15평(방3,선방 약27평(사무실 포함)
- 요사채 고시원 약 30평(방 10개)
- 식당 약 8평(독채), 화장실 약 5평(독채)
◇가액 : 3억 5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 (신설고속도 인접 서울 약 2~50분대)
※ 직접면담(가격조절가) ※
0336)643-9051/012)925-6118

포교원(급) 안내

◆위치 : 2호선 서울대입구 전철역서 1분거리
마 봉 사
◆평수 : 약 30평(2층)
◆가격 : 전세 4천 5백만원 (시설비 포함)
◆현대식으로 지은 상가 신축건물
02)875-7576
017)229-257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단장 미촌리 만월암 밀양에서 16분 거리
◆ 대지 : 103평
◆ 건평 : 22평 신축건물 스라브 시설완비
◆ 가격 : 3천 9백 (등기필)
0542)371-1306
0542)372-5040

사찰 안내

◆위치 : 전북 군산 시내에서 15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2평, 요사채 50평,신축건물, 거실 大 1개, 방 4개, 목욕탕 3개, 부엌 20평, 다용도실 겸 창고 1, 태양열 온수기 한통 설치, 약수물 연꽃독 설치
◆대지 : 360평(대지 80평, 밭 172평)
◆가격 : 2억 9천(절충가능)
※ 절옆에 3층 지방문화재 석탑 있음.
0654)451-2410
011)671-5161

급,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성덕면
◆ 부지 : 소나무 숲속 370평
◆ 법당 : 콘크리트 39평
◆ 요사 : 방2,거실,주방30평
◆ 기타 : 불사중 동불발견
※ 김제시 10분, 만경읍 5분, 전주시 40분거리
◆ 가격 : 급매 칠천만원
0658)542-58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밀양에서 25분거리)
◆ 평수 : 242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2개, 차량진입 가능, 약사여래 부처님, 미륵존불, 관세음보살님 모셔져 있슴.
◆ 가격 : 1억 2천(절충가능)
0527)391-5360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동
◆평수 : 법당 40평
◆삼존불, 영가단, 삼성각, 방2, 주방, 샤워장
◆가격 : 보증금 1,500만원-월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2)521-7512
011)3039-0566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집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2천 5백만원 (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053)957-9551

사찰(급) 안내

◆위치: 서울 노원구 (전철역 2분거리 버스정류소 2분)
◆실평수: 대지 65평 (서울 APT내에 위치 건평 100평)
◆2층 -법당 / 1층 -요사채
◆가 액: 3억 5천(융자 1억 2천만원)
02)3391-4845
011)752-4842

●●● 사 찰 안 내 ●●●

좌청룡 우백호가 격을 이루어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터이며 산과 호수 계곡이 기를 이루어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 그대로 조화를 이룬 사찰터 입니다.
·위치: 천안 독립기념독립기념과 인접지역 ·매가: 7억원(절충가함)
·건물, 토지내역 및 특징 : 대지:300평, 전 : 22,000평,
임야:20,000평 - 국임대 : 28,000평-현대식 3층건물 1동(100평)
·밤나무, 감나무, 호도나무, 잣나무등 유실수 다수
·전화 및 전기시설 완비 ·교통 편리지역 ·현고시원성업중
·대지 : 79평
·건평: 200평(12세때 방 23개)4층건물(지하 1층,지상 4층)
·법당 : 15평(삼존불,후불탱화,신중·산신·용왕 탱화)
·위치 : 안산시내 중심지역
·특징 : ①불교실버타운으로 기획된 사찰로서 세대별로 불자님들께 분양 가능하며 현재 사찰로서 성공적으로 운영됨②인구 밀집지역으로 포교최적지임③교통편리지역(서울 시청기준 45분거리)
·매가 : 7천 오백만원((융자금 및 보증금 별도)
·전세 : 2천 사백만원
⊙전국 사찰 및 포교당 다량보유하고 사찰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화 02) 736-3578~9/ 휴대폰 011) 789-2255/ FAX 02) 739-4603 금 강 기 획

생활정보

신용정보 (02)3474-2000로

경제 한국신용정보는 지난 2월 24일부터 일반인들이 신용거래내역, 불량거래내역, 조회내역 등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실시중이다. 국민·외환·삼성·BC카드를 가진 이용자는 전화 (02)3474-2000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응답서비스나 팩시밀리로 확인 가능.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생활 서울시 농수산유통과는 3일부터 31일까지 농수축산물을 시중보다 20%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농수산물 순회 직거래장'을 서울시내 66곳에서 개설한다. 농협(397-5114), 축협(2224-8114), 수협(2240-3114) 등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는 1백여종의 농수산물이 판매된다.

국내 최초 전자화폐

금융 정보통신부 산하 커머스넷코리아(www.commerce-net.or.kr)는 전자상거래의 소액결제용 전자화폐가 동성정보통신㈜의 주도하에 ICash(아이캐쉬)로 개발이 완료돼 오는 10일부터 BC카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상용화에 들어간다.

인터넷에 사이버 세무서

세무 인터넷상에서 세무상담을 하고 민원증명 발급예약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세무서가 3일 개설됐다. http://www.nta.go.kr

포도주 폐암위험 줄인다

건강 덴마크 코펜하겐의 질병예방연구소는 미국 역학전문지 〈아메리칸 저널 오브 에피디미올러지〉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1주일에 포도주를 1~13잔 마시는 사람은 폐암 위험이 25%, 13잔 넘게 마시는 사람은 5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환기 '산과 달 드로잉 전'

전시 서울 종로구 부암동 환기미술관은 2월26일~4월4일 수향산방에서 김환기 탄생기념전 '산월(山月) 서울-뉴욕시대전'을 연다. 우물물 마시고 전차 타던 50년대 서울 성북동의 자연을 산과 달 그림 속에 담았다. (02)391-7791

인터넷 '음악상품권'

새상품 LG인터넷은 2일부터 자사의 인터넷서비스 '채널아이'에 MP3(음악파일) 음악사이트 '뮤직 아이'를 개설, 5천원 2만원권의 음악상품권을 판매하고 MP3파일을 공급하는 '주문형 음악'(MOD)서비스를 실시한다. 음악상품권은 무통장입금이나 실시간 신용카드로 결제.

음식마저 오염투성이니…

패스트푸드서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
유명백화점 젓갈류 위생단속 걸려
"상한음식은 구덩이에 묻어라"

'춘다여! 이 남은 스카라 맛다비는 구덩이를 파 그곳에 모두 묻어라. 춘다여! 이 세상에 이것을 먹더라도 완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악마와 범천, 신들과 인간들, 사문과 바라문을 포함하더라도 여래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니라.'〈열반경〉

부처님께서 대장장이 춘다가 공양한 상한 음식을 드시고 병이 든 후 춘다에게 한 말이다. 위생상태가 좋아진 오늘날에도 건강에 해로운 식품이 대량으로 유통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일 맥도날드, 피자헛, 켄터키프라이드치킨 등 유명 패스트푸드업체의 제품에서 살충제와 소각부산물 등 환경호르몬 물질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줄 정도로 과다검출된 조사결과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공개돼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같은 날 유명백화점 등 11곳을 대상으로 젓갈류(창란젓)의 위생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7곳에서 기생충이 발견되는 등 우리의 식탁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생물 농약 중금속 항생제 곰팡이독소 환경호르몬 유전자조작식품….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널려 있고, 그 결과 식품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안전한 식생활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온갖 질병은 묵은 밥(宿食 : 상한 밥) 먹는 것이 근본이 된다.'(열반경)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먹거리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때다.

△중금속·농약 오염 농수산물=식탁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중 중금속오염이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미 1일 섭취허용량(ADI)의 94%에 이르는 중금속을 매일 섭취하고 있으며 잔류농약은 ADI의 5~15%, 식품첨가물·곰팡이 독소는 각각 ADI의 2%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호르몬 식품=청소년들이 즐겨먹는 패스트푸드나 컵라면 용기등에서 검출되는 환경호르몬의 안전성 여부 논란 또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이런 유해물질들은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뿐 아니라, 특히 정자를 감소시켜 생식기능을 떨어뜨리고 성장장애나 기형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유전자 조작 식품=장기적 영향이 밝혀지지 않은 유전자조작 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이 어떠한 양상으로 인류에 해를 끼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7%, 전체 수입곡물의 10% 이상이 유전자 조작 품종이라는 추정이 나와있다. 유럽의 프랑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은 GM 제품의 유통을 아예 금지시키고 있고 유럽연합은 지난해 9월부터 GM 제품 여부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책=수입 농산물의 검역을 강화하고, 식품에 유해물질을 섞는 악덕업자는 중형에 처해야 한다. 정부 관련부처는 물론 민간기구까지 망라하는 식품감시체제를 갖춤으로써 우리의 '밥상'을 보호해야 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유전자 변형 콩 수입에 반대하며 시위중인 환경단체 회원들.(연합뉴스)

"자원봉사 활동 장수에 도움준다"
美 머식연구원 1211명 조사

'마음으로 늘 보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최상의 상태에서 살다가, 죽어서는 곧 부호의 집에 태어난다.'〈월등삼매경〉

자원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미시간대 마크 A. 머식연구원은 노인학 전문지 〈Journal of Gerotology : Social Science〉 최근호에서 노인들이 일주일에 한시간 이내의 짧은 봉사활동을 하는것이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86년부터 노인 1천2백11명을 면담해 7년반동안 사망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연간 40시간(일주일당 약 46분) 이내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봉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다.

김재경 기자

"돈·명예 집착 정신건강 해롭다"
美 로체스터대 연구팀 발표

'부귀는 괴로움의 뿌리니, 새가 그물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선요경〉

돈과 명성에 집착하면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美 로체스터대 심리학과 리처드 얀교수팀은 '수입'과 '매력'이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연구팀은 〈개인과 사회심리학〉지에 발표할 논문 등 일련의 연구성과를 통해, 돈이나 명성, 미모 등 '비본질적인 목표'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삶의 활력과 자아실현의 측면에서 낮은 수치를 보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우울하고, 행동장애및 심리불안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 논문에서 연구팀은 부(富)의 추구는 심리학적으로 도움이 안되며, 흔히 파괴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시론

'세기말' 아니다

우리가 단일민족으로서 자랑스러운 것은 유구한 역사 때문만이 아니라 홍익의 찬란한 기원(紀元) 때문이고, 부처님의 정각(正覺)이 중생에게 무상(無上)의 위대한 선물인 이유는, 공생의 기원을 수립하셨기 때문이다.

인류만이 아닌 중생 모두의 상생(相生)을 북돋우는, 만유(萬有)가 함께 사는 공생의 기원을 마련했기에 불교의 기원이 더없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인 마음이 발현되어 세간이 있게 된다. 다시 그 마음을 낸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이 나타난 형상을 보고는 저 밖의 세간이라 부른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세간이 나뉘어 지고, 따로 있는 듯 보여진다. 늘상 법문의 중심에서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이치다.

그러나 거꾸로 세간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면 그것을 일러 전도망상(顚倒妄想)이라고 한다. 전도된 망상은 정견(正見)을 장애하는 근본이요, 정견의 장애는 사견(私見)을 조장하고, 사견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다. 그렇다면 유복한 세간 즉 살만한 인류역사는 인류의 마음가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세간이 복되지 만은 않은 것은 우리가 술하게 버려온 과거 우리들의 사견이 그 원인이었다.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대다수의 인류가 걸어온 일단의 지향성-그것에 의해서 지구공동체 즉 인류의 운명이 바뀌어 왔다.



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우리는 지금 홍익의 4332년 공생의 254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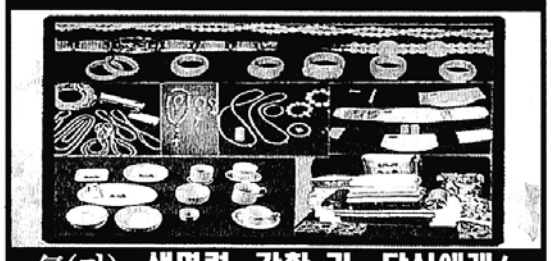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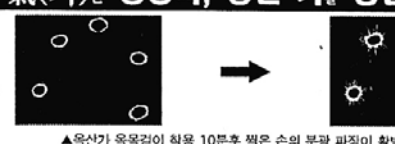
그 일단의 지향성 중 주목할 만한 흐름은 전 지구를 하나의 영향권으로 획일화한 서구의 산업화 즉 동양에 있어서는 근대화라고 불린 거대한 인간 편의의 물결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물결 즉 다수의 인류가 순응한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은 물론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갈 터전마저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 인류가 전미개오 해야할 위기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크게 돌이킬 수 있는 고유의 지향성이 있다. 민족적으로는 홍익기원을, 승가에 있어서는 부처님의 정각으로 시작된 공생의 기원을 회복하는 일이다. 기원이란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반드시 거치는 단초(端初)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홍익을 기원으로 마음을 시작하고, 공생의 기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때 만이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무모하게 달려온 그들이 말하는 세기말의 불안, 인간이 자연을 무참히 상해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이웃이 이웃을 버려도 되는 무한 경쟁으로 얼룩진 상극(相剋)의 만연한 허상을 극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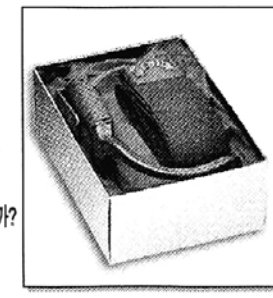
다만 서력기원의 세기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들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새로운 마음만이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기독의 기원으로 시작된 밀레니엄의 세기적 반성에 서서 오히려 우리의 기원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성인의 탄생기원은 누구나 기꺼워할 일이기에 예수탄생 두 천년의 밀레니엄은 그대로 의미깊은 것이다. 그러나 그 기원을 잘못 운영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운 기원을 시작하지 않는 다면 새로운 천년은 다시 그 상극의 물결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 이웃만이 아닌 인류의 드넓은 사랑을 펭서한 홍익의 기원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구원만이 아닌 만유의 상생을 위해 오히려 유정·무정의 모든 중생을 위한 인류의 헌신적 바라밀행(婆羅蜜行)을 선도한 공생의 기원이 우리민족의 오랜 자산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두 천년보다 오래된 시간의 의미깊은 우리의 역사와 고등한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며, 밀레니엄으로 기원한 세기말의 혼돈과 불안을 홍익과 공생의 기원으로 선도하는 진정한 세계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세기 말이 아닌 우리들의 오래된 시간 홍익의 4332년, 공생의 2543년을 살고 있는 것이다.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 보일러보다 약 1/3~1/4 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얼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2)883-7400(代)
·영업부 : 02)877-6090
·FAX : 02)876-3378

염불 禪 주말 수련회 (토요일 저녁9시 / 일요일 아침7시)
와서 보라! 수행비전의 완벽한 테크닉을!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률에 맞춰 힘차고 박력있게 경쾌하고 신명나게 재미있고 리드미컬하게 행주좌와 동정간에 자동으로 염불되고 단전호흡되는 한국불교 전래이래 처음 공개되는 염불禪 수행법
- 큰소리로 장시간 염불해도 절대 목이 아프거나 쉬지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트이며 말더듬, 실어증이 극복되고 가슴이 막트여 시원해지며 피로감을 모르는 용맹정진시 용이한 수행법
- 염불 수행시 혀가 이완되어 입천장을 탁탁치면 대뇌가 각성되어 또렷또렷해지며 졸음과 혼침이 극복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의 맺힌 기가 풀리며 스트레스는 저절로 해소되고 울곧은 자세가 계속 이어진다.
♣ 근심 걱정의 악업이 가슴에 맺힌 한이, 병고액난의 괴로움이 번개치듯 녹아내리고 문제해결의 지혜가 순간 떠오르며 간절한 소원은 즉각이루는 기도 수행시 가장 용이한 염불법이다.
- 독경을 잘하려면 세로쓰기 한글 경전을 한줄씩 읽고 왼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면 오른뇌의 직관이 열리며 집중력 기억력 좋아지고 번뇌망상의 잡념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렷또렷하고 정신맑은 상태로 독경삼매 이른다.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들숨과 날숨과 숫자를 절 동작에 대입하면 자동단전호흡되고 또렷하게 숫자가 헤아려지며 심천배를 하여도 절대 숨차거나 헐떡대지 않고 몸살나지 않으며 힘들지 않는 가장 진보된 수행법이며 최고의 건강법이다.
- 시중의 단전호흡은 부처님 호흡법이 아니며 수련을 잘못하거나 몸에 맞지 않으면 명치 아프고, 옆구리 결리고, 협압 오르며, 머리 무겁고, 위장 병 생기며 얼굴 노래지다 검어지며 병이 되니 돈낭비, 시간낭비 하지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저절로 단전호흡되고 기도되는 염불禪으로 불자답게 수행하십시오.
- 수행내용 : 한글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염불정근, 참선, 와선, 행선, 호흡에 맞춰 108배, 도인건강법, 축원기도 7회
- 예약수련 30명, 넉넉한 복장, 초심자 기본수행법교육(7시~8시)
- 불자기업 오스트세이빙테크(주)에서 수련회비 일체를 후원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기 옥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 파짐이 활발하다
연옥 사용전 1.5㎶ 연옥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홧병, 노화방지….
너무힘들 때는, 옥을 같이 사용해 보세요!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玉山家에서 기옥만을 찍찜어서 사이인 효과가 있습니다.
옥분108염주(10mm, W60,000)
· 목걸이 겸용 옥혼합제품
· 건강보전 기경팔맥 通氣용
· 무거운 것을 싫어하는 분에 적합
· 마음자리를 잘 볼 수 있고 탐진치의 瞋心을 줄일 수 있어 좋다.
옥산가 옥이 의학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木部제1에 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02)777-0105 (우편판매비)

단전운동 열풍!
단전운동을 통하여 우리몸을 건강하게!!
예부터 단전운동을 하면 천수를 다한다고 하는 최고의 건강법으로 알려져 왔으나 어렵고 힘들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미세진동파가 단전을 운동시켜 주어 상쾌감을 맛볼 수 있으며 20代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염문으로 숨을 들이마신 다음 단전에서 돌린후 다시 발문으로 숨을 내쉰다
단전의 이상유무를 알아내는 방법
⊙온몸이 나른하십니까?
⊙항상 피곤하십니까?
⊙소변이 잔뇨감이 있고 묵직하십니까?
⊙숙변과 변비로 고생하십니까?
⊙氣力이 약하십니까?
⊙숙면이 어려우십니까?

우리 몸에 氣를 충전시켜 주십시오!!
피라미드 안에서는 면도날이 재생되고 우유가 요구르트로 변합니다.
생물의 성장 촉진,
물이 육각수로,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 결과
전자파·수맥파 차단 효과,
질병치유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KBS -TV 자료 우송

▲10분내에 기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직접 체험 후 구입하십시오
韓國氣健康研究會
대표전화 02)455-6944/453-5851

문화사업 역점

청교련 새해사업 확정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 이하 청교련)는 2월 27일 청소년문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 아래 △연수·수련·문화사업 △청소년 보호활동 △자원봉사·사회운동 등 올해 사업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업들은 청소년 수련대회, 문화기행, 눈밭축제, 어울마당, 건전한 소비문화캠페인 등 이다. 이외에 청소년 큰잔치, 종합예술경연대회, 윤리회복 실천대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 문화사업은 5월20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리는 제12회 청소년종합예술 경연대회. 청소년들에게 잠재된 예술적 소양을 발굴, 함양시킬 이 행사는 초·중·고등학생 총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오종욱 기자

빨간조끼 엄마들 청소년 보호

청교련 인천지부 어머니 감시단

유해환경 순찰 10개월간 1900여건 적발
정보지 감시 음란전화·원조교제 차단

인천에서 전화방, 노래방, 오락실 등 유흥업소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간석동.

이 지역에서 빨간색 조끼를 걸친 40~50대 아주머니들이 밤 9시부터 12시까지 삼삼오오 다니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이들은 바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의 '어머니 감시단' 단원들이다.

어머니 감시단은 인천지역 10여개 초.중.고등학교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6월 발족됐다. 현재 감시단에서 활동하는 어머니들의 수는 70여명. 이들은 매월 4~5회 이상 관할 지역을 순찰하며, 생활주변에 산재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들과 딸들을 보호하고 있다.

"감시활동을 나설 때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TV에서 '비행청소년'으로 지목한 그런 중·고교생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들이 우리의 잔소리를 선선히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2년째 청소년들을 지도해 온 박혜순(43)씨는 감시단 활동의 성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학부모들이 청소년 교화에 발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부에서 어머니들을 청소년 선도 최일선에 세운 것은 지금까지 교화시설과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온 청소년 교화사업이 이제는 시민운동으로 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기존의 교화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청소년 문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어머니 감시단의 활동은 매스컴과 지역환경 감시 등으로 구분된다. 벼룩시장, 알림방등 생활정보지를 모니터하는 매스컴 감시 활동은 080 음란전화와 10대 원조교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감시단은 10개월 동안 1천9백여건의 청소년비행 및 유해업소를 적발, 지도했다. 중·고교생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소들은 먼저 인천지부에 신고된다. 또 담배와 술등 청소년에 유해한 것을 판매하는 업소들은 현장 지도등 적절한 시정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시정을 거부한 업소의 경우 인천지방 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영업정지등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 지금까지 16개 업소들이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미경 사무국장(청교련 인천지부)은 "청소년 문제에 일개 단체가 나서는 것보다 부모들이 앞장서는 것이 이탈 청소년 지도에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적 기능도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⑦



황 수 영 〈前 국립중앙박물관장〉

"답사를 갈 때마다 탑 앞에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선조들의 불심이 담긴 탑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할 수 있지요."

평생을 불교유물과 함께 한 황수영 박사(80·前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황 박사가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답사를 다닐 때마다 빼놓지 않고 부처님 전에 예불을 올리고 탑과 대화를 하는 것에 있다. 사찰에 있는 유물을 돌아보기 전에 그 곳의 주인인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허락받는 것은 불자이기 이전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불자로서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다니며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는 황박사는 지금도 한달에 일주일은 답사여행을 위해 집을 비운다.

사찰 답사때마다 예불·탑과 대화
평소 규칙적인 식사·충분한 수면

답사 현장에서는 청년 못잖은 호기심과 체력을 자랑하는 황 박사는 답사를 나가서도 시간맞춰 식사하고 포식하지 않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한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은 황 박사의 건강을 지탱해 주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평범한듯 하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것인데 평생을 그렇게 맞췄고 덕분에 건강도 남부럽지 않다.

최근에는 인도 일본 중국 등 외국 불교사원에 눈을 돌렸다. 국내 답사보다 더 힘이 들터인데도 얼마 전 중국 석굴 답사를 다녀온 황박사. "힘들지만 석굴암 연구를 위해 중국의 석굴들을 차근차근 돌아봤어요. 이 나이에도 내가 답사를 다니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 불심에 있지요. 부처님 흔적을 좇아 다니니까 힘든 줄도 모르겠네요."

답사를 가지 않을 때에는 동대 박물관에 있는 연구실에서 이런 저런 불상 탑 등을 연구한다. 조사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부처님 말씀에 푹 젖어든다. 특별히 하는 운동은 산책을 꼽는다.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무심의 상태로 걷는 것에 몰두하다보면 어느새 심신의 피로가 가신다.

"내 건강 비결이 뭐 따로 있겠어요. 부처님 일을 부지런히 하고 충분히 쉬는 것이지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사찰답사를 다닐 계획입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장기기증은 아상 벗는 길"

학성선원 생명나눔법회 우룡스님 법문



살아서 하지 못했던 보시를 행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입니다. 불가의 가르침을 살아서 집착을 끊는 공부입니다. 하물며 죽은 뒤의 육신에 대한 집착은 더욱 부질없는 것입니다. 불자들은 마음 한 번 돌이켜 장기기증이나 화장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게 됩니다.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우리의 몸뚱이는 죽으면 저절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 뚱이기는 해도 모든 생명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무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니 생명을 나누는 보시의 정신으로 장기기증을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길입니다.

장기기증이라는 방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생명을 나누는 동체대비의 큰 보시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2월22일 생명나눔 캠페인 서약자 명단

화장서약(67명) 향공스님 강림이 강용주 강은주 김경임 김말숙 김모주 김미숙 김상기 김성권 김연자 김옥출 김용자 김전욱 김정영 김행지 박근득 박문용 박석열 박영자 박영희 박용자 박정식 박종일 박혜경 박희자 성관제 손괄이 손현희 송옥자 신혜선 실상화 정순애 양숙자 오정희 유정순 이난영 이덕선 이명희 이범명 이복련 이정숙 이정희 이춘지 임옥희 장영선 장영희 전봉순 정덕숙 정순애 정정숙 조인자 주경남 지선순 차현주 천미희 최광선 최덕주 최순란 최옥련 최종순 최화분 한복순 한위택 한화인 함영미 황순동

장기기증서약(25명) 인철스님 김명숙 김미영 김미향 김상남 김태오 김행자 노영호 박민영 박상희 박영희 배병구 서승일 원희진 이갑주 이명희 이양웅 이영주 이희천 정영진 정정희 정태균 조응 하선형 황순봉

〈생명나눔실천회·현대불교 공동캠페인〉

신나는 민속놀이 한마당

옥련청소년개발원 어울마당



충남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원장 종인스님, 이하 개발원)은 2월 25일 아산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청소년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

옥련·아산지역 청소년 150여명이 참가한 '청소년민속놀이한마당'에서는 개발원 산하 청소년 동아리 화랑나눔단의 사물공연을 비롯해 닭싸움, 줄다리기, 팽이치기, 공기놀이, 팔씨름 등이 시연됐다.

개발원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27일 지역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만해백일장 권소희양 대상

초중고생·일반인등 5백여명 참가



만해스님의 민족자주독립정신을 기리는 '3·1절 기념 만해 백일장'이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대) 주최로 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20회째를 맞는 이날 백일장에는 전국에서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님의 침묵', '천년', '강물', '손' 등을 시제로 놓고 열띤 경합을 벌였다. 이상대 회장은 "만해스님은 어린이·청년불자들이 바로 서야 한다고 항상 가르쳤다"며 "만해백일장은 그 정신을 잇는 행사"라고 말했다.

시, 시조, 산문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백일장에서 만해대상을 수상한 권소희양(양재고 3년·사진)을 비롯해 5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천년〉을 주제로 영예의 만해대상과 상금 1백만을 수상한 권양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라져가는 석불을 보며 시를 썼는데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년

권소희(양재고교 3년)

경주 국립박물관 앞 뜰에서
목이 떨어진 석불들을 보았네

잔디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석불들
몸에 이끼가 낀 석불들

제 몸무게를 어쩌지 못해
초근씩 잔디 속으로 빠져 들고 있었네

목이 떨어진 석불들
표정이 사라진 석불들

몇 천 년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석불들

움직인이 없었네
비바람 불어와
몸의 형체를 지울 때까지,

석불들은 기다렸 것이네
연꽃 가득 새겨졌던 머소를 찾아

다시 천 년 동안을 기다렸 것이네

단 신

학부모 감수성훈련 강좌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스님)은 자녀를 둔 성인을 대상으로 '감수성 훈련' 강좌를 마련했다. 이 강좌는 자신의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감수성 훈련'은 3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목동청소년회관 상담실에서 실시된다. (02)646-8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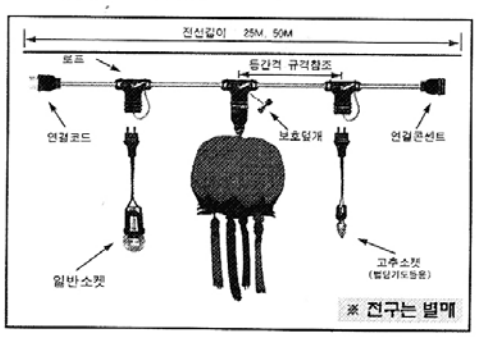
어린이법회교사 강습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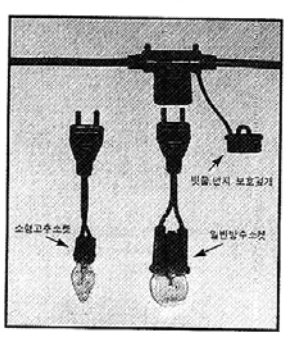
한국불교어린이포교연합회(회장 지원스님)는 어린이 법회 교사를 위한 수요정기 강습회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30분동안 갖는다. 조계사 제2문화교육관 2층 강의실서 열리는 강습회는 '불교아동교육' '어린이법회지도' 등으로 짜여져 있다. (02)725-2201

만해불교대학 30일 개강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지구장 김수현)는 30일 제6기 만해불교대학을 개강한다. 이번 강좌는 기초교리반과 경전반을 분리하고, 1년 2학기로 편성되는등 교육과정이 대폭 수정됐다. 경전반은 강동균교수(동아대 철학과)가 맡아, 〈정토삼부경〉을 강의한다. (051)469-6346

불자기업에서 제작되는
봉축연등,사찰·법당기도용 T형 플러그식 안전 배선
(봉축연등·사찰·포교원 법당 기도등, 각종 연등전선 제조·납품)





규 격
⊙ 등간격 : 30㎝, 50㎝
1M, 2M, 3M, 5M 기타 주문제작
⊙ 모 델 : DW-101(2mm) DW-202(2mm)
DW-305(3.5mm)

※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특징 및 효과
⊙ 소켓이 분리되기 때문에 설치, 수거, 보관이 매우 편리합니다.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소켓이 파손되어도 교환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 일반 전구소켓은 물론 소형 고추소켓도 생산하므로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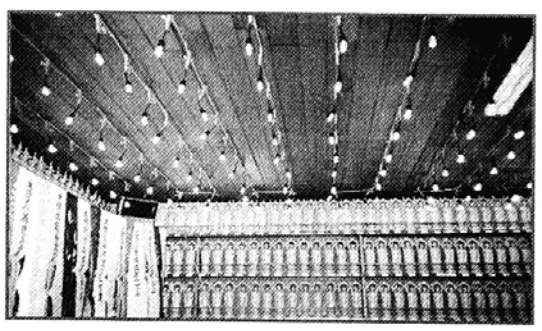
대원기업 代表 吳大權(光明) 合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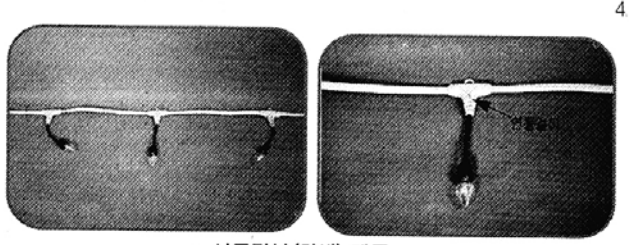
본사영업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FAX : (032)571-9470
A/S : (032)583-4023
서울영업소 : 서울시 충구 수표동 56-6 (대한지공빌딩 222호)
TEL : (02)2276-0235
H.P : 019-262-9830 · 017-259-4471

부산·김해대리점
경남 김해시 구산동 302-7
TEL : (0525)322-3929 휴대폰 : 011-833-8018
영·호남지사
경남 진주시 칠암동 496-5(조일B/D 3층)
TEL : (0591)757-6411, 757-3331
FAX :(0591)757-3626 휴대폰 : 011-869-4854

봉축연등·법당 기도등용 일체형 전기배선

(기존의 제품에 비해 전선은 굵고 크기는 작게 'T형 일체형 전선' 탄생)
{의장 제 16525호}


▲ 전기배선 시공한 법당


■ 시공전선(회색) 제품 ■

▶ 규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특징
1. 일체형으로서 접촉 불량이 없습니다.
2. 연등 설치시 편리하게 연등고리를 만들었습니다
3. 불자 기업으로서 긴 표시를 하였습니다.
4. 재료 절감과 정교한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안전하게 제작에서 「시공」까지 깔끔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신성기획 TEL: 02)3141-3789 / 02)332-3786
H.P: 019)380-3786 FAX:02)322-3785

몰·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인터넷 불교 백화점 mall. buddhapia는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몰. 부다피아에서 만나십시오.

다기함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126,000
크기 : 50×39×15cm

찻 상1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찻 상2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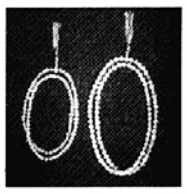
기도 청자 세트



₩ 25,000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 양초 황 각 한점, 촛대 바침막이2개

건강 옥 염주



종 류 · 청옥 ·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 백옥염주(大) ₩ 40,000

수월관음좌상



가격
₩ 120,000

五福臨門 猛虎圖



용 도 · 액자용
크 기 92㎝ × 61㎝
가 격 : ₩ 6,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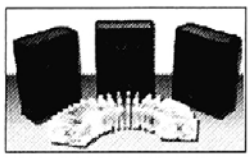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350,000
(개금)₩ 580,000

경전카드



가격 : ₩ 15,000 순금 99.9%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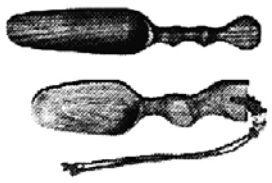
- 금강경 강의 : 45,000원
- 지장경 강의 :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45,000원

묘법연화경(전7권)



가격 : ₩ 140,000 (복장용)

차 시



재질 : 참나무,고목,등 / 가격 : ₩ 15,000(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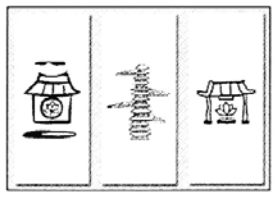
화엄큰스님의 달마도



가 격
₩ 20,000

순금 99.9%

기도포



가격 ₩ 1,600 / 기장 84㎝ 폭 39㎝

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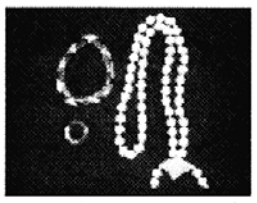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수암옥 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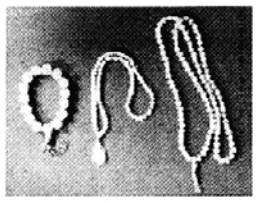
가 격
₩ 45,000

수암옥 장미, 옥팔찌, 반지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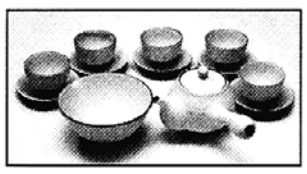
가 격 : ₩ 49,000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가 격 : ₩ 98,000

고산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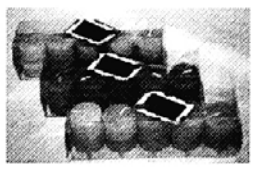
가 격 : ₩ 120,000

대나무 잔



크기 9(세로) 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리틀 향초



가격(10개입) : ₩ 5,000

연꽃 향초



가격 : ₩ 2,500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재질 등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츰부다라니 불



재질 등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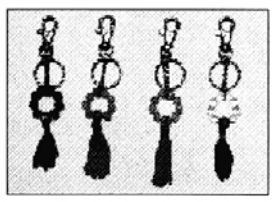
반야심경 종 차걸이



가격
낱개 ₩ 9,000

색상 :금색, 검정

단주 열쇠고리



종 류 · 검정, 빨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가격 : ₩ 25,000
크기 : 4(높이)×7(지름)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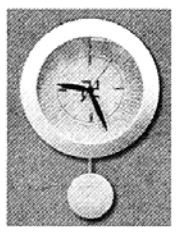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색상 진녹, 검정
크기 55㎝(가로)
140㎝(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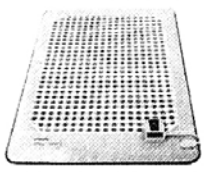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육바라밀 시계



가격
₩ 15,000

그린홈 건강매트



가 격
₩ 298,000

· 첨단 맥반석 코팅방법 원적외선 효과 체험
· 돌침대의 효과와 침대의 안락함 제공
· A/S기간 1년

재봉틀 박사



가격 : ₩ 43,000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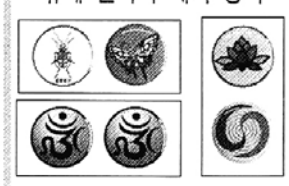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가격 ₩ 70,000 (가방 포함)

유해 전자파 제거 장치



가격 : ₩ 9,000(1세트)

청화대선사 법회 비디오



가격 : ₩ 15,000

부처님 일대기



가격 : ₩ 10,000
어린이용
만화 비디오 테잎

거산 죽염



원산지 국산 가격 ₩ 30,000

홍삼



제조원 개성인삼 협동조합
중 량 80ml/50포입

가격 ₩ 98,000

쑥 액기스



가격 : ₩ 50,000 (100g×60개입)

작설차 (우전 · 세작)



우전 ₩ 80,000 / 세작 ₩ 45,000

작설차 (중작 · 대작)

중작 ₩ 60,000 / 대작 ₩ 40,000
(2통 한세트)

한국불교 총람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사군자

가격 ₩ 120,000
최고급 양장
타블로이드 판 / 253쪽

참선 명상 방석

· 실용신안 1998-025009
· 의장등록 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 보호 휴대가 간편함

가격 : ₩ 27,000
규격 39㎝×43㎝

영인스님 예불 · 천수경

가격 ₩ 9,500 (CD)

한국불교 총람 CD롬

가격 ₩ 60,000

날 개

가격 ₩ 9,500 (CD)

시나브로1집

가격 ₩ 9,500 (CD)

일면스님 경

가격 ₩ 9,500 (CD)

참 선(명상의 말씀)

가격 ₩ 9,500 (CD)

생광석 108염주

가격 : ₩ 35,000

생광석 단주

가격 ₩ 10,000

생광석 원석(냉장고용)

가격 ₩ 15,000

생광석 뷰티 파워

가격 ₩ 25,000

생광석 비누

가격 : ₩ 15,000 (3개 한세트)

생광석 파우다

가격 : ₩ 38,000

생광석 허리벨트

가격 : ₩ 75,000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 ₩ 600,000

지상갤러리

작가 : 최재수(崔在洙)

한국 공모전특선 3회, 입선 3회
일본 국제공모미전 입선 1회
/일본 미전 특별상/국제교류 H.M.A전(백상갤러리)
KOREA H.M.A.회원 /일본 국제공모미전 회원
/국제공모미전 수상작가초대전(롯데미술관)

초대가 ₩ 120,000 / 고급액자 포함 ₩ 170,000

법회안내



혜암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19일 오후 7시, 한국불교선학연구원 큰스님 초청법회. (02)541-0002



암도스님 (전 조계종 교육원장) 11일 오전 11시 대구 영남불교대학 초청법회. (053)474-8228



보각스님 (소쩍새마을 원장) 16일 오전 11시 보리사 초청법회. (02)562-9939



남전스님 (정혜사 주지)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하이텔·넷츠고 불교통신등우회 길상사합동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정기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어린이한문교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기초교리반 강의.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경전반 강의. (02)903-8019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3월10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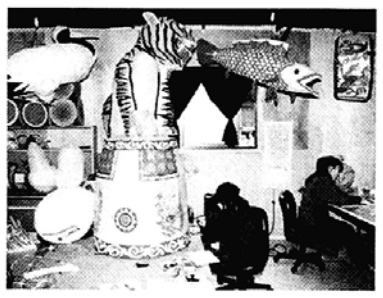
■'힌두교와 불교' 다보문화강좌=오후 2시 다보문화강좌 '힌두교와 불교'가 대한불교진흥원 3층 법당에서 열린다. 동국대 불교학부 이거룡 박사가 강연한다. (02)703-0108

■서초사암연합회 창립 1주년 법회=오후 2시 서울 서초동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서초사암연합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가 열린다. (02)584-1108

3월11일 (목)

■결식아동 밑반찬 나누기봉사=맑고향기롭게는 13일까지 지역의 결식아동 결연자를 위한 밑반찬 나누기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02)741-4696

3월12일 (금)



◇전통등을 만들어 초파일 제등행렬에 참가해 보자.

■전통등 만들기=불산불교교육원을 오후 1시~3시 대나무와 한지를 이용한 전통등 만들기 교실을 시작한다. 2개월간 매주 금요일에 진행된다. (051)466-4080

3월13일 (토)

■우리는 선우 토요법회=오후 3시 우리는 선우 토요법회가 선우법당에서 열린다. 원불교 김현 교무가 초청법사로 법문한다. (02)2278-8672

■길상사 주말 선수련회=직장인과 일반인을 위한 길상사 주말 선 수련회가 14일까지 열린다. (02)3672-5945

■지리산 쌍계사, 연곡사 순례=옛돌은 14일까지 지리산의 고찰 쌍계사와 연곡사 순례를 떠난다. (02)2226-1233

■조계종 포교사단 정기연수회=조계종 포교사단 정기연수회가 오전10시~오후5시까지 서울 경기 강원 제주지역포교사를 대상으로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다. (02)737-7588

3월14일 (일)



◇조계산 선암사에서 봄기운을 만끽하자.

■남해 보리암·조계산 선암사 참배=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무박2일로 남해 보리암을 찾아 일출을 감상하고, 승선교와 정감있는 해우소로 유명한 조계산 선암사를 참배한다. (02)725-1284

■정토회관 개원법회=서울 서초동 정토회관 개원법회가 10시에 봉행된다. 백일법문은 11시 법륜스님. (02)587-8994

3월15일 (월)

■대한불교청년회 부산 대각지회 창립20주년 기념법회=대한불교청년회 대각지회 창립20주년 기념법회가 오후 2시 부산 대각사 불교회관에서 열린다. (051)245-8781

■맑고향기롭게 관음대비양로원 방문=맑고향기롭게는 오전 9시 파주관음대비양로원을 방문한다. (02)741-4696

■대한불과회 봉축케익 기술세미나=오후 2시 대한불과회 봉축케익 기술세미나가 청주제과기술학원에서 열린다. (0417)574-6983

3월17일 (수)

■강화보문사 철야기도=용진신행회는 1박2일 일정으로 강화 보문사 철야기도법회를 떠난다. (02)279-1191

게 시 판

♣ 알림

▲시간제 탁아방 운영=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시간제 탁아방을 운영한다. (02)852-0525

▲노인·장애인 무료 한방진료=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무료한방진료를 27일까지 실시한다. 매주 목, 금,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복지관 6층에서 진료한다. (02)989-4215

▲동호사·파계사 사진촬영=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는 28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와 파계사, 은해사로 3월 정기촬영을 떠난다. 오후 11시 용산역 앞 광장에서 출발한다. (02)335-4982

▲사찰음식 축제=서울 아미가호텔은 15일~4월30일까지 뷔페식당 훼밀리아에서 사찰음식 축제를 연다. 죽순튀김, 은행밥, 메밀잎나물 등 사찰음식을 선보인다. (02)3440-8140

♣ 강좌

▲조계사 문화강좌=조계사는 불교의 근본정신과 전통문화를 접목시킨 문화강좌를 개설했다. 불화그리기·서예·사군자·동양화·다도·관소리·수지침·선체조·가요부르기·한국무용 등의 강좌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02)720-1390

▲소자본 꽃방 창업교실=육수종합사회복지관은 소자본 꽃방 창업교실을 연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꽃꽂이, 꽃포장, 꽃바구니, 웨딩부케 만들기를 지도한다. (02)2282-1100

▲인터넷 강좌=육수종합사회복지관은 성인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강좌를 매주 월요일~금요일 실시한다. 인터넷 검색과 홈페이지 제작을 지도. (02)2282-1100

▲아함경 강좌=무진법장사는 불교최초의 경전인 〈아함경〉 강좌를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 (02)932-2333

▲자원봉사자 교육=대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13일 오후2시 복지관 5층 강당에서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053)473-1199

♣ 모집

▲초심자반, 경전반 수강생=정혜사는 불교교양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15주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에는 초심자를 위한 기초교리반을, 매주 목요일에는 경전반 강의를 실시. 10일 개강한다. (02)903-8019

▲주민노래잔치 참가 및 후원자=육수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노래 잔치 참가 및 후원자를 모집한다. 참가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상품 또는 기금 후원을 받는다. (02)2282-1100

▲노인주간보호센터 후원=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생신잔치에 필요한 물품 후원자를 모집한다. 현물이나 현금으로 동참가능하다. (02)365-3677

▲상록회 봉사자 및 지회창립자=한국상록회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 활동할 봉사자와 지회창립에 뜻있는 사람을 모집한다. (02)2267-2374

▲장애인 셔틀버스 기사=강북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과 노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대형 장애인 셔틀버스 기사를 모집한다. 대형운전면허소지자로, 봉사의식을 가진 사람이면 된다. (02)989-4215

▲이동목욕 이용자=연꽃마을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는 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사업을 전개하고,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용료는 전액 무료이며, 전화또는 내방접수하면 된다. (02)365-3655

▲문화유적답사순례단=진주불교회관 청소년문화유적답사회는 문화유적순례단을 모집한다. 문화유적에 관심있는 중고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591)747-0108

▲무의탁 노인 봄나들이 후원=금강사회복지관은 무의탁 노인 봄나들이를 위한 후원을 기다린다. 빵, 과자, 음료 등 간식과 상비약, 수건 등 생필품을 접수받는다. (0416)856-6110

♣ 부음

총지정 대전수 열반

진각종 총지정 대전수(본명 노연이)가 3일 오후 7시 진각종 스승 노후복지기관인 대구 기로원에서 열반에 들었다. 세수 88세, 법랍 53세. 1912년 대구에서 태어나 1947년 진각종에 입문한 뒤 1964년 초대 종의회 의원, 사감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전수 승계를 품수한 1973년부터는 중생교화에 일심정진하다가 1976년 기로원에서 생활했다. 발인은 5일 기로원장으로 봉행됐다.

종 단 소 식

조계종

직지사 승가대 졸업식

제8교구본사 김천 직지사(주지 녹원)는 7일 설법전에서 제9회 승가대학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번에 졸업한 스님은 일상스님등 6명. 이어 오후에는 제8교구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서는 감사보고, 신도회 경과보고 등이 논의됐다. (0547)436-6174

태고종

철의삼각지서 방생법회

강원교구종무원(원장 백운)은 4일 석왕사에서 임원 및 간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월8일 철의 삼각지서 거행할 방생법회를 비롯, 승려 및 신도 연수교육, 신도회 활성화 방안, 분원별 조직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강원불교대 9기 졸업

강원불교대학(학장 백운)은 2월27일 석왕사 설법전에서 제9기 졸업식을 가졌다.

1백74명의 졸업생이 배출된 이날 졸업식에서 백운스님(석왕사 주지)은 "시절이 어려운 때일수록 배움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무원 불자회 창립법회

총무원 종무직원 창립법회가 2월27일 종무처 설법전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서 종무원들은 "태고종단이 대승교화종단으로서 불사를 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되겠다"며 입을 모았다.

전태종

금강사 법당 낙성식

김천 금강사(주지 지도)는 28일 오전 11시 관음존상 봉안 및 법당 낙성식을 봉행한다.

증개축해 이번에 준공을 하게된 금강사는 지상 3층 건평 5백85평의 규모로 1층에는 사무실과 신도방이, 2층에는 옥불전과 대중스님방이, 3층에는 법당을 갖추고 있다. 옥불전과 법당에는 1백8불의 옥불과 1천53존불을 각각 모신다.

금강불교대학 입학식

서울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과 부산 금강불교대학 입학식이 4일과 5일 관문사 삼광사에서 각각 열렸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서울 2백30명, 부산 2백65명이 새롭게 동문이 됐다.

진각종

밀교문화대학 수료식

서울교구 밀교문화대학은 10일 오후 2시 총인원 대강당에서 제 2기 기초과정, 제 1기 중급과정 수료식을 갖는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제1기 포교사 교육과정 입학식을 갖는다.

원정각 대종사 5주기



진각성사 원정각 대종사 열반 5주기 추모불사가 2월25일 밀각심인당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불사는 점촉, 훈향, 삼귀명례, 오불봉청, 육법공양 순서로 진행됐다.

종비·회당장학생 선발

원의회는 2월25일 총인원 회의실에서 제176회 회의를 개최하고 진기 53년도(1999년) 종비장학생 2명과 회당장학생 36명을 선발했다. 또 종무원법, 진각대학 학칙 개정의 건 등을 논의했다.

관음종

대천대종사 열반 백일재

총무원(원장 홍파)은 13일 오전 11시 천안 보명사에서 종정 대천대종사 열반 1백일재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홍파스님을 비롯한 종단 간부스님과 신도 2백여명이 참석한다.

조동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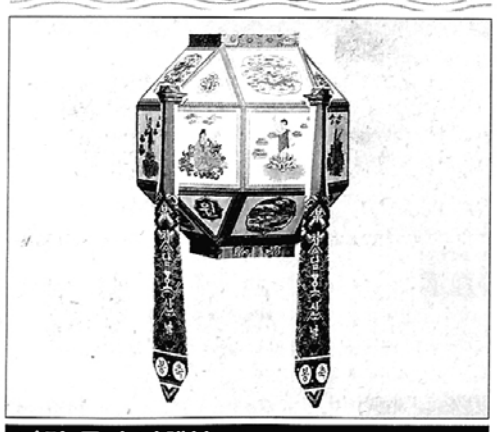
총무원장 학봉스님 취임

제5대 총무원장 학봉스님(원효사 주지) 취임법회가 12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피아호텔 컨벤션홀에서 봉행된다. 이날 행사는 1부 취임법회 2부 기념 공연으로 진행된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대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10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02)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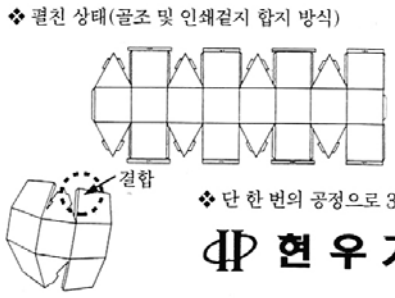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인사말씀

한국불교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불교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에서는 지난 대의원 총회에서 임원진을 새롭게 개편하고 재가불자 신도운동의 오랜 전통을 이어 새롭게 적극적인 신도활동을 전개코저 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전국신도회를 아껴주시고 염려하여 주신 불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 장소를 아래와 같이 이전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사무국주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웅전겔러리 4층)
⊙ 변경된 전화 : ☎ 02)732-7272~4
FAX 02)732-7275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
회 장 선진규
사무총장 김재일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대사와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묵가협회 초대작가로 추천함.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효심·불심 함께 배워요"

용주사 효행교육원 각종 프로그램 운영
'정조대왕' 체험·경전강의…5월 개원



◇3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효행교육원은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개원, 효행교육을 실시한다.

효행(孝行) 근본도량 경기 화성 용주사(주지 정락)가 효행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용주사는 3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효행교육원을 올 초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했다. 지금까지 한양대 성신여대 불교학생회, 전북불교대학, 조계사 대학생회 등에서 1백여명이 효에 대한 교육과 수련회를 실시했다. 현재는 자체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각종 교육기기를 설치하고 있는 상태다. 부처님오신날 전에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효행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육원은 우선 당일이나 1박2일 과정의 수련회를 통해 각종 효행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차츰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용주사가 마련한 효행교육원 교육 운영방안은 정기법회, 효를 주제로 하는 특별법회, 부모은중경 강의, 노인잔치, 청소년 효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도 성보박물관과 지역 사찰, 문화재 등을 활용하는 프로그램과 인터넷을 통한 불교적 효 교육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효행교육원이 비중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은 '체험 정조대왕'. 체험 정조대왕은 참가자들이 정조가 되어 효행을 실천하는 내용이다. 정조가 용주사를 효심으로 중창했다는 것도 함께 배움으로서 효심과 불심을 동시에 배양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용주사측의 얘기다.

용주사 교육국장 동운스님은 "경전을 통해 부모의 은덕을 깨닫게 하고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지극한 보살행과 자기수행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며 "교육대상자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근기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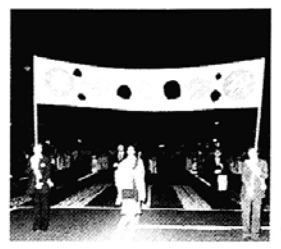


◇광덕스님 영결다비식은 교계 원로 중진스님을 비롯 1만여명 사부대중의 애도속에 봉행됐다.

'바라밀 국토' 헌신

광덕스님 생애와 발자취

불광법회 발족 '거사불교' 주창
불교 대중화·현대화 이끈 선각자



◇매년 부처님오신날 여의도 제등행렬에 참가한 광덕스님.

"전법으로 보리(菩提)를 이루라."

광덕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법회를 걱정하며 보현행자의 길을 걷기위해 모든 정열을 바쳤던 우리시대의 선각자였다.

1950년 범어사에서 동산 큰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스님은 일찍이 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으로도 알 수 없는 무한의 세계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입산 출가했다.

그 무한한 세계를 중생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일체는 바로 우리의 생활속에 있는 것이며 마하반야바라밀속에 모든 것이 구족해 있다"는 바라밀관을 곁쳤던 스님은 수행과 전법을 다르게 생각하던 당시의 교단풍토를 개선하고, 전법으로 이땅에 바라밀국토를 건설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63년 대학생불교연합회 초대 지도법사를 맡아 이땅에 지성불교의 시대를 열었으며, 74년 11월 순수불교 교양지 월간 〈불광〉을 창간하고, 75년 10월 종로 3가 대각사에서 불광법회를 발족했다. 82년 서울 석촌동 호수가에 현대식 부처님도량 불광사를 건립해 도심 포교 전기를 이뤘으며, 당시로서는 새로운 불교운동인 불광 바라밀 운동을 통해 거사불교의 활성화를 주창하고, 보다 젊은 불교, 대중과 함께 숨쉬는 불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전법활동과 더불어 스님은 종단이 어려움에 처했을때에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중앙종회 부의장직을 수행하며 해법을 제시하는 등 종무행정에도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했다.

이외에도 스님은 〈보현행원품 강의〉 〈행복의 법칙〉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으며, '부모은중송' '마하반야의 노래' 등 찬불가를 다수 작시했다.

오랜 병고로 편찮은 와중에서도 손수 양말을 빨고, 아침예불을 빼놓지 않을 만큼 철저한 수행인이었던 광덕스님. 스님은 가셨지만 그 가르침은 자기의 진실면목을 믿음의 횃불로 삼아 이르는 곳마다 법의 광명을 밝히는 전법수행자들의 발길로 오늘도 이땅에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은자 기자

다비식 현장
1만 사부대중 운집
"빛으로 돌아오소서"

3일 오전 10시 부산 범어사에서 거행된 광덕스님의 영결식장에서 입추의 여지도 없이 들어선 1만여명의 사부대중은 두손을 모아 간절히 염원했다. "스님, 빛으로 돌아오소서!"

용성스님에서 동산스님으로 이어지는 선맥을 계승한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승인 동시에 이 시대 한국불교의 대중화 현대화에 새로운 장을 연 선각자 광덕스님은 그렇게 우리곁을 떠났다.

범어사 보제루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혜암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석주스님(칠보사 조실), 청화스님(전 태안사 조실), 녹원스님(직지사 주지),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법등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등과 전국에서 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는 불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범어사 산내암자인 지장암에서 거행된 다비식에서는 치아사리 등 여러과의 사리가 출현됐으나, 스님의 유교를 받들어 금어선원 뒤 금정산 자락 대숲속에 유골과 함께 산골했다. 광덕스님의 49재는 불광사에서 봉행된다.

천미희 기자

열반송

을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위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겁전 봄소식이
겁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몰형상을 떨쳤으니
금정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日 '일광삼존불' 기증

월드컵 개최 기념 부여에 분신불 봉안

백제 때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일본 선광사 본존불 일광삼존불의 분신불(복제불상)이 2002년 월드컵 한일공동개최에 맞춰 부여로 봉안된다.

한일고대문화협회(총재 효란스님, 회장 주양자)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광사측과 합의한 일광삼존불 봉안계획을 밝혔다. 봉안합의서에 따르면 △일광삼존불 분신불의 제작 및 봉송에 드는 2억여원의 비용은 선광사측이 부담 △한국측 고대문화협회는 부여에 성왕사를 건립해 이 불상을 본존불로 봉안키로 했다.

합의서를 통해 선광사측 대표인 후루야마 스님은 "성왕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일광삼존불의 분신불을 백제의 고향에 모셔야 한다"며 봉송 취지를 밝혔다.

한일고대문화협회 총재 효란스님은 "특별히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을 공동주최하는 2002년에 봉안하는 것은 두 나라 국민의 우호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광삼존불은 백제 성왕 때(552년) 일본에 보낸 금동불상으로 현재 일본 국보로 지정돼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1천5백년만에 귀향하는 일광삼존불.

통일기원 맨발순례
스님 10명 부산~임진각

'임진각에서 부산까지, 맨발로 맨발로.' 2천8백리의 남한국토를 맨발로 걸으며 분단의 아픔을 느끼고 경제난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국토순례행사가 벌어진다.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총재 인왕·여래종 종정) 주최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장 의륜) 주관으로 개최되는 '평화통일기원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맨발국토순례'가 그것.

18일 임진각 망향비 앞에서 입제해 서울, 대전, 대구 등 전국 45개 지역을 경유한 후 5월1일 부산 보은정사에서 45일간의 대장정을 회향한다. 덕진스님(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기획실장)을 비롯한 10명의 스님들로 구성된 순례단은 매일 경유지에서 릴레이법회를 봉행하고, 조성된 기금은 각 지방 소년소녀가장에게 기탁한다. 순례단에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02)608-7933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보현사 평생교육대 개원
공예등 전통문화 강의

대구 보현사(주지 지도)부설 평생교육대학이 8일 개원됐다. 평생교육대학은 보현사 별관 지하에 강의실을 갖추고 한지공예, 사찰음식, 성훈따주기, 택견, 자녀글쓰기 지도 등 9개 강좌를 개설한다. 이 강좌는 전통문화 중심으로 짜여진게 특징이다.

계절학교, 역사기행반, 야생초답사반 등의 특별강좌도 수시로 개설된다. (053)254-6966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불국토 가정봉사원 파견

노인대상 가사보조·의료·이미용 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는 3일 부산 진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소장 혜총스님)를 개소했다. 불국토 이사장 정관스님, 개금사회복지관장 정여스님을 비롯 1백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개소식에서 혜총스님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이 정성껏 모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8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으로 자원봉사자가 노인 가정을 방문, 유·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서 운영하게 되는 부산진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 가정의 노인, 60세 이상의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대상가정에 가사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식사수발, 용변보조, 이·미용, 말벗, 행정업무 대행, 생활상담, 결연서비스 등을 월1회 이상 펼치게 된다.

부산진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동참할 유·무료 자원봉사자와 일반후원, 결연후원, 현물후원 등 후원자를 모집중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찰옆 수녀원 건립
주민 반대로 백지화

천주교 부산교구청이 경남 양산 통도사 축서암 인근에 건립할 계획이었던 수녀원및 노인복지시설이 통도사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백지화됐다.

부산교구청은 통도사와 주민들이 강력하게 대응하자 2월 22일 양산시에 건립계획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구청이 통도사 부속암자인 축서암 인근 수녀원을 추진하자 통도사측과 주민들이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김중근 기자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秘)"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아버지와 두딸 '포교사가족'

원소연씨 불교사랑에 딸들도 동참
불교대학원도 함께 다니는 도반

불법(佛法)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세 부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포교사 가족, 아버지 원소연씨와 두 딸인 동임(44) 동애씨(42). 명절과 포교사연수 때 만나면 세 부녀는 포교경험담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도반이 된다.

아버지 원소연씨(66세)는 충남조치원에서 작은 불구점 '보성당'을 운영하며 지역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79년 한 스님이 건네준 '불교입문'이라는 작은 책자를 보고 눈이 번쩍 뜨여 40대 중반의 나이에 불교에 들어왔다. 남보다 늦었다는 생각과 환희심에 불교공부에 매달렸다.

불교 일도 맡았다. 태고종 연기군 연수회(硏修會) 고문. 문화원을 빌려 대법회를 열어 불교를 알리기 시작했다. 좋은 불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81년에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전야제를 처음으로 제의해 조치원 거리를 연등으로 밝혔다. 이때부터 조치원에서는 연등축제가 시작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버지 원씨의 헌신적인 모습이 딸들에게 이어졌다. 포교사가 되기는 큰딸 동임씨가 먼저. 90년 조계종 제12기 포교사가 됐다. 이어 아버지와 동애씨가 13기 포교사가 됐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에도 들어갔다.

"신해행증,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증득해야 비로소 불교신자라고 할 수 있지요. 심오한 불교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해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동임씨가 4기, 동애씨 5기. 불교로 처음 이끌어준 아버지를 이젠 딸들이 이끌었다.

"우리 딸들이 등록금을 마련해줬어요. 애들의 권유로 가끔 도강도 했는데, 정식으로 불교대학원 7기가 됐습니다."

서울에 사는 동임, 동애씨는 매월 한차례 서울구치소 원생들을 찾는다. 동애씨는 그동안 불교간병인회 활동을 하다 최근 언니와 합류했다. 자식을 키우며 청소년들의 고민을 알았고,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 아이들이 나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소년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합니다. 하루 1분만 애기혀 보세요."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97년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성지순례 때의 원소연씨 세 부녀. 왼쪽부터 아버지 원씨, 동임, 한사람 건너 동애씨.

전불련, 재가조직으로

13개 승-재가단체 개인회원제로 전환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권한대행 김춘길, 이하 전불련)이 창립된 지 6년만에 승·재가 결합단체에서 순수 재가불자 운동조직으로 개편된다.

전불련은 2월24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전불련과 결합했던 13개 승·재가단체를 개인회원제로 전환하고 재가불자운동 조직으로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전불련의 결단은 98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지도부와 사무처가 개입해 지도체제의 새로운 구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평가 속에서 나온 것으로, 불교내 정책집단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종단권력 교체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른 중점사업으로는 △종단 권력 감시를 주내용으로 하는 '우리 불교 제자리 찾기 운동'과 △21세기 불교운동을 위한 TCBP(Twenty-one Century Buddist Project)를 추진하기로 했다.

TCBP 사업은 10여명의 소장파를 중심으로 좌담회를 개최해 불교운동의 정체성과 시민사회운동 진영 내에서의 불교역할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전개된다.

이밖에도 전불련은 한국불교사연구사업과 불교장기수후원회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전불련은 17일 오후 7시 조계사 강당(포교원 4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지도부 새로 구성한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재정투명 - 종회 재가참여"

전국산악인련 요구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총재 손현수)는 3일 타워호텔에서 조계종 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종회에 재가참여 △승풍진작과 승가정화 △투명한 재정관리 △문중파벌과 조장타파 △바람직한 신도회 조직 등을 요구했다.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사찰운영위에서 재정을 관리하고, 중앙종회의 경우 상하원제 또는 재가자 참여를 주장했다.

승풍진작과 승가정화를 위해서도 조계종사태 당사자가 철저히 참회하고, 문중불교를 조장하는 폐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신도회를 재가불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현수총재는 성명 발표와 관련 "조계종사태가 피상적인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재발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며 "조계종단의 안정과 불교발전을 위한 3만 불교산악인들의 제언은 불교가 근본적인 변화를 외면할 경우 한국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의 표현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뉴스 & 뉴스

BBS 올 예산 107억원 승인

불교방송 재단이사회(이사장 도후스님)는 2월26일 불교방송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99년 예산 1백7억원을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방국 감사 및 미수금 특별 손실 보고가 이뤄졌으며 이사 임기가 만료된 지하(前 중앙승가대 총장)·정우스님(구룡사주지)과 감사인 혜담스님(광주 각화사주지)의 사임이 결정됐다. 또 서돈각(대한불교진흥원 원장)이사와 종하스님(서울 관음사주지)은 연임됐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참나 참사랑 복지협회' 창립

한국불교청년회 마음의전화(회장 도각스님)는 지난 1일 달마선원에서 마음의전화 개통 4주년 기념식과 '참나 참사랑 실천 복지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대한장애인공예협회 송호섭씨가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송호섭 회장은 "만해 대선사의 민족자주 독립정신과 국민의식 계몽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참사랑 실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협회를 만들게 됐다"면서 "불자 장애인들에게 공예기술을 전수해 실질적인 삶에 도움을 주는등 장애인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02)952-2266 김재경 기자

새불교승가회 '자비의 쌀' 전달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가 2월24일 강북구와 도봉구 내 저소득 실직가정 50가구에 쌀 40kg 1가마씩을 전달했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지난 해부터 서울 전역 구청에서 저소득 실직가정을 추천을 받아 직접 자비의 쌀을 전달해 오고 있다.
도필선 기자

교계 미인가 복지시설 파악

종단협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공동추진위원장 고산스님)는 최근 교계 미인가 복지시설 및 단체 파악에 나서고 있다. 정보지원센터는 이와함께 교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복지 시설, 단체, 사찰의 활동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02)737-6966
김재경 기자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촉구

민주화운동단체 및 인권단체 인사들이 4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정권하의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법무부 장관과 여당의 책임인사가 '구정권하의 정치 수배자 전원에 대해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하겠다'는 확답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사 경내에는 구정권시절 학생운동을 하다가 구속됐던 정치수배자들이 2백8일째(4일 현재)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길상사 청규 사중공개

"주객 막론하고 하루 세번 예불하라
외출할때 반드시 소임자에 알려라"

길상사(주지 지관)가 청정한 규율로써 출가 수행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길상사청규를 제정, 〈맑고 향기롭게〉 3월호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청규는 총 16항목. ▲사중의 대중은 주객 막론하고 하루 3번 예불, 공양시간 반드시 참례한다 ▲외출시 종무소 현황판에 출입시간 명기, 귀가시간 9시 엄수한다 ▲밖에서 자고 올 경우 대중에게 고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외출 후 들어오지 못할 경우 소임자에게 전화연락한다 ▲저녁예불 후 손님이 찾아오면 객당에서 만나며, 일주문 닫는 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매주 월요일 아침공양후와 회주 법정스님이 오는 날 점심공양후 대중공사. 사중 일은 대중공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날의 주요 행사는 매일 아침 공양후 소임자가 공지한다 ▲청소울력은 매주 일요일 오전 실시한다 ▲대중울력이 필요할 경우 당일 아침공양 후 발표, 기도법사를 제외한 전 대중이 동참한다 ▲1박 이상의 장기 출타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평일을 선택한다 ▲대중의 좌차는 비구계-사미계-나이 순 ▲법랍과 나이에 상관없이 사부대중 경어를 사용한다 ▲객스님은 3일이상 머무를 경우 대중의 허락 얻어야 한다 ▲음주, 흡연, 육류, 오신채 일체 금지한다 ▲신도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며 행주좌와에서 승가의 위의를 유지한다 ▲대중방부는 기존 대중의 추천 받아 대중 전원의 찬성을 얻는 것으로 한다 ▲위의 청규를 어겼을시 월요일 대중공사 시간에 유나(維那)소임자가 지적, 대중에게 참회한다. 청규를 3회 이상 어길 경우 승가의 화합과 청정함을 위해 대중공의를 거쳐 퇴방 시킨다 등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빠르면 내년부터
서울도심 납골공원

빠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에 공원과 납골묘를 조화시킨 근린 납골공원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시는 4일 시내 자연녹지대에 납골 및 조경시설을 갖춰 어버이날 참배와 경로잔치, 체육활동 등 평상시에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숭조(崇祖)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공원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건의했다. 올해 안에 법개정이 이뤄지면 내년쯤 서울시내에 숭조공원이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완주화엄사 법당
누수등 훼손심각

전북완주 화엄사의 극락전 명부전 정묵당의 기둥이 부식되는 등 전북도내 사찰 문화유산이 훼손되고 있다. 전북도는 2월26일 도내 문화재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상당수의 문화재가 관리상태 허술로 붕괴위기에 처하는 등 보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영남불교대학은 청초 방생법회를 기해 바다 살리기 캠페인을 펼쳤다.

영-호남불자들 인간방생 나섰다

장기기증 · 화장캠페인등 펼쳐

기존의 물고기 위주의 방생에서 벗어나 장기기증 서약·환경캠페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인간 방생'을 실천하는 방생법회가 영·호남에서 나란히 열렸다. 이같은 새로운 형태의 방생법회를 선보인 곳은 대구의 영남불교대학과 전주의 전북불교회관.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은 2월28일 오전 감포 문무대왕릉앞 해변에서 정초 방생법회를 갖고 해변대청소와 바다살리기 캠페인을 가진데 이어 2일부터 6일까지 남구 대명동 영남불교대학에서 장기기증운동 및 화장문화캠페인을 펼쳤다.

전북불교회관(원감 회일스님)도 2월25일 부산 해동 용궁사 방생법회를 기해 사후 장기기증 및 화장을 서약하는 행사를 가진데 이어 2월28일 회관에서 헌혈캠페인을 펼쳤다. 회일, 도현스님 등 6명이 장기기증을, 1백10명이 사후화장을 서약했으며 40여명이 헌혈에 동참할 정도로 반응이 좋자 전북불교회관은 오는 10일 남해 보리암 방생기도법회 때도 이같은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며,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헌혈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영남불교대학장 우학스님은 "물고기 방생은 상징적으로만 하고 방생의 의미를 더욱 확대한 환경살리기 운동 및 인간방생 등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야만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99학년도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대원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38개기 졸업·현재 39기생 모집중)

1.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불교학과 통신과정
2. 지원자격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원하는 신심있는 불자 ○대중불교 운동의 지도자 자질을 갖춘 불자
3. 강의시간 주 4일 수업 (19:00~20:00) 화, 수, 목, 금
4. 교육과목 20개 과목 년간 총 28주 교육

학 년		교 육 과 목
1 학 년	1 학 기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2 학 기	◇대승불교의 이해 ◇중국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의 이해
2 학 년	1 학 기	◇불교문화의 이해 ◇비교종교 ◇부파불교 ◇초기대승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2 학 기	◇기신론 사상 ◇천태 사상 ◇화엄 사상 ◇선사상 ◇정토 사상 ◇불교교리 발달사

※ 매주 의식교육 실시 ※범패의식 특강 (동·하계 스쿨링때는 범패의식 교육)
※ 교수진 : 권기종교수, 조용길박사, 권탄준박사, 장희옥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김사업박사, 김종명박사, 법현스님 (동국대교수 9명), 강건기박사(전북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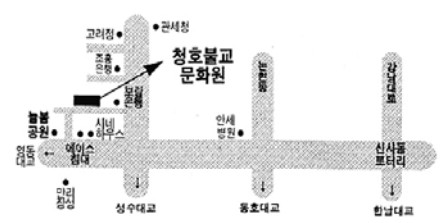
5. 원서교부 3월·8월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6. 제출서류 ◇입학원서(반명함판사진 3매)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7.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8. 특전사항 ◇소정의 법사고시를 통하여 법사호 수여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부여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알기 쉬운 **금강경** 강의

⊙개강일 : 1999. 3. 15(月) 오전 10시 30분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강 사 : 송 찬 우 교수 (승가대)
⊙교 재 : 「뜻으로 읽는 금강경」 송 찬 우 역저
⊙특 전 : 선착순 50명의 접수분에 한해 수강료 및 교재 무료

서울 강남구 논현동 98-12
전화 : 02)517-3052, 515-9604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 교 통 편 ·
1. 전철 3호선 압구정역 하차후 - 일반버스 74, 235번 - 좌석버스 774, 235번 타고 도산공원앞 하차(2정류장)
2. 전철 3호선 신사역 하차후 - 일반버스 83, 567번 - 좌석버스 567-1번 타고 늘봄공원앞 하차(2정류장)

출판 기획자 모집

20년 간 꾸준히 불교서적을 만들어 온 민족사에서 대중들이 널리 읽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신선한 감각을 가진 기획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분
■출판 기획 부분(대중적 불교서적 전문 기획자) 1명
학술, 전문서적이 아닌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서적 기획 요망

◉자격 및 조건
■자격 : 나이, 학력, 성별 불문
■조건 : 1주일 2~3회 출근 가능
급여는 면접 후 결정

◉일정 및 방법
■기간 : 3월 17일 서류 마감
3월 23일 면접(서류 전형 후 세부일정 개별통보)
■방법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기획가안 1부 제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출판물에 대한 전체적 개요, 구성, 필자 등을 간략하게 서술)

세상에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무게를 나눠 가질 도반들이 있습니다. 민족사는 이 땅의 모든 불자들의 무게를 나눠 가지려 합니다. 또 우리들의 무게도 여러분께 조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민족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3층 ㉾110-130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신행수기 당선작 (천태종 총무원장상)

저 언덕을 향하여 ①

정유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그림 · 문병성

"교회는 대학입학후 다녀라. 그게 싫으면 이 집을 나가라" 남편은 최후 통첩을…

나는 기독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50대의 가정주부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는 권사였으며 현재 오빠는 장로이다. 한마디로 친정이 전부 기독교 집안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조상님을 받들고 제사를 지내는 유가(儒家)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재건교회의 창립멤버로 참여하시면서부터 나의 집은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렸다. 아버지는 제사를 지내는 큰집을 비롯하여 다른 어떤 집에도 못가게 하여 우리 7남매는 외딴섬에 사는 고아신세나 다름없이 되었다. 이러다 보니 친족간의 정의도 끊겨버렸고, 사촌들과의 우애마저 사라져 냉랭한 사이가 되어버렸다. 어릴 때 큰집·작은집 다니면서 세배하던 일, 사촌들과 정답게 지내던 모든 일들은 까마득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이런 갑작스런 일들은 우리 7남매의 정서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쳐 모든 생활에 안정성의 결여를 가져왔다. 하는 일도 상의할 곳이 없어지고 경조사가 있어도 친인척간의 내왕이 끊겨 쓸쓸하기 짝이 없는 행사가 되고 말았다. 일주일에 6일은 일하고 7일째인 일요일에는 일도 하면 안 되었다. 돈도 쓰면 안 되며 오직 성경만 읽고 기도를 하며, 아침은 금식하면서 6일동안의 잘못한 일을 회개하는 가족예배를 본 후 교회에 나가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다.

그후 나는 혼인을 하였다. 그러나 같은 교인 집안에 못가고 전통적인 유가 가문에 혼인을 하게 되어 나의 생활양식은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 절대로 참석하지 않던 제사에도 참석하게 되었고, 또한 시가쪽 조상묘소에도 참례하게 되고 보니 내 생활은 일대 변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 생활이 단번에 변할 리는 없었고 왔다갔다 하는 이중생활에 처하고 말았다.

결혼후 나는 상형제를 두었는데 친정아버님은 일요일만 되면 큰애(6살)를 데리고 교회(그때 교회에서는 빵과 우유를 주었음)에 가면서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였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나와 애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굳이 싫어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갈 때마다 우리 가족, 특히 남편이 같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남편은 등산을 즐겼는데 가는 곳마다 그곳 사찰의 현판이나 부처님의 상(불상)을 사진으로 찍어와서 글씨가 어떠니 불상이 어떠니 말해주었다. 그래도 나하고는 전연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뿐 아니라 남편은 여행을 가면 반드시 염주를 사오거나 향통 등을 사왔으며, 더욱이 일요일만 되면 독경 테이프를 틀어놓고 아이들의 아침잠을 깨웠고 밤중에는 독경소리를 들으며 명상에 잠기곤 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불자라고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방학 큰애가 교회 학생부에서 주최하는 캠핑에 가게 되었는데 거길 다녀온 후부터 여학생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러더니 집만 알던 애에게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중복되자 가뜩이나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던 남편이 가만 있을 리 만무했다.

"성한아, 이제부턴 교회에 나가지 말아라. 너의 학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남편은 조용하게 큰애를 타일렀다. 왼소 같으면 아버지에게 말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던 애가 "아버지, 종교에는 자유가 없습니까?" 하며 반항을 하였다. 이건 정말 우리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큰 변화를 암시해 주는 서곡인지도 몰랐다. 애지중지하던 장남이 이렇게 빗나가기 시작하자 집안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남편과 아들은 대화마저 잘 하지 않고 서먹서먹하게 변해버렸다. 큰애는 개선되기는 커녕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자 남편은 "성한아! 교회 같은 데 나가 희희덕 거리다가 너 장래를 망치는 것은 봄을 보듯 뻔한 일이니, 대학에 입학한 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여라. 만약 그것이 싫으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 네 마음대로 하고 이 집을 나가거라."

남편은 경고성이 강한 큰 소리로 최후통첩을 내렸다. 이때 나의 심정은 정말 백척간두에 선 듯하였다. 큰애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렸고 나의 두 뺨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착잡한 심정이었다. 완고한 남편을 설득할 수도 없고 빗나가기 시작한 아들을 그냥 둘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큰애가 일류대학에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고 말씀하시던 담임선생님, 의대를 보낼까 공대에 보낼까, 행복한 고민을 하던 나였다. 성격이 다정하고 불임성이 많던 큰애는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했다. 호수같이 고요하던 집안은 큰애 때문에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는 듯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절벽 위에 서 있는 것만 같았다. 자율학습 시간에 아들은 학교에는 가지 않고 주변을 헤매다녔고 오락실에 가있기 일쑤였다. 아이의 성적은 점점 떨어졌다. 아들에 대한 가슴 아픈 불신, 남편이 방에 있으면 아들은 마루에 나가고 아들이 방에 있으면 남편이 마루에 나가고….

더욱이 고등학교 1학년인 둘째와 중학교 2학년인 셋째가 있는데도 큰애 때문에 항상 집안 분위기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하도 큰애는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공대 기계과에 입학하였다.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큰애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나의 몸과 마음은 안정되지 못했다.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있던 터라 일요일마다 남편을 따라 망월사(도봉산)에 갔다. 눈은 뜨고 있어도 아래만 보고 다녔다. 참으로 내키지 않는, 할 수 없이 가는 발길이었다. 우상이다, 제사를 지내면 지옥간다 등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들은 나를 긴장시키고 무서움에 떨게 했다. 배가 고파도 공양간에 들어가 공양을 할 수가 없다. 먹으면 체할 것같은 기분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남편도 말없이 나와 같이 행동을 했다. 그 무렵 큰애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불안한 상태였다.

"부처님, 우리집 장남, 우리집 기둥인 성한이를 지켜주세요" 하며 부처님께 절하고 또 절했다. 무서움에 부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어 눈을 감고 절하다 보면 어느새 옆쪽을 향해 절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 이렇게 108배를 하고 나오면 언제나 법당 앞 나뭇가지에 앉은 까치가 우리를 반기 듯 짖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까치도 우리를 즐겁게 맞이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계속〉

경전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 전통經床의 실용화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찰의 강원 · 스님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 읽기 · 자녀들의 학습

■재질 : ASH(느릅 원목)
■규격 :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가격 : 8만5천원



구입문의 :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주문(http://mall.buddhapia.co.kr)

부디피아 http://mall.buddhapia.co.kr

윤장대에 願(원)을 실어 돌려라 ~ 이루어지리라



윤장대(보물 제684호)를 돌려서 무명을 밝히자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법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회업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실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윤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용문사는 움직이는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9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보물 684호)]



용문사 가는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40분간격)
3시간 10분 소요 ⇒ 예천에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비행기 : 대한항공(서울 ⇒ 예천) 오전 9시 50분 오후 5시
아시아나(서울 ⇒ 예천) 오후 4시



· 용문사 주차장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주 지 청 안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대찰 소백산 용문사

문 의 : (0584)655-8695(종무소), 655-1010, 8405
(02)582-4665, 522-0770 서울포교당 청 안 사